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 예산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연구 -

연구자: 안 권 순



한 서 대 학 교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 예산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연구 -

2024.12.

한 서 대 학 교

제 출 문

예산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 예산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연구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한서대학교
교수 안 권 순

연구진

1. 연구 보고서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 예산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연구 -	한서대학교

2. 참여연구진 및 협력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주관기관	한서대학교	안권순	한상윤
협력연구기관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이정순, 이길원, 강선구, 심완예, 장순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1. 연구의 목적	3
1. 연구의 문제	3
II. 선행연구 검토(예산군을 중심으로)	4
1.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검토(예산군을 중심으로)	4
2. 예산군 인구통계학적 지표	6
III. 연구 배경	16
1. 육아친화의 개념	16
2. 육아친화도시 개념	18
3. 육아친화(育兒親和)의 구성 요소	21
4. 육아친화와 유사 개념	23
5. 육아친화 명품도시 국내외 사례	28
6. 스마트시티(Smart city)리빙랩(Living Lab)국내외 사례	37
IV. 연구 방법	41
1. 연구 과업 내용 및 방법	41
2. 육아친화도시 연구범위	45
3. 예산군 요구 내용 반영	45
4. 관련 국내·외 사례	46
5. 예산군 현황 SWOT 분석	47
6. 예산군 지역주민 설문 구성	48
V. 연구결과	49
1. 예산군 설문 기초자료에 관한 내용	49
2. 영유아 양육 현황에 대한 질문	49
3.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51

4. 예산군 설문 기초자료 분석 내용	60
5. 양육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	65
6.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87
7. FGI 결과 및 해석	116
VI.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모델 및 제언	122
1. 정책 모델 및 제언	122
2. 육아친화 명품도시 모델 제시	124
3. 기존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44
4. 가칭 ‘육아친화 명품도시 구성에 관한 법률’ 조례 제정	147
참고문헌	153
<부록>	159
1. 설문지	159
2. FGI 결과	16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9명, 2분기와 3분기에 0.84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 2.4명, 유럽연합(EU) 평균 1.59명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서울이코노미뉴스, 2020, 1.13).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는 초저출산을 넘어서는 ‘초초저출산 사회’인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 노동력 감소, 소비 및 세수 부진, 잠재성장을 둔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갈 등으로 이어져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닌 ‘그 사회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며 생활하기 어렵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 보아야 한다(권경미 외, 2023).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육아지원정책은 시간과 서비스,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포함하는 시간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서비스 지원,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 등의 현금지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대응으로 비롯되었다. 이처럼 정책의 목표로 삼은 육아의 질, 삶의 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이 범주에 더하여 삶이, 육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공간’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육아지원은 지역 사회, 주거단지, 생활공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주거단지 내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온 마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아이 기르는 일, 육아의 과정이 지닌 다면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양육하는 가정이 속한 주거환경에 담긴 요소들을 다루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육아친화적 환경이란 아이 기르는 데 최적화된 교육·보육시설, 공원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내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육아 및 가족지원 제도,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다면적 이해를 토대로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고 수렴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하는 영유아의 변화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육아친화적 요소도 영아, 유아, 초등학생으로 선정함에 따라 변화하여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혼부부,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저학년 부모 등 자녀의 유무, 자녀의 연령에 기초한 요구 수렴이 필요하며, 공간의 구성과 운영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현재 주거단지가 지닌 육아친화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들이 어떻게 수요자의 생활환경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단지 내에 거주 주민이 체감하는 친화 정도 평가와 더불어 요구 수렴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육아의 가치를 공유하며, 아이 키우기 편리한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아동 인구와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권리가 우선되는 마을, 지역 공동체 조성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또한 지역 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생활 전반 육아친화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육아담당 관련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로서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와 개인적 영역으로 여겼던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여 지역은 주민이 공유하는 물리적 삶의 공간과 그 공간에 정주함으로써 온 도시와 마을이 육아하는 가구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육아’와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며, 일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됨과 동시에 육아친화 명품 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및 제반 물리적 환경을 갖추며, 온 도시(마을)이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 환경, 교육, 교통, 주거단지 공급주체 등 각 분야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육아친화적 환경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군의 육아친화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모형’을 개발하고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한 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한 요구조사(설문지, FGI)를 실시하여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욕구를 파악한다.

셋째, 해외 주요 선진국의 육아 친화 명품도시 사례를 발굴하여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에 적용한다.

넷째,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한 예산군 육아 관련 정책 기본방향 제시,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발전 전략에 따른 사업 및 정책 제시의 모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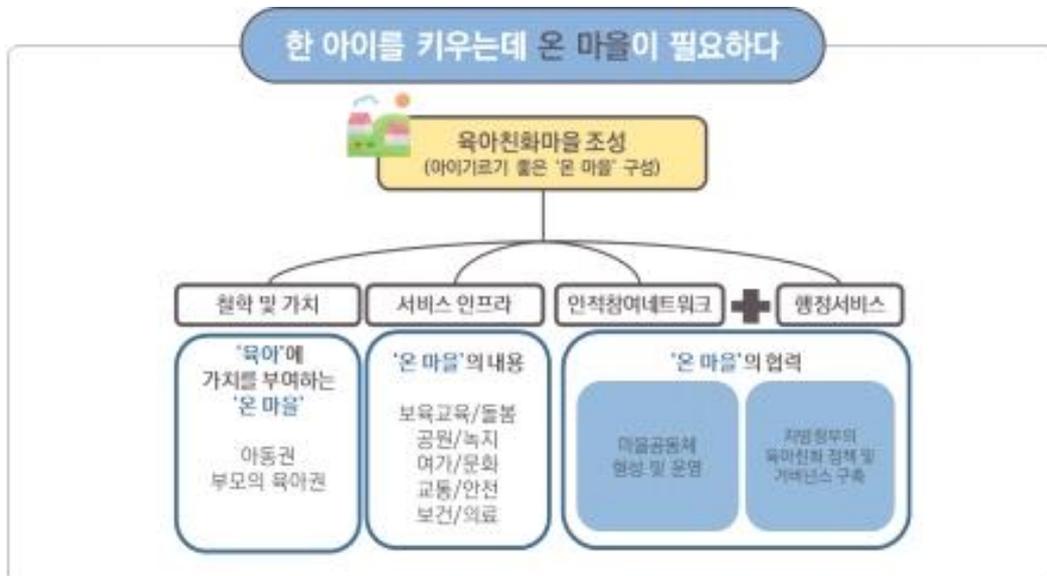
II. 선행연구 검토(예산군을 중심으로)

1.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검토

-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아친화(育兒親和)’란 아이를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여러 요건과 관련된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 기준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OECD, 2020).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저출산 해소의 출구는 보이지 않음.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0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최저출산 국가임.
 -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크게 감소함. 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함(통계청 보도자료, 2020. 2. 26.: 4-5).
 -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 1.47명, 전남 1.24명, 제주 1.15명 순으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함.
 - 예산군 출생아 수와 생애주기별 인구구성
 - 예산군의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으로 212명이며, 2017년 대비 106명(-33.34%)이 감소함.
 - 예산군의 2012년에서 2022년 12월 말까지 10년간의 생애주기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노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감소하였음.
 - 10년 동안의 영유아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이 요구됨.
 - 저출산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지목되나, 현 정부는 출산결정가구

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여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으로 삼음. 혼인 자체의 감소와 더불어 만혼이나 비혼 인구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적됨.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 실업률 증가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젠더 불평등한 기업 및 사회문화,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 공교육·보육 부족 등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음.
- 저출산의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구의 출산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실제 덩크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나 둘째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보면, 육아를 기피하는 현재 문화를 알 수 있음.



<그림 1>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 25. 수정보완함.

2. 예산군의 인구 통계학적 지표

가. 예산군의 인구통계학적 지표

□ 예산군 인구 추이 및 출산율 동향(출처: 2023년 예산군 통계년보)

1) 인구 추이

<표 1 > 예산군 인구 추이

연도	세대수	남	여	한국인 수	남	여
2022	39,051	40,403	39,168	77,385	38,848	38,537

2) 연령 대별 및 성별 인구(2022년 기준)

<표 2> 연령 대별 및 성별 인구(2022년 기준)

연령 대별	계	남	여
0~24	11,865	6,281	5,584
25~44	12,929	7,114	5,815
45~64	26,565	14,033	12,532
65~84	22,209	10,243	11,966
85이상	3,850	1,177	2,673
계	77,385	38,848	38,537

3)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2020년 기준)

<표 3>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2020년 기준)

연령계급별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34	9,116	1,271	12	82	7,751
35~49	12,186	7,927	146	828	3,285
50~64	20,999	16,200	1,112	1,945	1,742
65~84	20,432	13,982	5,595	613	242
계	62,733	39,380	6,865	3,468	13,020

4) 인구동태(2022년 기준)

<표 3> 인구동태(2022년 기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계	남	여	계	남	여		
212	108	104	1,177	617	560	214	153

5) 인구이동(2022년 기준)

<표 4> 인구이동(2022년 기준)

전입	이동률(평균)	전출	이동률(평균)
8,205	10.2	6,642	8.3

6) 상주(야간)·주간인구(2020년 기준)

<표 5> 상주(야간)·주간인구(2020년 기준)

상주인구	유입인구	통근	통학
75,152	8,262	7,639	623

7) 주택 점유형태별(일반가구)(2020년 기준)

<표 6> 주택 점유형태별(일반가구)(2020년 기준)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33,675	25,759	1,638	3,450	599	256	1,973

8) 주요 국적별 외국인 등록 현황(2022년 기준)

<표 7> 주요 국적별 외국인 등록 현황(2022년 기준)

총계			일본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전체	남자	여자	5	10	19	95	129
2,186	1,556	631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97	351	19	156	68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	호주	기타
			2	27	18	2	1,186

○ 인구 및 세대 현황

- 2022년 기준 예산군의 총 인구수는 77,385명이며, 최근 10년간 (2013~2022년)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0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22년에 인구가 증가함
- 65세 이상 고령자 수 또한 최근 10년간 2.7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음
- 반면 세대수는 연평균 0.78%씩 증가하였으며, 세대당 인구는 연평균 1.83%씩 감소하여 세대수가 2명 이하로 내려갔음.

○ 연령별 인구 구조

- 최근 20년간(2002년~2022년) 예산군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지속적인 증가로 볼 수 있음
-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비교할 때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모두 예산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유소년 인구의 경우 2002년 15.8%에서 2020년 7.6%로 절반 정도 감소하여 부양비 부담률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충청남도는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군은 33.7%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2002년과 비교하여 10,407명(66.49%)이 증가하여 노령화 지수가 445.0에 육박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인구이동

- 예산군은 인구유출지역으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동안 전입 52,473명, 전출 55,606명으로 총 3,133명의 인구유출이 발생함- 예산군 시군구 내 인구이동은 2022년 기준 1,072명이며, 충남 타 시군에서의 유입 2,148명, 유출 1,764명으로 나타남- 시도간 이동의 경우 유입 2,531명, 유출 2,273명으로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함

○ 다문화가구

- 예산군의 다문화가구는 2021년 기준 전국 비율(1.75%)보다 높은 편이며 충남 비율(2.0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6년간(2015년~2021년) 예산군의 다문화가구를 살펴보면, 2015년 631가구(1.90%)에서 2021년 781가구(2.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가구 연평균 증가율 역시 2.77%로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예산군의 산업구조 지표

□ 예산군 산업구조 사업체(출처: 2022년 예산군 통계년보)

○ 사업체

<표 8> 산업구조 사업체(2022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 수	구성비	종사자 수	구성비
1차 산업	125	1.14	632	1.64
2차 산업	3,293	30.15	15,726	40.69
3차 산업	7,504	68.71	22,287	57.67
합계	10,922	100.00	38,645	100.00

- 예산군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3차 산업이 각각 68.71%, 57.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업체당 평균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업체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2022년 기준)

<표 9> 산업단지(2022년 기준)

구분	소재지	입주업체	고용현황
일반산업단지	삽교읍, 고덕면	152	3,305
농공단지	고덕면, 예산읍, 삽교읍, 신암면, 응봉면	82	2,370
합계	13개 단지	234	5,675

- 일반산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8개소로 총 13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

가 입지함

- 일반산업단지는 예산일반, 예당일반, 예당 제2, 예산신소재, 예산 제2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에는 고덕, 예덕, 관작전문, 예산, 삼교전문, 신암, 응봉, 증곡전문 농공단지가 입지함
- 산업 및 농공단지의 총 면적은 4,163㎡로 분양면적은 2,709㎡이며, 단지 내 입주한 업체 수는 약 234개소, 종사자수는 5,575명이 근무하고 있음

○ 농가수 및 농가인구(2022년 기준)

<표 10> 농가수 및 농가인구(2022년 기준)

구분	농가				농가 인구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남	여
예산군	9,273	6,931	813	1,529	20,065	9,944	10,121

- 예산군은 2000년 이후부터 20년간 연평균 농가수 1.92%, 농가인구 3.69% 감소- 농가수 9,273가구, 농가인구 20,065명으로 충청남도 농가인구의 7.5%를 차지함- 전업농가가 겸업농가보다 3배 많으며,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과 비교하여 1.1배 많음.

○ 귀농귀촌인구

- 귀농인수는 2013년 91명에서 2021년 기준 115명으로 최근 9년간(2013~2021년) 연평균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귀촌인수는 2013년 2,000명에서 2021년 기준 1,935명으로 최근 9년간(2013~2021년) 연평균 -0.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귀농인수의 경우 여성 인구의 증가율이 6.4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귀촌의 경우 남성 인구가 0.4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귀농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귀촌인구의 경우 감소폭이 적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 중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교육 및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 예산군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2022년 기준)

- 예산군 내 사회복지시설 447개소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이 391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함
-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과 비교하여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 제5기 예산군 지역사회 보장계획(1-3-1 참조)

- 전략: 활기찬 일터·삶터 제공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여성친화 도시 유지·강화

1)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 사업운영 : 예산군가족센터(직영)
- 종 사 자 : 아이돌보미 45
- 사 업 비 : 1,080,805천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대 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중인 3개월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사업내용 :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정부지원 : 소득별로 가~다 유형 구분(라형은 정부지원금 없음)
최대 1년 960시간 지원
 - 자체지원 : 전 유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50% 지원

2)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 사업대상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지원
- 사 업 비 : 80,000천원 (군비 100%)

- 사업내용 :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정부지원 : 소득별로 가~마 유형 구분(마형은 정부지원금 없음)
 - ※ 시간당 12,180원(본인부담 1,827~12,180) 1년 960시간 지원
 - 군지원 : 전 유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50% 지원

세부사업 I-3-2. 아동친화도시 조성

- (배경)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함.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임. 아동의 생활환경,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사회에 이것이 잘 적용되는지 평가하여야 함.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주체가 되며,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줌. 예산군은 아동권리 전담부서인 아동친화보육팀을 설치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통해 2023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유니세프 이행권고사항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10개 원칙 지표 충족을 위한 사업 진행
 - 아동권리증진행사, 아동정책한마당행사·아동참여기구워크숍·아동참여교육프로그램 운영·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등

1) 세부사업 I-3-3. 여성친화도시 유지·강화

- (배경)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함. 본 사업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따른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보장 및 여성친화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예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예산군은 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2019년에 지정받은 여성친화

도시는 2024년까지 진행되고 2025년 재지정 예정임.

- (내용) 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동아리, 소모임, 활동지원), 여성친화기업 매년 3개 인증, 여성단체 활동지원, 도비사업으로 지역여성인적개발사업(취업교육/구인/구직-교육비), 여성사회교육특강(리더교육을 운영중임)과 여성취업설계사 사업(인건비 지원됨)

□ 종합

-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실정임.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가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예산군도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적 인프라 조성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표 11> 각종 친화도시 유형별 특성

구분	친화도시 유형별 특성			
	가족친화	아동친화	여성친화	육아친화
정책대상	가족	아동	여성	아동, 자녀를 기르는 가족
개념	전체 가족구성원 모두를 고려하여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 2009:24)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목적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의 사회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지역사회에 공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2017)	육아하기 좋고,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이 행복한 마을 조성
법적·제도적	건강가정기본계획,	UN아동권리협약	양성평등기본법	별도근거없음

근거	가족친화법			
평가 및 실태조사	2009, 2015 실태조사	201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별도 평가, 실태조사 없음
구축사례	울산시 등	서울, 경기 등 33개 시군구	서울 부산 등 92개 시군구	별도 사례 없음

○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아이 기르는 일, 육아의 과정이 지닌 다면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양육하는 가정이 속한 주거환경에 담긴 요소들을 다루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육아친화적 환경이란 아이 기르는 데 최적화된 교육·보육시설, 공원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내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육아 및 가족지원 제도,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다면적 이해를 토대로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고 수렴하여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 둘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하는 영유아의 변화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야한다. 육아친화적 요소도 영아, 유아, 초등학생으로 선정함에 따라 변화하여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혼부부,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저학년 부모 등 자녀의 유무, 자녀의 연령에 기초한 요구 수렴이 필요하며, 공간의 구성과 운영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셋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현재 주거단지가 지닌 육아친화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들이 어떻게 수요자의 생활환경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단지 내에 거주 주민이 체감하는 친화 정도 평가와 더불어 요구 수렴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 환경, 교육, 교통, 주거단지 공급주체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육아친화적 환경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환경인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친화 명품도시’의 모델을 예산군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육아친화적 명품도시 모형’을 개발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따라서 예산군 현실에 맞는 임신·출생·육아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보육 정책을 넘어서는 포괄적 육아 지원 정책 제안을 통해 예산군을 육아 친화 명품 도시로서의 토대와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I. 연구 배경

1. 육아친화의 개념

육아친화는 양육을 하는 가정이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친화도시’, ‘육아친화(도시)마을’, ‘육아친화 스마트시티’ 등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육아친화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그 범위와 대상 및 그 강조점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육아친화’ 및 ‘육아친화도시’의 개념은 기존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마을)’ 등의 개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육아’라는 행위의 특성상 대상 연령층이 영유아에 보다 집중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육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및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총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 등에 그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교육기관, 육아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지역사회 전달체계, 놀이터와 각종 문화시설 등 인프라, 행정서비스, 도시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육아친화’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돌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친화마을 사업과 달리 본 연구의 ‘육아친화마을’은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육아친화 환경 전반에 주목하고 자 한다.

따라서 아동친화나 청소년친화, 가족친화의 지표가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 등에 집중된 것과는 일정 부분 일치하면서도 ‘육아친화환경’은 지역사회 내 육아에 대한 가치 부여와 배려,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육아지원제도, 지원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고 본다(권미경 외, 2019).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이다(권미경 외, 2019).

따라서, 육아친화는 육아를 지지하고 확대하는 철학적 가치에서 시작하

여, 그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 마을 및 주거단지 등을 구상할 때 육아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공간과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육아를 하는 가정에 필요한 공간과 환경,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이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육아하는 가구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욱 살기 편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근린환경에 대한 이해와 요구 및 주거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의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생활권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강은진, 2020).

‘육아친화’란 어떤 환경을 구성하거나, 정책적인 가치를 설정할 때에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환경, 서비스, 시설들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친화 개념은 육아친화 마을 조성방안 연구(권미경 외, 2019)에서 언급되었으며, 기존의 가족 친화, 아동/청소년 친화 개념과 강조점은 다르나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가족 친화는 아동 및 노약자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기능의 사회화를 위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김도희, 2017), 아동/청소년 친화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우선시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박금식·박지영, 2018).

하지만 육아친화는 아동 친화 및 가족 친화 대상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대상 자체보다는 영아·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치와 행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미경 외, 2019). 육아친화의 가치에는 아이들을 불편한 존재가 아닌 우리 마을 또는 사회가 잘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는, 함께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한 육아 환경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의식이 포함되고,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육아친화의 개념에는 육아하는 부모의 권리와 노동할 권리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이 포함된다. 육아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이자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권리이다.

‘육아친화(도시)마을’이란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님’을 의미하며, ‘육아친화마을 조성’이란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에서의 온 마을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해당 마을이 지니는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권미경 외,

2019: 55-56). 한편 ‘육아친화마을’은 ‘공동체’의 개념이 포함된 개념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서 육아 영역을 포함하는 공동체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므로 지역사회와 정책수요자의 역할이 동시에 부각된다(권미경 외, 2019).

또한, 육아는 부모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노동을 하면서도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노동권과 부모권이 동시에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실질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권미경 외, 2019). 육아친화 개념이 보편화되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지지받는 성평등 한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가족의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은 가정의 육아를 지지하는 육아친화적 제도의 하나이며,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 빈도의 증가는 육아를 하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최지은, 김현경, 2019). 이미화·이윤진·박상신 외(2018)는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아동친화도시의 국

2. 육아친화도시 개념

□ 육아친화도시란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UN아동권리협약 근거).

○ 육아친화관련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육아(育兒, parenting)란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아이를 기르는 것, 보통 미성년자인 자식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좁게는 초등학교까지의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부터 넓게는 성인이 된 이후 취업과 자립까지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즉 육아는 개인적 자녀를 돌보는 행위에서부터 정책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강조된다.

- 친화(親和, friendly)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뜻이 맞거나 사이좋게

지냄’ 또는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 육아친화적 도시란 육아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및 제반 물리적 환경을 갖추며, 온 마을이 협력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을 말한다(권미경, 황선영, 이해민, Morita Akemi, 박지윤 외, 2019).

○ 육아친화환경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모들의 육아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육아 관련 인프라보다 생활인프라 수준이 더 크게 영향 미치며(이주림, 2014), 주택유형에 따라 부모들의 요구가 상이하고,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은 보행환경, 보차분리, 녹지, 놀이터 개선 중요하며, 아파트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제고, 어린이 도서관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이주림, 구지훈, 2013).
- 또한 육아친화환경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가장 위험한 시설을 도로로 응답하였으며, 지역의 안정성, 놀이환경 부족, 자녀와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문화적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며(권미량, 김성원, 2012), 다른 연구에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 주거 형태에서 외부환경,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크고 육아환경 개선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으며(유인창, 강부선, 박지연, 2014), 육아친화와 관련된 분야는 아동보육시설, 아동교육시설, 가족지원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천현숙 외, 2013), 육아지원과 관련된 분야로는 육아지원기관, 사교육기관, 여가공간/시설, 문화시설과 치안 측면과 안전사고 측면에서 안정성을 강조하였다(김혜금, 2012).

○ 육아친화마을(도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철학과 가치: 양육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이

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가 필요함.

- 인적 네트워크: 소통 공간은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이 갖춰져야 함.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의 질, 공간의 질, 접근성과 관련되며, 특히 보육 및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고 안전한지, 비용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접근거리, 접근방법, 차량안전성) 등이 중요함.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주거공간과의 거리, 활용도, 안전성, 다양성, 이용의 편리성 등이 중요함.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아동 외에 양육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적 콘텐츠가 필요함.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영유아(아동)의 경우 긴급사고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요소임.
-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 연령일수록 대중교통보다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가 요구됨.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주거공간 인근 소방서, 경찰서, 순찰인력, CCTV, 밤길 안전성 등이 중요함,
- 행정 서비스 인프라: 지자체의 법(조례), 예산, 공무원의 우호적 태도, 접근성, 의견 소통 창구 등이 필요함.
- 따라서 부모들의 육아환경 만족도는 생활인프라 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아친화 환경과 관련된 시설은 아동 보육/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여가공간,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거주지역 내 인프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육아친화환경에 아동의 이동거리의 안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아울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전략 개발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옹호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림 2>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그림 3> 육아친화마을 구성 요소(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p.78).

3. 육아친화(育兒親和)의 구성 요소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한 육아친화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넘어 존중과 환대가 뒷받침되어야(권미경 외, 2019).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 아이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식당 등에서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이들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는 일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시선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부모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2017)는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로 보고,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로 인해 실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에는 감소가 있고, 아이들 보육 및 교육 시설들에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추세일수록 육아친화적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 추세로 인해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출산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재출산 의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정소이 외, 2018).

둘째, 육아친화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안전하고 편리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모차 이용뿐 아니라, 아동들이 직접 사용하는 키보드, 자전거 등의 이동에도 무리가 없도록 길에 턱을 없애고, 이동이 안전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들이 노는 놀이터의 설계, 바닥의 재질 등도 안전을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육아를 하는 가정 및 육아 자체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행위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아이들의 놀이시설, 공원시

설, 공동육아가 가능한 공간 등 육아에 필요한 공간들을 고민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 친화적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육아를 하는 데 필요한 편의 시설들, 서비스 인프라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과 함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 및 의료시설, 초등학교 및 교육기관이 마련이 필수적이며, 교육환경, 놀이 및 여가환경,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미화 외, 2019). 또한, 문화체육 시설 및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립은 신체적 발달과 문화적 경험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과 연계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이윤진, 2015).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가 가능하고,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긴급하게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 등 육아에 도움이 될 시설의 고안 및 마련이 필요하다.

4. 육아친화와 유사 개념

가. 아동친화

‘아동친화’라는 개념은 성인과는 다른 아동만의 특별한 발달과 행동특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아동에게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모든 것을 말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김숙하, 2015).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아동의 행복이 인류의 거주 문제를 생각할 때 적합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니세프는 아동이 살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 NGO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의하였고 이것이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아동친화도시’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생존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에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이므로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설명하면 '아동이 건강한 삶,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으며 성장, 발달하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지자체'라 할 수 있다(하정화·박금식·손주영, 2016). 또한, NIUA(2016)는 '아동친화도시'를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선되어 아동이 역동적으로 즐겁고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라 정의하였다. 최아수(2019)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역 사회 내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의 환경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였다.

나. 여성친화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9조1항에 따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라 설명하였다.

1994년 OECD의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과 1996년 UN의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통해 여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익산시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며 여성의 삶을 고려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김포시에서 신도시개발계획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2007, 2008년에는 대구와 광교에서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 92개 시군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였다.

다. 가족친화

가족친화의 개념은 전체 가족구성원 모두를 고려한 마을환경 조성에 사용되고 있다.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는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정의

하였고(이송지 외, 2009: 24), 박소현(2006, 2007) 역시 가족구성원을 고려하여 이들을 고루 만족시키는 마을 환경이라 설명하였다. 홍승아(2007)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공간이나 공동체가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라 설명하였다. 위의 설명이 포괄된 정의로 가족친화마을에 대해 가족 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될 수 있고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마을이라 정의할 수 있다(차성란, 2010).

□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 정책

2021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친화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비용 지원, 주거 관련 지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육아친화 관련 시행계획 (자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발췌 인용.)

구 분	주요 사업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인천 아빠육아 천사(1004)단 운영 • 아이사랑 꿈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 사업 • 혁신육아 복합센터 건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 추진 •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 부모교육 인센티브제 추진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결혼·육아 U-learning 콘텐츠 대학 교과목 보급 • 3자녀이상 부모 및 자녀 도시철도 요금지원 • 작은 결혼식 비용지원 • 대구형 온종일 돌봄 시범사업 •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아빠육아 천사(1004)단 운영 • 아이사랑 꿈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 사업 • 혁신육아 복합센터 건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 추진 •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출생육아수당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구축·운영 • 출산장려 캠페인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대전형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 공공산후조리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안내 수첩 제작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 • 3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출산지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 청소년 반려문화 교육체험 활성화 • 다문화가족 부모나라 말하기 대회, 다문화가족 자녀공부방 운영 • 결혼이민자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세종특별자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나눔터 •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금 • 맘편한 산후조리지원 및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모두의 놀이터 조성 •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 미래 인구 문제 대응 및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경기 행복주택 건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인구교육 운영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 시범사업 지원, 강원형 초등돌봄 서비스 구축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공공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 지원 •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및 민간 주도 마을돌봄 육성 •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발전 시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지원 • 농어촌지역 아이돌봄센터 확대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네트워크 구축 •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숲 태교 교실운영, 임신부 안전벨트 대여 • 교복구입비 지원, 무상급식 지원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가족꿈아카데미, 신혼 예비부부 부모교육 • 주민공감 맞춤형 인구교육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양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공립유치원 확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재원체계 강화 •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지원,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 다문화(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 도민 인구 인식개선 홍보사업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부담 보육료 및 아동급식 지원 •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가족친화마을 조성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여성창업 서비스 지원, 신중년 채용 장려금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구현 사업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사업 • 직장맘자녀안심케어 지원사업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경감사업 • 경북여성일자리본부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양성평등 교육센터 설치 운영 •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 • 무주택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 중·고·특수학교 무상교복 지원,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주거복지센터 운영

5. 육아친화 명품도시 국내외 사례

육아친화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와 함께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육아친화 명품도시의 ahepg을 제시함과 동시에 운영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가. 육아친화 관련 국내 사례

1) 전북 완주 ‘로컬에듀’ 사업

- 완주군에서는 공동육아 모임 순가락, 고산청소년센터 고래 등의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양육, 교육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순가락 공동체
 - 전북 완주는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로컬에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중 공동육아모임인 ‘순가락’은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 돌봄 모임으로 육아친화를 실천하는 대표 사례임.
 - 공동육아모임 ‘순가락’은 2014년에 결성돼 현재 13가구, 총 18명의 아이들이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에 공간을 마련해 공동육아를 진행함. 현재는 고산, 봉동, 동상, 운주 지역에서도 참여함으로써 지역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완주군의 공동육아모임 순가락에서는 학부모들이 야외활동, 식사, 간식 준비 등을 당번을 정해 실행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학습과 탐구를 추구하고 있음.

<표 13> 순가락 공동체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귀농한 부부들이 함께 모여 공동육아를 실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2-5세) 참여 • 교사1인, 부모교사 1인으로 구성 • 연회비 100만원, 월회비 4만원(완주군에서 교사 인건비 일부 지원) • 공동육아는 3개의 공동체1) 가 모여 공동 공간을 사용함.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오후 3시

□ 그 밖의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정책

- 그 밖에 ‘고산청소년센터’ 고래를 통해 청소년들이 방과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함. 100평 양곡창고를 개조해 설립되었으며 중고등학생 4~50명이 참여하고 있음.
- ‘고산향’ 교육공동체 모임인 고래 아카데미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여행 인문학 공부와 해외 탐방 기회, 체험학습을 실행하고 있음.

2) 제주형 수놓음 육아 돌봄 정책

-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음.
- 수놓음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자 부모 및 아이들이 돌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임.
-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도내 사회복지관이나 마을회관, 아파트 등 유휴 공간을 나눔터로 조성해 공동육아팀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며 있는 양육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표 14>수놓음육아나눔터 사업내용

구분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단계별 돌봄 서비스 공백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공동체 돌봄 확산을 통해 극복하고자 추진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놓음 육아 돌봄 정책은 1) 나눔터 조성 2) 돌봄공동체 3) 지원체계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마을에서 공간을 제공함. • 제주도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및 월 50만원 운영비 제공 • 운영방식 따라 주민자치형, 직장형, 기관지원형, 농촌거점형 등으로 운영함. • 제주가족친화센터가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함.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오후 3시

3)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사업

- 마포구 성미산 주변 일대는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으로, 도시 안에서 ‘이웃, 고향,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를 실현하면서 살기위한 활동들이 10여 년 동안 전개됨.
- 먹거리, 육아, 교육 등 다양한 생활 문제에서 출발하여 마을 축제를 통해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현재진행형 사례로, 1994년에 국내 최초로 공동육아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음.
- 2003년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성공 이후, ‘성미산 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성미산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으로 공동체가 성숙 단계에 이룸.
-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은 교육과 마을기업, 마을문화 활동 등으로 구분됨.
- 공동관심사였던 육아 및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방과후 교실·배움터를 통한 교육 및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됨.

<표 15 >성미산 마을공동체 중 육아 및 교육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공동육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형태의 보육시설로 이해당사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출자금으로 운영함. • 보육은 교사회, 운영은 조합 이사회가 운영
방과후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부의 초등 저학년 자녀 대상 숙제, 야외활동, 특별활동 지원
성미산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통합 12년제로 운영 • 2004년 개교한 대안학교
마을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공립초등학생과 성미산 학생이 함께 참여함.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

- 인천광역시는 2013년 12월부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교육과 학습, 마을활동가 양성 및 교육, 교류와 협력, 홍보,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17년부터는 마을공동체조성지원을 위해 시청에 ‘지역공동체 담당관’을 신설하고 3개의 팀으로 세분화하여 마을 공동체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약 680여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육아친화 관련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주요 사업은 안전환경 조성, 공동 육아 및 돌봄공동체 운영, 자녀와 부모 도서 공간 등 돌봄에 대해 마을 전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표 16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 중 육아친화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안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아이들이 안전마을 서포터즈 활동, 안전한 통학로 조사활동, ‘2014 안전 허브 인천’ 사업을 통해 마을의 외형적 문제 해결책 모색 • 다살림레츠: 초등학생 급식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급식 안전교실, 녹색마당 • 안전마을 환경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놀이터의 흙을 뒤집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시작 • 우당탕탕 푸른샘 해결단: 아이들의 생각을 모아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 • 송월동 37번길 주민모임: 차가 뽕뽕 달리는 길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
공동육아 및 돌봄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초등 방과후사업, 해남공부방, 함께하는 자녀돌봄협회 등
자녀와 부모 위한 도서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도서관 운영 및 책다숨(독서활동 지원) 운영
방과후 돌봄 제공 및 교육 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신나는 교실, 교육공동체 고리, 진강산 마을교육공동체, 청라 푸르시오 품앗이 마을학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의 장 마련: 육아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 생활나눔: 물품 공동구매, 물품 품앗이 등 • 문화공동체 운영: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 • 풍성한 마을: 마을과 어린이지 연계 지원순환교육

나. 육아친화관련 해외 사례

1)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의 육아친화도시 전략

도입 배경

- 대도시 인근 도농복합지역인 일본 나가레야마시는 ‘육아를 위해서는 나가레야마시로!’라는 슬로건으로 육아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홍보 및 육아친화 정책을 활성화함.

보육정책 및 일시적 보육

- 육아친화도시로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사후조리 시기에 보건사가 가정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Hello Baby!’ 프로그램으로 0~6개월 사이 영유아 가구 대상 가정방문, 3세 발달검사 등을 시행함.
- 보육소 증가와 양질의 보육사 확보를 위한 학자금대출 및 주택임대수당 혜택 마련
- 어린이집의 셔틀 미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통해 보육스태이션을 운영. 오전 7-8시에 부모가 아이들을 보육스태이션에 맡기면, 일시보육을 담당하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서비스임.

2) 토토리현의 0·1·2·3 육아광장

도입 배경

- 도농복합지역으로 산지가 많은 지역임. 2010년 육아왕국 토토리 정책을 추진한 후 합계출산율이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음.

육아정책 및 육아광장

-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전과정에 대한 연속적 지원을 목표로 함. 불임치료비 지원,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재택육아가구 지원뿐만 아니라, 토토리현 유아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방과후 아동클

럽, 환아 보육 강화 등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육아지원 정책이 활발함.

- 0123 육아광장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토요일 포함 주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방문해 놀이를 하고 놀잇감을 이용할 수 있는 육아공간임. 부모 간 정보교환, 자유로운 부모-유아 놀이, 상근교사와의 상담 및 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육아 공동체 공간을 마련함.

3) 시마네현 오난정과 오카야마현 나기정

□ 도입 배경

- 결혼과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와 젊은 부부를 위해, '육아하기 좋은 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함.

□ 시마네현 오난정

- 2060년까지 '만인의 마을'을 목표로 '가족과 살고 싶은 마을'을 추진함. 매년 '출생아 80명'을 목표로, 마을이 아이를 키워준다는 인식하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생활환경, 의료, 복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핀란드의 출산육아상담소 '네우보라'를 벤치마킹한 '육아세대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임신, 출산, 육아의 연속 지원체계를 갖추.

□ 오키나마현 나기정

- 나기정의 육아지원정책은 경제적 육아지원과 사회적 육아지원으로 나뉨. 자녀의 성장주기에 맞춘 비용지원(보육료와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취합지원 등에 2018년 기준 1억 4천만엔을 투자하고 있음.
- 또한 아이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키우기 위해, 육아지원센터 '나기 차일드홈'의 모임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며, 상주하는 육아상담원이 상담과 도움을 줌.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만드는 공동육아 장소가 됨.

다. 호주 Wagga Wagga 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사례

□ 도입 배경

- 호주 Wagga Wagga에서는 “지역의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이며 기회와 선택, 학습과 환경에 있어서 항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를 지역사회 비전으로 설정함(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
-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명된 지방정부의 목표가 최우선시되며, 지방 행정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가 이를 공유하고 관련 협력단체들 또한 이 계획의 이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2).
- 특히 가족중심 지역의 비전을 위한 전략으로 「Ruby and Oliver, Our Future, Our Community」 프로그램을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함.

□ 지역사회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Ruby and Oliver

- Ruby와 Olive는 2011년 Wagga Wagga에서 가장 많은 여아와 남아의 이름이며, 이는 앞으로 이들이 지역의 학교로 가며, 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갈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해진 이름임(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2).

- Ruby and Oliver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지역사회와 연계 및 참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일부 분이라고 느끼며 서로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듦. 이를 위하여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협의회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 등 지역사회에 참여를 기본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감(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3-5). 지속적인 관계성과

기본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Ruby와 Oliver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비전을 만들어 지역사회 멤버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실천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또한 분기말에 작성되는 보고서를 통해 목표의 진행현황을 지역사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치안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율 감소와 만족감을 증가하도록 함. 또한 가정폭력 감소, 알코올 관련 범죄, 개인범죄, 부동산 범죄 등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8-13).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빠른 대처를 위한 협의회의 형성, 지역사회의 보호구역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킴(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6-8).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비만, 흡연, 알코올 등의 감소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의 큰 목표임(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 (3) 성장하는 경제 사회: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기회가 있으며, 성장 가능하게 하는 경제는 지역사회의 모든 측면에 유익함. 이러한 것이 Wagga Wagga에서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구체적으로는 실업률감소, 원주민 비원주민 사이의 고용 격차감소, 15-24세 청년층의 고용과 학습증가 그리고 55세 이상의 고용 증가와 직업수의 증가 등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1-13). 또한 가구 수입의 30%, 그 이상을 주택 대출금 혹은 임대비용으로 내는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가정의 수 감소, 정부 수급자의 감소 등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 또한 큰 목표로 하고 있음(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9-11).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전문기술 및 학력증진 또한 지역사회의 목표이며, 대학학위, 전문기술(Advance diploma)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함.
- (4)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구축: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실천계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호주 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12-14). 이를 위해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산화탄소, 쓰레기, 에너지소비 감소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함. 지역사회 만족도 상승과 지역전체의 도시정비와 토지계획을 통해 다음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Wagga Wagga City Council, 2013).

라. 싱가포르의 가족친화 정책

-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조금 지원
 - ECDA(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에 승인받은 보육기관에 자녀를 등록한 모든 싱가포르 부모는 기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월소득이 \$7,500 이하인 가정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육기관 증설
 - 2015년부터 사회가족개발부(the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는 싱가포르 전역에 17,000 개소의 보육기관을 증설함. 이는 아동 2명당 1명꼴로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신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보육 기회 확대
 - 신도시 중심으로 아동 300명에서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보육서비스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지원금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자금의 80%는 아동보육 및 의료비 지원에 사용됨. 사회가족개발부는 가구소득에 따라 0세~6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1명당 \$300~\$500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는 공적지원, 보육 보조금, 의료비 지원금 등 단 한 가지의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음.

□ 사내 가족친화 문화 조성

- 성별을 떠나 탄력근무, 육아 휴직 등 직원이 자유롭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음.
- 노동조합 또한 직원들이 육아 관련 도움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사내 모유친화(breastfeeding-friendly)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유 지지 단체’에서 사내 모유 멘토 프로그램을 개발함.

6. 스마트시티(Smart city)리빙랩(Living Lab)국내외 사례

가. 국내 사례

□ 세종시 시민참여형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임현석, 2019)

- 신도시형 스마트시티 개발 시 시민주도 방식의 스마트서비스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건설 모델의 발굴 차원에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하여 추진
- 세종시 생활권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민간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청, 세종시, 전문가자문단이 함께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굴하고 기술적 대안 모색
 - 사전분석,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리빙랩,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리빙랩, 서비스 검증을 위한 리빙랩 등의 진행 절차를 거침.
 - 사전분석 단계에서는 인구현황 분석에 기반 한 페르소나 분석, 시민 의견 조사, 관계계획 검토, 빅데이터 분석(포털사이트 블로그, 뉴스, 세종시 민원데이터, 똑똑 세종 아이디어 제안 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드, 사회연결망 분석 실시) 등을 활용

-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진행된 시민단과의 워크숍에서는 지도를 기반으로 한 시민 경험 공유(공감지도), 지역이슈 구체화,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 결과물에 맞는 유사 서비스 검토, 가상상황 시나리오에 기반 한 필요기능 도출 등의 활동 진행
- * 시민참여단과의 워크숍 과정에서 도출된 육아관련 서비스는 수요는 아이들의 생활안전 확보, 아이들 및 노약자의 건강을 위한 주거 지역 단위의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임
- *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여 시민이 제안한 서비스 및 기능의 구현 가능성 및 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전문 기술업체에 기술개발 및 적용 방안을 공모

□ 고양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추진

1) 초등학생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행로 IoT 실증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고양시는 ICT/Io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리빙랩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노력을 경주 중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주도로 산학연관 리빙랩 협의체를 운영하여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 도시재생 지역에 위치한 고양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사고 빈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 주변도로 대상지 분석 등 계량적 접근법, 학부모 간담회 등 정성적 수요조사, 기관간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마트시설물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도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 리빙랩의 대상지역, 문제, 대상 등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 사업제안

단계에서 정성적 수요조사, 지역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후보군 도출시 보행환경,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과속현황의 계량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결과를 리빙랩 운영시 관계자 소통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나. 해외 사례

□ Amsterdam Smart City(ASC) 협의체

- 민관협력 파트너십 및 국제적 커뮤니티 그룹에 기반 한 협의체로 암스테르담 대도시 지역의
 -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사회, 경제, 생태적 문제, 특히 에너지, 디지털 도시, 순환 도시(Circular City), 모빌리티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관련 리빙랩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암스테르담시,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암스테르담 응용과학대학, alliander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기관들과 6,800명이 넘는 개인 혁신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
 - ASC에서 지원하는 개별 리빙랩 프로젝트는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조영태·오명택, 2019)
 - ASC의 지원 하에 디지털 도시,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 도시, 거버넌스 및 교육, 시민 생활의 6개 주제로 분류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리빙랩 프로젝트가 진행 중
 - ASC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제품을 소개하고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

□ 일본 도쿄 리빙랩 프로젝트

- 국립신생과학혁신박물관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과 제조업체들의 ‘자급자족적 혁신’에 필요한 근본기술을 구축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모색(조영태·오명택, 2019)

- 소비자 일상 생활에 녹여들 수 있는 컴퓨팅 솔루션 구현 및 이들 장치와 솔루션에서 수집된 빅데이터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된 실험적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이 곳 방문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센서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리빙랩 운영(조영태·오명택, 2019)
 -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험 및 평가뿐만 아니라 방문자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기술 개선
 - 리빙랩의 구체적 내용은 추가 조사 필요, 공공주도형/연구기관주도형/건물단위/주거 단지 등 수요 구체화 및 커뮤니티 조직화·참여 전략 형+테스트베드 및 실증사업형/수요탐색형+리빙랩 플랫폼 구축형 마련함.

IV. 연구방법

1. 연구 과업 내용 및 방법

1.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 수집, 분석
2. 육아친화 명품도시 기본 가치와 방향 설정
3. 국내의 육아친화 사례 조사 분석
4. 시범사업 도시 및 마을 육아친화 명품도시 인프라 환경 평가
5. 육아친화 명품도시 모델 및 기초 설계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 수집·분석

- 육아친화 명품 도시 개념 및 발전 동향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육아친화 명품 도시 추구 방향 도출

육아친화 중점 명품 도시의 기본 가치와 방향 설정

- 국내 범학문적 전문가와의 명품 도시 진행 및 운영 과정을 통해, 육아친화적인 명품 도시에 대한 주요 의제 발굴 및 육아친화 명품 도시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 도출

국내·외 육아친화 명품 도시 사례 조사·분석

- 육아친화 명품 도시 사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육아친화 명품 도시 사례 조사
 - 해외의 육아친화 명품 도시 사례 프로젝트 조사

육아친화 명품 도시 시범사업 도시를 대상으로 한 육아관련 인프라 환경평가

- 육아친화 명품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육아인프라 공급 및 접근가능성 실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육아친화 명품 도시 시사점 및 제언 도출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환경 욕구조사

- FGI 초점질문, 설문조사 및 타운홀 미팅을 통해,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진단하고자 함

-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의 모델 및 기초 설계
 - 예산군의 육아정책 분석을 통한 예산군 맞춤형 육아친화 명품 도시 만들기 설계 및 모델 제시
 -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인 육아 친화 정책 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 육아 친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구방법
 - ▶ 기존 사례 및 문헌 검토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기초자료 수집
 - ▶ 현행 정책 및 법규, 전달체계 등 특징 분석
 - ▶ 시민 의견 수렴(FGI)
 - ▶ 토론회, 전문가 자문, 워킹그룹 회의
- 연구 추진 사항(사진 참조)
 - ◎ 예산군의회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발족



◎ 예산군의회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착수보고회



◎ 예산군의회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FGI 면담



◎ 예산군의회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중간보고회



◎ 예산군의회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최종보고회



2. 육아친화도시 연구범위

□ 과업 범위

-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예산군
- ▶ 대상적 범위
 - 육아 세대(결혼, 육아 중인 주부), 19세 ~ 34세(청년기본법 대상)
 - 잠재적 육아 세대(미혼, 결혼 적령기), 19세 ~ 34세(청년기본법 대상)
 - 육아관련 관계자(주부, 시설/기관)
- ▶ 시간적 범위
 - 정책검토 범위 : 2019년 01월 ~ 2024년 12월(5년)
 - 대상에 따른 시간적 범위 : 2024년 현재
- ▶ 내용적 범위
 - 육아 현황 및 시대적 전망 및 분석
 - 국가 및 지자체 저출생 정책 및 법규 등 검토, 분석
 - 예산군 육아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 실태 분석
 - 육아 친화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정책 개선방안 및 제안

3. 예산군 요구 내용 반영

□ 과업의 방향 및 내용

- 육아 친화 환경 조성의 이론적 배경 분석
 - 지역 현황 분석 : 육아 관련 현황, 교육인프라, 주거, 복지 등
 - 육아 친화 관련 정책 필요성
 - 육아 현황 및 시대적 전망 및 분석
 -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공동육아 인프라 구축 방향
- 정책 실태 분석
 - 관련 정책 및 법규 등 검토
 -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육아 관련 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분석

- 부서별, 분야별 분류를 통한 예산군 육아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타 지자체 및 해외 우수 사례 비교 분석
- FGI를 통한 군민 의견수렴
- 예산군 육아 관련 정책 기본방향 제시
 - 비전 및 목표 제시
 - 육아 관련 예산군 발전 전략 제시
 - SDG, ESG 등 육아 관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 소요 예산 및 연차별 투자 계획 제시
- 발전 전략에 따른 사업 및 정책 제시
 - 국가, 예산군, 예산군의회 등의 역할 및 방향 제시
 - 예산군 맞춤형 육아 관련 연계 정책 사업 제시
 - 육아 친화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정책 개선 구축 방안 제시
 -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4. 관련 국내·외 사례

- 아동 삶의 질과 거주환경(집, 마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 아동 삶의 질 지수(Child Well-Being Index)
- 아이와 양육자는 대부분 도시에 거주(도시아이들의 경험과 농산어촌 아이들의 경험에서의 차이?)
- 농촌 마을 육아환경은 출산기피와 아이성장에 영향
- 거주환경은 아이의 경험, 발달과도 관련
- UNICEF(2018)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다섯가지 목표
- 일본 사례
- 토토리현의 육아광장, 시네마현의 오난정, 오키나마현의 나기정

- 호주사례
- Wagga Wagga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사례
-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5. 예산군 현황 SWOT 분석

- 현황과 여건을 종합하여 SWOT분석을 통해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 도시 모델 제시
-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 도시 기본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제안을 제안

<표 17>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 도시를 위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SWOT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제공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운영 중 • 보건소 신축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여성친화도시 중기 계획 수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 중 32.9%를 차지하는 고령인구(2021년 기준) • 공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 부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 발생
기회(Opportunities)	SW전략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 인증 등 보건에 관한 관심도 및 정책적 중요도 증대- 아동친화도시 등 공적 돌봄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계층에 특화된 건강 증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와 의료) 및 운영을 통해 만족도 제공
위협(Threats)	ST전략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중- 코로나19 등과 같이 국제적 전염병 등의 발병 가능성 증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지역 성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 및 고령화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 추진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 및 광역적 보건 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6. 예산군 지역주민 설문 구성

1) 지역주민 설문조사

- 본 설문조사는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육아 친화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예산군 육아 친화 명품도시 만들기에 반영하고자 함
- 지역주민 설문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민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요조사를 시행함

2)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 표본은 2024년 10월 00일 예산군 군, 읍, 면 인구비례하여 할당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함- 총 설문 배포 부수는 600부임.
- 조사내용은 예산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예산군민의 육아 친화 명품도시 실현에 대한 의식, 발전계획, 모델상에 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분석

4) FGI 및 타운홀 미팅 결과 분석

V. 연구결과

1. 예산군 설문 기초자료에 관한 내용

<p>1) 성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 여성이 300명(59.1%), 남성이 208명(40.9%)
<p>2) 나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39.89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38.65세, 남성의 평균 연령은 41.69세- 거주지별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신양면이 62.25세로 가장 높았고 삽교읍이 36.50세로 가장 낮았음
<p>3) 자녀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자녀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자녀'가 39.4%(200명)로 가장 많았고 '1자녀'가 26.0%(132명)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도 23%(117명)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p>4) 거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참여자의 거주지: 예산읍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8.1%(143명)로 가장 많았고 대술면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2%(6명)로 가장 적었음
<p>5)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2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체 응답자의 29.7%(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2. 영유아 양육 현황에 대한 질문

가.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곳

-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곳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에게 맡기고 있다고 응답함.

나.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사람

-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2%(128명)로 가장 많았고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1%(26명)로 가장 적었음

다.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변에 자녀 양육을 분담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6%(140명)로 가장 많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양육(자녀와의 관계 등)이 어렵게 느껴짐’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0.8%(4명)로 가장 적었음

라.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에 살게 된 이유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게 된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3%(269명)로 가장 많은 반면 ‘편의시설(쇼핑몰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0.8%(4명)로 가장 적었음
- 거주지별 응답 분포를 확인한 결과 12개 지역 모두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추가적으로 신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동등하게 높았고, 대흥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조부모님 덕과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높았음

마.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43.7%(222명)로

가장 높았음

바. [①매우 좋은 환경임, ②비교적 좋은 환경임을 선택한 응답자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현재 거주하는 양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1.0%가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 반면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와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친절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로 가장 낮았음

사. [③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과 ④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을 선택한 응답자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3%(60명)가 ‘범죄발생이 높거나 유해환경이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불편해서’가 21.0%(39명)으로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3.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분석

<표 18 > 설문조사 결과 요약 분석

구분	주요 내용
1. 저출생 및 육아친화와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 저출생의 심각성, 정주환경의 적절성, 거주지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정도, 거주지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이 요구됨• 예산군의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생 및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2. 육아에 대한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분위기,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 요구 광시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가장 높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체험활동 시설 확보, 놀이터 이용 편리성, 도서관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요구 수준 높음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과 '쇼핑센터 및 시장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 편리성', '병원 의료인 수 적절성', '병원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다소 떨어짐.
4.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모차(휠체어)이동 편리성'과 '자전거 이동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통학로/보행로의 안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운전자의 우호성', '놀이터, 공원의 안전성', '야간 안전성', '경찰의 순찰 정도', '유해시설 부재', '환경의 쾌적함 정도', '육아관련 소통의 장 조성 정도' 요구함
5. 인적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존재 정도', '육아 지원 공동체 활동 정도', '온라인 소통방 정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아이와 함께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정도' 요구함
6. 공원/녹지 공간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거주지별 공원/녹지에 인프라 만족에 대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7. 여가/문화 서비스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료에 대한 만족'과 '여가/문화 공간 확보 정도', '이용 안전성 및 편리성',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면적 확보 정도',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확보', '체험 활동 공간 확보' 및 '아이 및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 태도' 모두에서 '보통 수준 확인.
8. 교통/보행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확보 정도',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 및 편리성', '유모차(휠체어) 이동 편리성', '운전자들의 우호적인 태도' 모두에 대해 보통 수준 답함
9.)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관련된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확보'와 '경찰서 확보', '경찰 순찰 정도', 'CCTV 확보' 및 '야간 안전성' 모두에 대해 보통 수준 인식
10. 행정 서비스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 존재'와 '예산 확보 정도', '행정 서비스 제공 인력의 우호적인 태도', '충분한 정보 제공', '정보 접근 용이성', '의견 개진 창구 확보 정도'에서 보통 수준의 만족도 보임
11. 보건 의료 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아동) 치료를 위한 응급실 확보 정도', '병의원 이동 경로의 안전성 및 편리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 '병원 내 편리

스 인프라	<p>한 공간 확보 정도' 에서 '보통의 응답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아동 병원 확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 양육 관련 12개 영역 의견 전체에 대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관련 전체 12개 영역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 아이를 기르는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학, 가치, 태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13. 거주지별로 비교해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읍은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여가/문화 서비스', '교통/보행 네트워크', '치안/안전 서비스', '행정 서비스' 6개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광시면은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아이를 기르기에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 '물리적 환경', '공원/녹지 공간'의 4개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대흥면은 '보육(교육)기관 인프라' 와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2개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나. 설문조사 의견 요약

1) 저출생 및 육아친화와 관련된 주제

-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저출생의 심각성'과 '거주지가 20~30대 젊은 세대 정주환경의 적절성', '예산군의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정도', '거주지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정도', '결혼에 대한 의견', '출산에 대한 의견', '거주지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규모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163명(32.1%)로 가장 높았음
- '예산군의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35.6%(181명)와 23.0%(117명)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 9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의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아 저출생

및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2) 자녀를 기르기에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자녀를 기르는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과 가치 및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분위기’와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각 영역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현재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양성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23명(43.9%)으로 나타났음
-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도시를 위한 철학, 가치, 태도의 전체 6개 문항에 대한 지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3.92점으로 가장 높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주제

-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편리성’과 ‘공원/녹지 공간의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체험활동 시설 확보 정도’, ‘놀이터 이용 편리성’, ‘도서관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과 ‘쇼핑센터 및 시장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 편리성’, ‘병원 의료인 수 적절성’, ‘병원 이용 편

리성’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다음 순으로 나타나 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별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3.30으로 가장 높았음

5)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주제

- 물리적 환경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유모차(휠체어)이동 편
리성’과 ‘자전거 이동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통학로/보행로
의 안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운전자의 우호성’, ‘놀
이터, 공원의 안전성’, ‘야간 안전성’, ‘경찰의 순찰 정도’, ‘유해시설 부
재’, ‘환경의 쾌적함 정도’, ‘육아 관련 소통의 장 조성 정도’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 물리적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전체 평균을 거주지 별로 비교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6) 인적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

-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존재 정도’, ‘육아 지원 공동체 활동 정도’, ‘온라인
소통방 정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아이와 함께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정도’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러나 ‘아이와 함께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정도’외에 나
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보통이
다 다음 순으로 높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거주지별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음

7) 공원/녹지 공간 관련된 주제

-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0개 문항 전체에 대

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다’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에 높은 순으로 응답하여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거주지별 공원/녹지에 인프라 만족에 대한 전체 평균 비교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3.58로 가장 높아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8) 여가/문화 서비스 관련된 주제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이용료에 대한 만족’과 ‘여가/문화 공간 확보 정도’, ‘이용 안전성 및 편리성’,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면적 확보 정도’,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확보’, ‘체험 활동 공간 확보’ 및 ‘아이 및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 태도’ 모두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아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확보’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나, 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별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3.41로 가장 높아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9) 교통/보행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

- 교통/보행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확보 정도’,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 및 편리성’, ‘유모차(휠체어) 이동 편리성’, ‘운전자들의 우호적인 태도’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아 교통/보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됨
- 거주지별 교통/보행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 평균이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관련된 주제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확보’와 ‘경찰서 확보’, ‘경찰 순찰 정도’, ‘CCTV 확보’ 및 ‘야간 안전성’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가 그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안/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치안/안전 서비스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이 3.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행정 서비스 인프라

- 행정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 존재’와 ‘예산 확보 정도’, ‘행정 서비스 제공 인력의 우호적인 태도’, ‘충분한 정보 제공’, ‘정보 접근 용이성’, ‘의견 개선 창구 확보 정도’ 모두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의견 개선 창구 확보 정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가 보통이다 다음으로 높아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의견 개선 창구 확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가 24.2%(123명), ‘전혀 그렇지 않다’에도 20.7%(105명)이 응답하여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의견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행정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이 3.3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12)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유아(아동) 치료를 위한 응급실 확보 정도’, ‘병의원 이동 경로의 안전성 및 편리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 ‘병원 내 편리한 공간 확보 정도’ 모두에

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응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바로 그 다음 순으로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아동 병원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들이 31.3%(159명),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들이 30.3%(154명)으로 높게 나타나 아동 전문 병원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흥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뉘었음

13) 양육 관련 12개 영역 의견 전체에 대한 비교

- 양육관련 전체 12개 영역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 아이를 기르는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학, 가치, 태도에 대한 인식이 3.7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2.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거주지별로 비교해 보면

- 예산읍은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여가/문화 서비스’, ‘교통/보행 네트워크’, ‘치안/안전 서비스’, ‘행정 서비스’ 6개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광시면은 ‘저출산 및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아이를 기르기에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 ‘물리적 환경’, ‘공원/녹지 공간’의 4개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대흥면은 ‘보육(교육)기관 인프라’ 와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2개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표 19> 거주지별 12개 양육 관련 영역에 대한 만족도 비교표

12개 양육 관련 영역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양면	오가면
저출생 및 육아친화			▽		▲							
철학, 가치, 태도			▽		▲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	▽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						▽			▽		
물리적 환경					▲				▽			
인적 네트워크	▲								▽			
공원/녹지 공간					▲				▽			
여가/문화 서비스	▲									▽		
교통/보행 네트워크	▲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								▽	▽		
행정 서비스 인프라	▲		▽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			▽			

▲ :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 ▽: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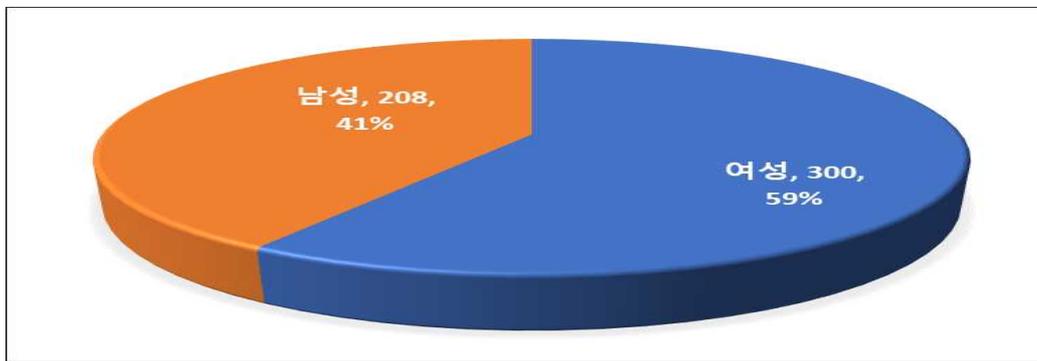
4. 예산군 설문 기초자료 분석 내용

가. 성별

-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300명(59.1%), 남성이 208명(40.9%)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였음

<표 20> . 설문참여자의 성별

성별	N	%
여성	300	59.1%
남성	208	40.9%



<그림 4>. 설문참여자의 성별 분포

나. 나이

-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39.89세(SD=10.44)였으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8.65세(SD=10.69)였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41.69세(SD=9.83)로 남성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양면이 62.25세(SD=8.17)로 가장 높았고 삼교읍이 36.50(SD=8.38)세로 가장 낮았음

<표 21> . 거주지 별 설문참여자의 평균 연령

거주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예산읍	143	20	63	38.50	10.00
삽교읍	127	20	60	36.50	8.38
대술면	6	24	70	43.67	15.07
신양면	12	49	74	62.25	8.17
광시면	39	26	60	38.77	8.88
대흥면	8	30	63	45.38	11.61
응봉면	38	29	73	42.61	9.72
덕산면	16	29	71	42.81	10.09
봉산면	32	29	53	40.69	6.34
고덕면	16	30	62	40.00	8.15
신암면	27	28	72	48.67	13.45
오가면	37	23	57	38.30	9.45
무응답	6	25	50	37.17	8.84



<그림 5> . 거주지별 설문참여자의 평균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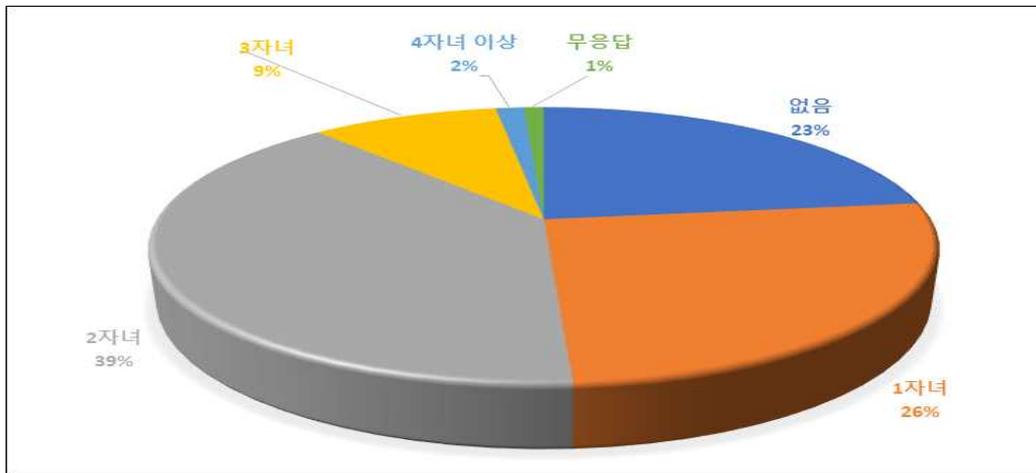
다. 자녀 수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자녀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자녀’가 39.4%(200명)로 가장 많았고 ‘1자녀’가 26.0%(132명)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도 23%(117명)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거주지별 자녀 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예산읍과 봉산면, 삽교읍, 대

<표 22 >. 설문참여자의 자녀 수 분포

자녀 수	N	%
없음	117	23.0%
1자녀	132	26.0%
2자녀	200	39.4%
3자녀	47	9.3%
4자녀 이상	7	1.4%
무응답	5	1.0%

흥면, 고덕면, 흥봉면, 신양면, 신암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2자녀’를 두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광시면과 오가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녀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대술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자녀 없음’과 ‘4자녀 이상’이 가장 높았음. 마지막으로 덕산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자녀 없음’과 ‘3자녀’를 두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그림 6> . 설문참여자의 자녀 수 분포

<표 23> . 설문참여자의 거주지별 자녀 수 분포

거주지	자녀수	빈도	%	거주지	자녀수	빈도	%	거주지	자녀수	빈도	%
예산읍	없음	32	22.4%	광시면	없음	16	41.0%	봉산면	없음	2	6.3%
	1자녀	46	32.2%		1자녀	9	23.1%		1자녀	10	31.3%
	2자녀	59	41.3%		2자녀	12	30.8%		2자녀	17	53.1%
	3자녀	6	4.2%		3자녀	2	5.1%		3자녀	2	6.3%
	4자녀 이상	0	0.0%		4자녀 이상	0	0.0%		4자녀 이상	0	0.0%
	무응답	0	0.0%		무응답	0	0.0%		무응답	1	3.1%
합	없음	35	27.6%	대	없음	1	12.5%	고	없음	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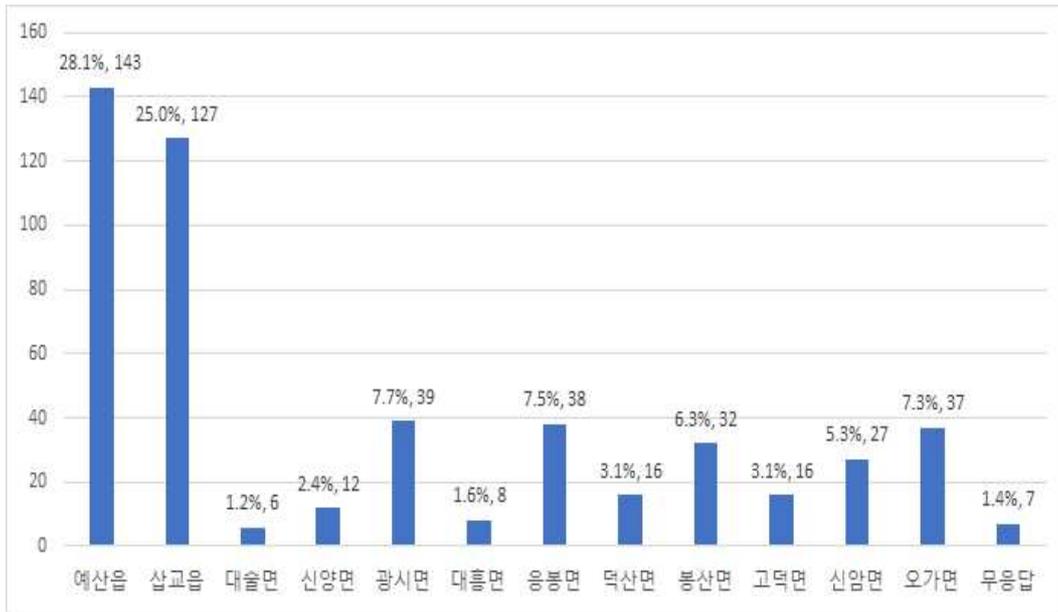
교읍	1자녀	36	28.3%	흥면	1자녀	1	12.5%	덕면	1자녀	4	25.0%
	2자녀	44	34.6%		2자녀	4	50.0%		2자녀	6	37.5%
	3자녀	8	6.3%		3자녀	1	12.5%		3자녀	4	25.0%
	4자녀 이상	1	0.8%		4자녀 이상	1	12.5%		4자녀 이상	0	0.0%
	무응답	3	2.4%		무응답	0	0.0%		무응답	0	0.0%
대술면	없음	2	33.3%	응봉면	없음	0	0.0%	신암면	없음	4	14.8%
	1자녀	1	16.7%		1자녀	11	28.9%		1자녀	4	14.8%
	2자녀	1	16.7%		2자녀	21	55.3%		2자녀	14	51.9%
	3자녀	0	0.0%		3자녀	6	15.8%		3자녀	3	11.1%
	4자녀 이상	2	33.3%		4자녀 이상	0	0.0%		4자녀 이상	1	3.7%
무응답	0	0.0%	무응답	0	0.0%	무응답	1	3.7%			
신양면	없음	0	0.0%	덕산면	없음	5	31.3%	오가면	없음	16	43.2%
	1자녀	0	0.0%		1자녀	2	12.5%		1자녀	4	10.8%
	2자녀	6	50.0%		2자녀	4	25.0%		2자녀	11	29.7%
	3자녀	4	33.3%		3자녀	5	31.3%		3자녀	6	16.2%
	4자녀 이상	2	16.7%		4자녀 이상	0	0.0%		4자녀 이상	0	0.0%
무응답	0	0.0%	무응답	0	0.0%	무응답	0	0.0%			

라. 거주지

- 조사 참여자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8.1%(143명)로 가장 많았고 대술면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2%(6명)로 가장 적었음

<표 24> . 설문참여자의 거주지 분포

거주지	빈도	백분율	거주지	빈도	백분율	거주지	빈도	백분율
예산읍	143	28.1%	광시면	39	7.7%	봉산면	32	6.3%
삽교읍	127	25.0%	대흥면	8	1.6%	고덕면	16	3.1%
대술면	6	1.2%	응봉면	38	7.5%	신암면	27	5.3%
신양면	12	2.4%	덕산면	16	3.1%	오가면	37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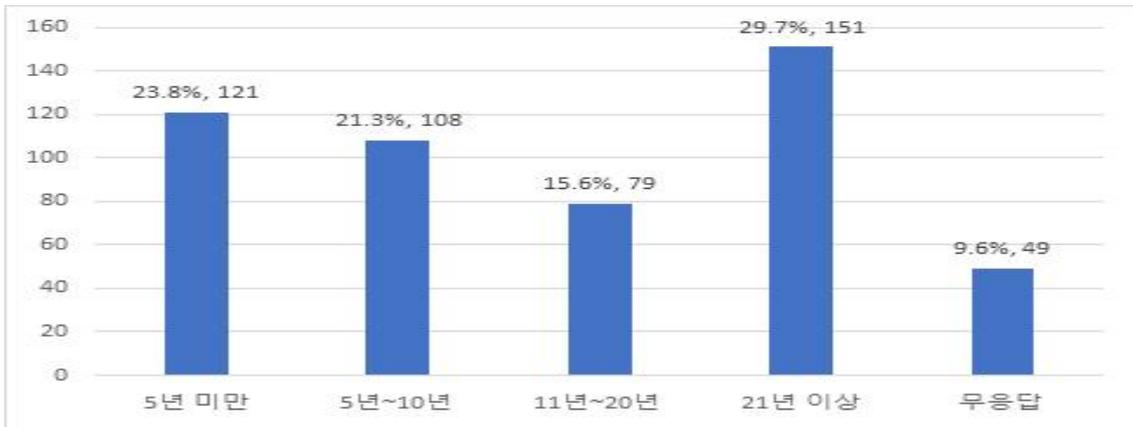
<그림 7 > 설문참여자의 거주지 분포

마. 거주기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2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전체 응답자의 29.7%(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이 23.8%(121명)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거주기간을 확인한 결과 예산읍과 대술면, 신양면, 덕산면, 신암면 및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2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삽교읍과 응봉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년 미만’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년 미만’, ‘11년~20년’, ‘21년 이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고덕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년 미만’과 ‘5년~10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표 25> 설문참여자의 거주기간 분포

거주기간	N	%
5년 미만	121	23.8%
5년~10년	108	21.3%
11년~20년	79	15.6%
21년 이상	151	29.7%
무응답	49	9.6%



<그림 8> 설문참여자의 거주기간 분포

<표 26 > 설문참여자의 거주지별 자녀 수 분포

거주지	거주기간	빈도	%	거주지	거주기간	빈도	%	거주지	거주기간	빈도	%
예산읍	5년 미만	20	14.0%	광시면	5년 미만	9	23.1%	봉산면	5년 미만	6	18.8%
	5년~10년	17	11.9%		5년~10년	6	15.4%		5년~10년	14	43.8%
	11년~20년	34	23.8%		11년~20년	9	23.1%		11년~20년	6	18.8%
	21년 이상	63	44.1%		21년 이상	9	23.1%		21년 이상	6	18.8%
	무응답	9	6.3%		무응답	6	15.4%		무응답	0	0.0%
삽교읍	5년 미만	45	35.4%	대흥면	5년 미만	0	0.0%	고덕면	5년 미만	5	31.3%
	5년~10년	33	26.0%		5년~10년	4	50.0%		5년~10년	5	31.3%
	11년~20년	9	7.1%		11년~20년	3	37.5%		11년~20년	0	0.0%
	21년 이상	14	11.0%		21년 이상	1	12.5%		21년 이상	4	25.0%
	무응답	26	20.5%		무응답	0	0.0%		무응답	2	12.5%
대솔면	5년 미만	1	16.7%	응봉면	5년 미만	12	31.6%	신암면	5년 미만	5	18.5%
	5년~10년	2	33.3%		5년~10년	11	28.9%		5년~10년	5	18.5%

	11년~20년	0	0.0%		11년~20년	5	13.2%		11년~20년	4	14.8%
	21년 이상	3	50.0%		21년 이상	9	23.7%		21년 이상	13	48.1%
	무응답	0	0.0%		무응답	1	2.6%		무응답	0	0.0%
	5년 미만	1	8.3%		5년 미만	3	18.8%		5년 미만	11	29.7%
신양면	5년~10년	0	0.0%	덕산면	5년~10년	4	25.0%	오가면	5년~10년	6	16.2%
	11년~20년	2	16.7%		11년~20년	3	18.8%		11년~20년	4	10.8%
	21년 이상	7	58.3%		21년 이상	5	31.3%		21년 이상	16	43.2%
	무응답	2	16.7%		무응답	1	6.3%		무응답	0	0.0%

5. 양육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

(※영유아기(만5세이하, 미취학)에 해당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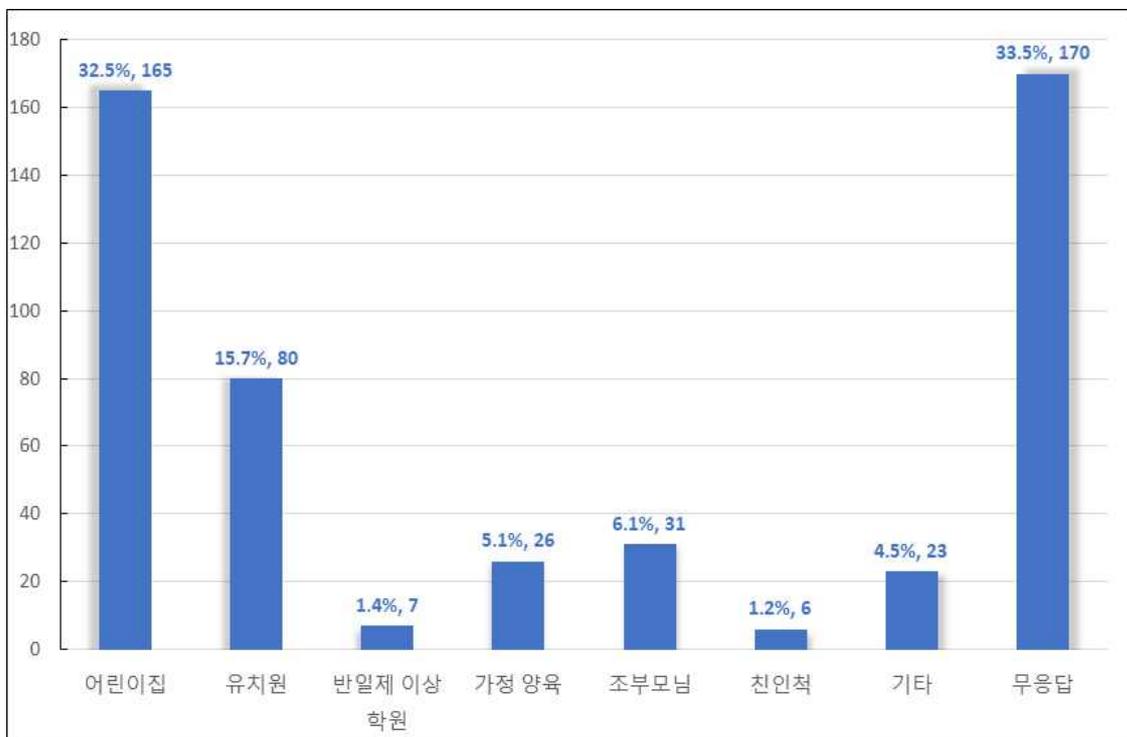
가. 예산군 영유아 양육 관련 설문

1)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곳

-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곳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에게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1.2%)로 가장 적었음
- 거주지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예산읍과 삼교읍, 대술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음. 신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친인척’에게 맡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덕산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조부모님’에게 맡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음. 마지막으로 고덕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표 27> 자녀 보육 이용 기관

자녀 보육 기관	N	%
어린이집	165	32.5%
유치원	80	15.7%
반일제 이상 학원	7	1.4%
가정 양육	26	5.1%
조부모님	31	6.1%
친인척	6	1.2%
기타	23	4.5%
무응답	170	33.5%



<그림 9> 자녀 보육 이용 기관

<표 28> 거주지 별 영유아기 자녀 보육 이용기관 분포

거주지	빈도 (%)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조부모	친인척	기타	전체
예산읍	빈도	59	27	2	3	13	0	9	113
	거주지 중 %	52.2%	23.9%	1.8%	2.7%	11.5%	0.0%	8.0%	100.0%
	전체 중 %	17.7%	8.1%	0.6%	0.9%	3.9%	0.0%	2.7%	33.8%
삼교읍	빈도	35	15	3	8	2	1	5	69
	거주지 중 %	50.7%	21.7%	4.3%	11.6%	2.9%	1.4%	7.2%	100.0%
	전체 중 %	10.5%	4.5%	0.9%	2.4%	0.6%	0.3%	1.5%	20.7%
대술면	빈도	4	0	0	0	0	0	0	4
	거주지 중 %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중 %	1.2%	0.0%	0.0%	0.0%	0.0%	0.0%	0.0%	1.2%
신양면	빈도	2	0	0	1	1	2	0	6
	거주지 중 %	33.3%	0.0%	0.0%	16.7%	16.7%	33.3%	0.0%	100.0%
	전체 중 %	0.6%	0.0%	0.0%	0.3%	0.3%	0.6%	0.0%	1.8%
광시면	빈도	14	5	0	1	2	0	5	27
	거주지 중 %	51.9%	18.5%	0.0%	3.7%	7.4%	0.0%	18.5%	100.0%
	전체 중 %	4.2%	1.5%	0.0%	0.3%	0.6%	0.0%	1.5%	8.1%
대흥면	빈도	3	2	0	0	0	0	0	5
	거주지 중 %	60.0%	4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중 %	0.9%	0.6%	0.0%	0.0%	0.0%	0.0%	0.0%	1.5%
응봉면	빈도	17	10	1	5	4	1	0	38
	거주지 중 %	44.7%	26.3%	2.6%	13.2%	10.5%	2.6%	0.0%	100.0%
	전체 중 %	5.1%	3.0%	0.3%	1.5%	1.2%	0.3%	0.0%	11.4%
덕산면	빈도	3	3	0	0	3	0	1	10
	거주지 중 %	30.0%	30.0%	0.0%	0.0%	30.0%	0.0%	10.0%	100.0%
	전체 중 %	0.9%	0.9%	0.0%	0.0%	0.9%	0.0%	0.3%	3.0%
봉산면	빈도	6	5	0	1	4	0	0	16
	거주지 중 %	37.5%	31.3%	0.0%	6.3%	25.0%	0.0%	0.0%	100.0%
	전체 중 %	1.8%	1.5%	0.0%	0.3%	1.2%	0.0%	0.0%	4.8%
고덕면	빈도	5	5	0	1	0	0	0	11
	거주지 중 %	45.5%	45.5%	0.0%	9.1%	0.0%	0.0%	0.0%	100.0%
	전체 중 %	1.5%	1.5%	0.0%	0.3%	0.0%	0.0%	0.0%	3.3%
신암면	빈도	8	5	0	2	1	2	3	21
	거주지 중 %	38.1%	23.8%	0.0%	9.5%	4.8%	9.5%	14.3%	100.0%
	전체 중 %	2.4%	1.5%	0.0%	0.6%	0.3%	0.6%	0.9%	6.3%
오가면	빈도	7	2	1	3	1	0	0	14
	거주지 중 %	50.0%	14.3%	7.1%	21.4%	7.1%	0.0%	0.0%	100.0%
	전체 중 %	2.1%	0.6%	0.3%	0.9%	0.3%	0.0%	0.0%	4.2%
전체	빈도	163	79	7	25	31	6	23	334
	거주지 중 %	48.8%	23.7%	2.1%	7.5%	9.3%	1.8%	6.9%	100.0%
	전체 중 %	48.8%	23.7%	2.1%	7.5%	9.3%	1.8%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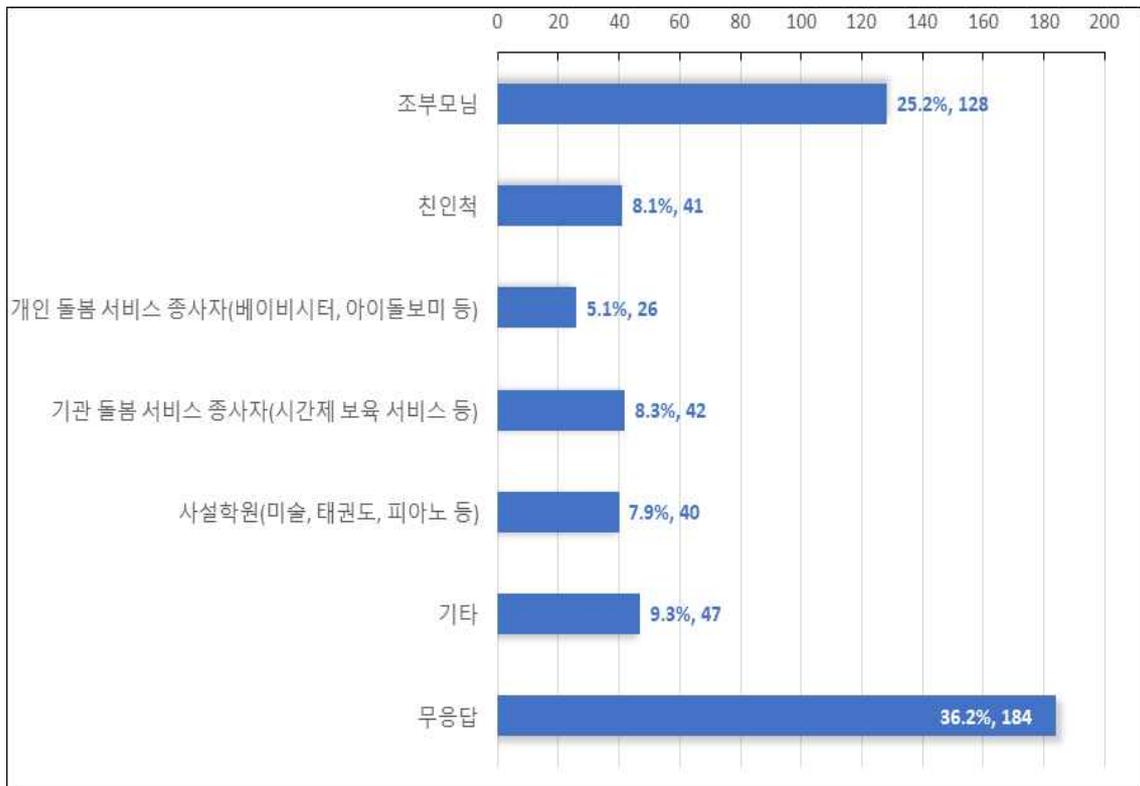
$\chi^2_{(66)}=103.41, p=.002$

2)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사람

-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2%(128명)로 가장 많았고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1%(26명)로 가장 적었음
- 거주지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예산읍과 삼교읍,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오가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조부모님’에게 맡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신양면은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맡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대흥면의 경우에는 ‘친인척’과 ‘사설학원’에 맡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고덕면의 경우에는 ‘기관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맡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마지막으로 신암면의 경우에는 ‘친인척’에게 맡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거주 지역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였음

<표 29 > 자녀를 맡기는 사람 분포

자녀를 맡기는 사람	N	%
조부모님	128	25.2%
친인척	41	8.1%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26	5.1%
기관 돌봄 서비스 종사자(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42	8.3%
사설학원(미술, 태권도, 피아노 등)	40	7.9%
기타	47	9.3%
무응답	184	36.2%



<그림 10 > 자녀 보육 이용 사람

<표 30 > 거주지 별 영유아기 자녀 보육 이용 사람 분포

거주지	빈도 (%)	조부모	친인척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기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사설학원	기타	전체
예산읍	빈도	53	10	6	12	15	12	108
	거주지 중 %	49.1%	9.3%	5.6%	11.1%	13.9%	11.1%	100.0%
	전체 중 %	16.6%	3.1%	1.9%	3.8%	4.7%	3.8%	33.8%
삼교읍	빈도	28	8	7	11	7	8	69
	거주지 중 %	40.6%	11.6%	10.1%	15.9%	10.1%	11.6%	100.0%
	전체 중 %	8.8%	2.5%	2.2%	3.4%	2.2%	2.5%	21.6%
대술면	빈도	0	1	1	1	1	0	4
	거주지 중 %	0.0%	25.0%	25.0%	25.0%	25.0%	0.0%	100.0%
	전체 중 %	0.0%	0.3%	0.3%	0.3%	0.3%	0.0%	1.3%
신양면	빈도	1	0	2	0	1	0	4
	거주지 중 %	25.0%	0.0%	50.0%	0.0%	25.0%	0.0%	100.0%
	전체 중 %	0.3%	0.0%	0.6%	0.0%	0.3%	0.0%	1.3%
광시면	빈도	3	2	1	3	4	11	24
	거주지 중 %	12.5%	8.3%	4.2%	12.5%	16.7%	45.8%	100.0%
	전체 중 %	0.9%	0.6%	0.3%	0.9%	1.3%	3.4%	7.5%
대흥면	빈도	0	2	0	0	2	0	4
	거주지 중 %	0.0%	50.0%	0.0%	0.0%	50.0%	0.0%	100.0%
	전체 중 %	0.0%	0.6%	0.0%	0.0%	0.6%	0.0%	1.3%
응봉면	빈도	13	8	1	5	5	5	37
	거주지 중 %	35.1%	21.6%	2.7%	13.5%	13.5%	13.5%	100.0%
	전체 중 %	4.1%	2.5%	0.3%	1.6%	1.6%	1.6%	11.6%
덕산면	빈도	5	0	1	1	1	1	9
	거주지 중 %	55.6%	0.0%	11.1%	11.1%	11.1%	11.1%	100.0%
	전체 중 %	1.6%	0.0%	0.3%	0.3%	0.3%	0.3%	2.8%
봉산면	빈도	11	1	0	1	2	1	16
	거주지 중 %	68.8%	6.3%	0.0%	6.3%	12.5%	6.3%	100.0%
	전체 중 %	3.4%	0.3%	0.0%	0.3%	0.6%	0.3%	5.0%
고덕면	빈도	3	0	3	4	1	1	12
	거주지 중 %	25.0%	0.0%	25.0%	33.3%	8.3%	8.3%	100.0%
	전체 중 %	0.9%	0.0%	0.9%	1.3%	0.3%	0.3%	3.8%
신암면	빈도	4	8	2	1	0	5	20
	거주지 중 %	20.0%	40.0%	10.0%	5.0%	0.0%	25.0%	100.0%
	전체 중 %	1.3%	2.5%	0.6%	0.3%	0.0%	1.6%	6.3%
오가면	빈도	5	0	2	3	1	2	13
	거주지 중 %	38.5%	0.0%	15.4%	23.1%	7.7%	15.4%	100.0%
	전체 중 %	1.6%	0.0%	0.6%	0.9%	0.3%	0.6%	4.1%
전체	빈도	126	40	26	42	40	46	320
	거주지 중 %	39.4%	12.5%	8.1%	13.1%	12.5%	14.4%	100.0%
	전체 중 %	39.4%	12.5%	8.1%	13.1%	12.5%	1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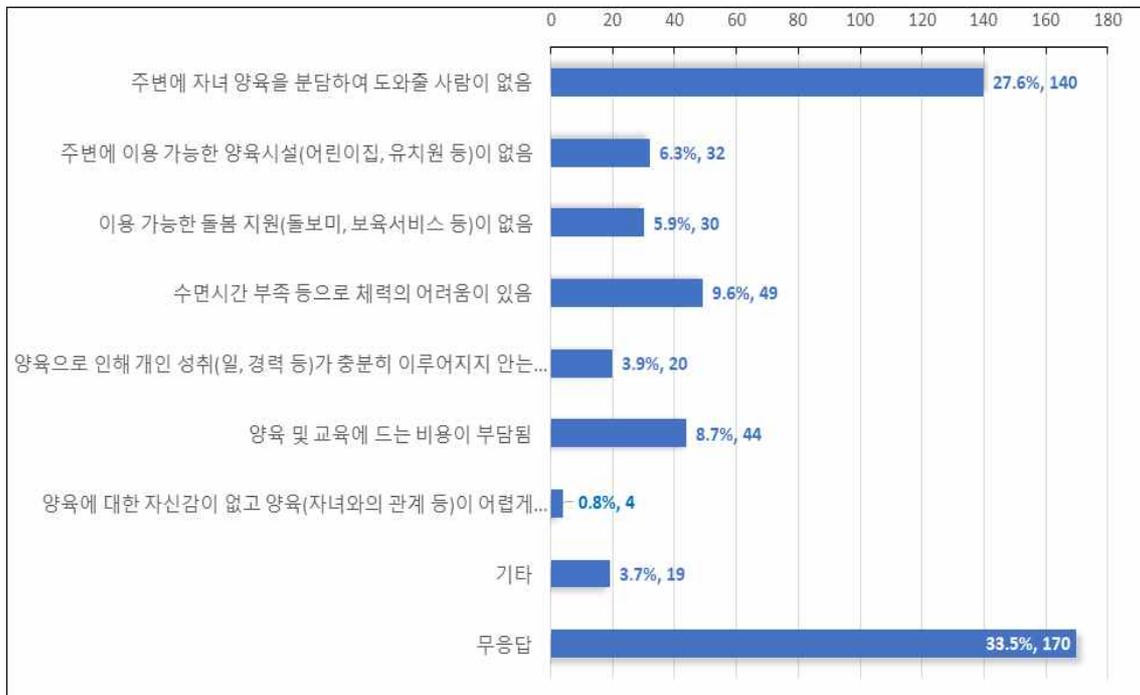
$\chi^2_{(55)}=103.15, p<.001$

3)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변에 자녀 양육을 분담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6%(140명)로 가장 많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양육(자녀와의 관계 등)이 어렵게 느껴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0.8%(4명)로 가장 적었음
- 거주지별 응답 분포를 확인한 결과 예산읍과 삼교읍, 응봉면, 덕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자녀 양육을 분담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대술면과 봉산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이용 가능한 양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반면에 대흥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의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마지막으로 신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지역별로 양육 어려움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분포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N	%
주변에 자녀 양육을 분담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음	140	27.6%
주변에 이용 가능한 양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없음	32	6.3%
이용 가능한 돌봄 지원(돌보미, 보육서비스 등)이 없음	30	5.9%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의 어려움이 있음	49	9.6%
양육으로 인해 개인 성취(일, 경력 등)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20	3.9%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	44	8.7%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양육(자녀와의 관계 등)이 어렵게 느껴짐	4	0.8%
기타	19	3.7%
무응답	170	33.5%



<그림 11>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분포

<표 32 > 거주지 별 영유아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 분포

거주지	빈도 (%)	주변에 자녀 양육을 분담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음	주변에 이용 가능한 양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없음	이용 가능한 돌봄 지원(돌보미, 보육서비스 등)이 없음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이 어려움이 있음	양육으로 인해 개인 성취(일, 경력 등)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양육(자녀와의 관계 등)이 어렵게 느껴짐	기타	전체
예산읍	빈도	46	5	10	15	6	24	1	5	112
	거주지 중 %	41.1%	4.5%	8.9%	13.4%	5.4%	21.4%	0.9%	4.5%	100.0%
	전체 중 %	13.8%	1.5%	3.0%	4.5%	1.8%	7.2%	0.3%	1.5%	33.5%
삼교읍	빈도	35	3	10	8	5	6	0	3	70
	거주지 중 %	50.0%	4.3%	14.3%	11.4%	7.1%	8.6%	0.0%	4.3%	100.0%
	전체 중 %	10.5%	0.9%	3.0%	2.4%	1.5%	1.8%	0.0%	0.9%	21.0%
대솔면	빈도	1	2	0	0	1	0	0	0	4
	거주지 중 %	25.0%	50.0%	0.0%	0.0%	25.0%	0.0%	0.0%	0.0%	100.0%
	전체 중 %	0.3%	0.6%	0.0%	0.0%	0.3%	0.0%	0.0%	0.0%	1.2%
신양면	빈도	2	1	0	0	0	3	0	0	6
	거주지 중 %	33.3%	16.7%	0.0%	0.0%	0.0%	50.0%	0.0%	0.0%	100.0%
	전체 중 %	0.6%	0.3%	0.0%	0.0%	0.0%	0.9%	0.0%	0.0%	1.8%
광시면	빈도	4	2	4	6	1	1	1	6	25
	거주지 중 %	16.0%	8.0%	16.0%	24.0%	4.0%	4.0%	4.0%	24.0%	100.0%
	전체 중 %	1.2%	0.6%	1.2%	1.8%	0.3%	0.3%	0.3%	1.8%	7.5%
대흥면	빈도	0	1	0	2	1	0	0	0	4
	거주지 중 %	0.0%	25.0%	0.0%	50.0%	25.0%	0.0%	0.0%	0.0%	100.0%
	전체 중 %	0.0%	0.3%	0.0%	0.6%	0.3%	0.0%	0.0%	0.0%	1.2%
응봉면	빈도	21	1	3	7	2	3	0	1	38
	거주지 중 %	55.3%	2.6%	7.9%	18.4%	5.3%	7.9%	0.0%	2.6%	100.0%
	전체 중 %	6.3%	0.3%	0.9%	2.1%	0.6%	0.9%	0.0%	0.3%	11.4%
덕산면	빈도	5	2	0	0	1	1	0	1	10
	거주지 중 %	50.0%	20.0%	0.0%	0.0%	10.0%	10.0%	0.0%	10.0%	100.0%
	전체 중 %	1.5%	0.6%	0.0%	0.0%	0.3%	0.3%	0.0%	0.3%	3.0%
봉산면	빈도	5	7	1	1	0	1	1	1	17
	거주지 중 %	29.4%	41.2%	5.9%	5.9%	0.0%	5.9%	5.9%	5.9%	100.0%
	전체 중 %	1.5%	2.1%	0.3%	0.3%	0.0%	0.3%	0.3%	0.3%	5.1%
고덕면	빈도	8	2	0	1	1	0	0	0	12
	거주지 중 %	66.7%	16.7%	0.0%	8.3%	8.3%	0.0%	0.0%	0.0%	100.0%
	전체 중 %	2.4%	0.6%	0.0%	0.3%	0.3%	0.0%	0.0%	0.0%	3.6%
신암면	빈도	7	5	1	5	0	2	0	2	22
	거주지 중 %	31.8%	22.7%	4.5%	22.7%	0.0%	9.1%	0.0%	9.1%	100.0%
	전체 중 %	2.1%	1.5%	0.3%	1.5%	0.0%	0.6%	0.0%	0.6%	6.6%
오가면	빈도	6	1	1	0	2	3	1	0	14
	거주지 중 %	42.9%	7.1%	7.1%	0.0%	14.3%	21.4%	7.1%	0.0%	100.0%
	전체 중 %	1.8%	0.3%	0.3%	0.0%	0.6%	0.9%	0.3%	0.0%	4.2%
전체	빈도	140	32	30	45	20	44	4	19	334
	거주지 중 %	41.9%	9.6%	9.0%	13.5%	6.0%	13.2%	1.2%	5.7%	100.0%
	전체 중 %	41.9%	9.6%	9.0%	13.5%	6.0%	13.2%	1.2%	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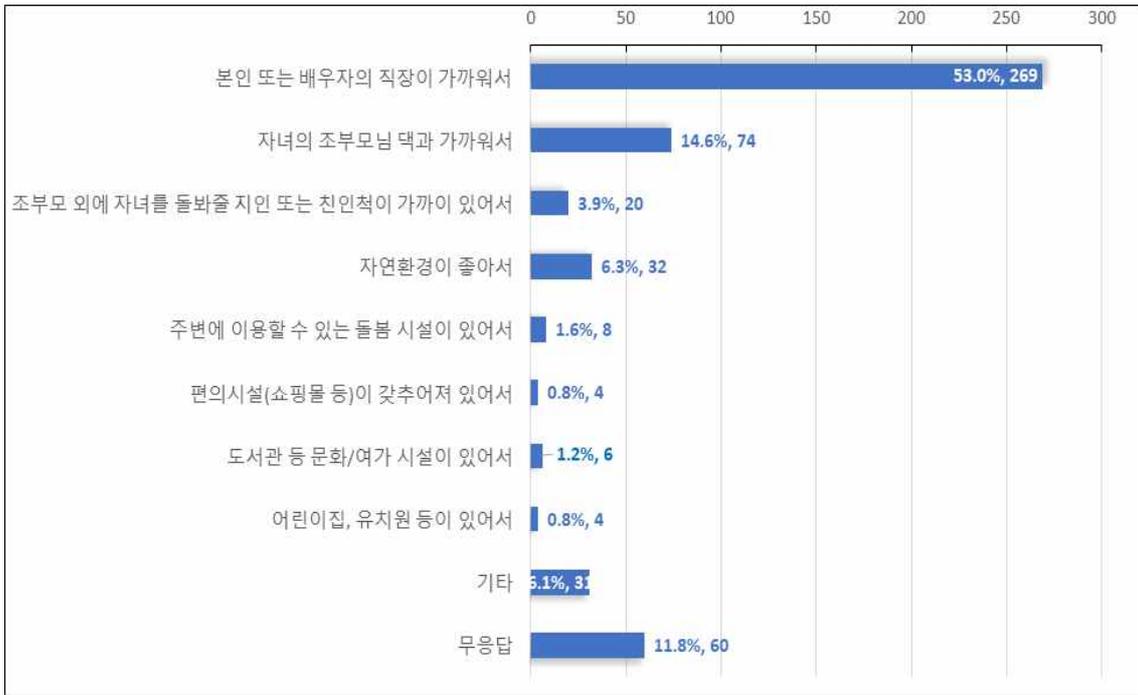
$\chi^2_{(77)}=131.80, p<.001$

4)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에 살게 된 이유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게 된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3%(269명)로 가장 많은 반면 ‘편의시설(쇼핑몰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0.8%(4명)로 가장 적었음
- 거주지별 응답 분포를 확인한 결과 12개 지역 모두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추가적으로 신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동등하게 높았고, 대흥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조부모님 덕과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높았음

<표 33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 분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	N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	269	53.0%
자녀의 조부모님 덕과 가까워서	74	14.6%
조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줄 지인 또는 친인척이 가까이 있어서	20	3.9%
자연환경이 좋아서	32	6.3%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있어서	8	1.6%
편의시설(쇼핑몰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4	0.8%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이 있어서	6	1.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어서	4	0.8%
기타	31	6.1%
무응답	60	11.8%



<그림 12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 분포

<표 34 >거주지 별 현재 거주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 분포

거주지	빈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	자녀의 조부모님 댁과 가까워서	조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줄 지인 친인척이 가까워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주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있음	편의시설(쇼핑몰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이 있어서	어린이 집, 유치원 등이 있어서	기타	전체
예산읍	빈도	87	18	3	11	4	1	2	3	9	138
	거주지 중 %	63.0%	13.0%	2.2%	8.0%	2.9%	0.7%	1.4%	2.2%	6.5%	100.0%
	전체 중 %	19.7%	4.1%	0.7%	2.5%	0.9%	0.2%	0.5%	0.7%	2.0%	31.3%
삼교읍	빈도	80	14	4	4	1	0	2	0	3	108
	거주지 중 %	74.1%	13.0%	3.7%	3.7%	0.9%	0.0%	1.9%	0.0%	2.8%	100.0%
	전체 중 %	18.1%	3.2%	0.9%	0.9%	0.2%	0.0%	0.5%	0.0%	0.7%	24.5%
대술면	빈도	3	1	1	0	0	0	0	0	0	5
	거주지 중 %	60.0%	20.0%	2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중 %	0.7%	0.2%	0.2%	0.0%	0.0%	0.0%	0.0%	0.0%	0.0%	1.1%
신양면	빈도	3	1	0	3	0	0	0	0	1	8
	거주지 중 %	37.5%	12.5%	0.0%	37.5%	0.0%	0.0%	0.0%	0.0%	12.5%	100.0%
	전체 중 %	0.7%	0.2%	0.0%	0.7%	0.0%	0.0%	0.0%	0.0%	0.2%	1.8%
광시면	빈도	15	10	2	3	0	1	1	0	6	38
	거주지 중 %	39.5%	26.3%	5.3%	7.9%	0.0%	2.6%	2.6%	0.0%	15.8%	100.0%
	전체 중 %	3.4%	2.3%	0.5%	0.7%	0.0%	0.2%	0.2%	0.0%	1.4%	8.6%
대흥면	빈도	2	2	1	0	0	0	1	0	0	6
	거주지 중 %	33.3%	33.3%	16.7%	0.0%	0.0%	0.0%	16.7%	0.0%	0.0%	100.0%
	전체 중 %	0.5%	0.5%	0.2%	0.0%	0.0%	0.0%	0.2%	0.0%	0.0%	1.4%
응봉면	빈도	17	13	2	3	1	1	0	1	0	38
	거주지 중 %	44.7%	34.2%	5.3%	7.9%	2.6%	2.6%	0.0%	2.6%	0.0%	100.0%
	전체 중 %	3.9%	2.9%	0.5%	0.7%	0.2%	0.2%	0.0%	0.2%	0.0%	8.6%
덕산면	빈도	10	0	0	1	0	0	0	0	3	14
	거주지 중 %	71.4%	0.0%	0.0%	7.1%	0.0%	0.0%	0.0%	0.0%	21.4%	100.0%
	전체 중 %	2.3%	0.0%	0.0%	0.2%	0.0%	0.0%	0.0%	0.0%	0.7%	3.2%
봉산면	빈도	19	6	1	2	0	0	0	0	2	30
	거주지 중 %	63.3%	20.0%	3.3%	6.7%	0.0%	0.0%	0.0%	0.0%	6.7%	100.0%
	전체 중 %	4.3%	1.4%	0.2%	0.5%	0.0%	0.0%	0.0%	0.0%	0.5%	6.8%
고덕면	빈도	12	1	1	0	0	0	0	0	0	14
	거주지 중 %	85.7%	7.1%	7.1%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중 %	2.7%	0.2%	0.2%	0.0%	0.0%	0.0%	0.0%	0.0%	0.0%	3.2%
신암면	빈도	7	4	4	4	1	0	0	0	7	27
	거주지 중 %	25.9%	14.8%	14.8%	14.8%	3.7%	0.0%	0.0%	0.0%	25.9%	100.0%
	전체 중 %	1.6%	0.9%	0.9%	0.9%	0.2%	0.0%	0.0%	0.0%	1.6%	6.1%
오가면	빈도	11	3	0	1	0	0	0	0	0	15
	거주지 중 %	73.3%	20.0%	0.0%	6.7%	0.0%	0.0%	0.0%	0.0%	0.0%	100.0%
	전체 중 %	2.5%	0.7%	0.0%	0.2%	0.0%	0.0%	0.0%	0.0%	0.0%	3.4%
전체	빈도	266	73	19	32	7	3	6	4	31	441
	거주지 중 %	60.3%	16.6%	4.3%	7.3%	1.6%	0.7%	1.4%	0.9%	7.0%	100.0%
	전체 중 %	60.3%	16.6%	4.3%	7.3%	1.6%	0.7%	1.4%	0.9%	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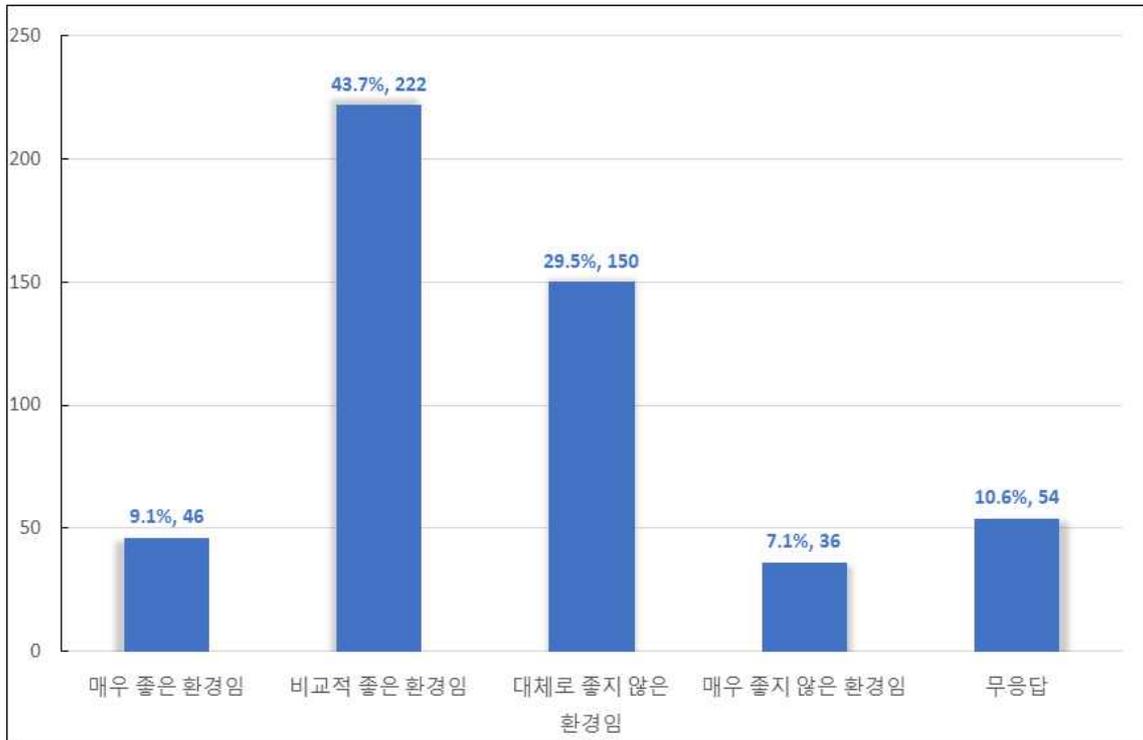
$\chi^2(88)=124.63, p=.006$

5)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43.7%(222명)로 가장 높았음
- 거주지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과 삼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환경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반면에 응봉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대술면과 대흥면, 덕산면과 고덕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음

<표 35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 분포

지역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	N	%
매우 좋은 환경임	46	9.1%
비교적 좋은 환경임	222	43.7%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임	150	29.5%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	36	7.1%
무응답	54	10.6%



<그림 13>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 분포

<표 36> 거주지별 현재 거주지의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 분포

거주지	빈도 (%)	매우 좋은 환경임	비교적 좋은 환경임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임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	전체
예산읍	빈도	26	66	42	5	139
	거주지 중 %	18.7%	47.5%	30.2%	3.6%	100.0%
	전체 중 %	5.8%	14.8%	9.4%	1.1%	31.1%
삼교읍	빈도	6	65	33	3	107
	거주지 중 %	5.6%	60.7%	30.8%	2.8%	100.0%
	전체 중 %	1.3%	14.5%	7.4%	0.7%	23.9%
대솔면	빈도	0	2	2	2	6
	거주지 중 %	0.0%	33.3%	33.3%	33.3%	100.0%
	전체 중 %	0.0%	0.4%	0.4%	0.4%	1.3%
신양면	빈도	1	6	3	0	10
	거주지 중 %	10.0%	60.0%	30.0%	0.0%	100.0%
	전체 중 %	0.2%	1.3%	0.7%	0.0%	2.2%
광시면	빈도	2	21	14	1	38
	거주지 중 %	5.3%	55.3%	36.8%	2.6%	100.0%
	전체 중 %	0.4%	4.7%	3.1%	0.2%	8.5%
대흥면	빈도	2	3	3	0	8
	거주지 중 %	25.0%	37.5%	37.5%	0.0%	100.0%
	전체 중 %	0.4%	0.7%	0.7%	0.0%	1.8%
응봉면	빈도	0	12	11	15	38
	거주지 중 %	0.0%	31.6%	28.9%	39.5%	100.0%
	전체 중 %	0.0%	2.7%	2.5%	3.4%	8.5%
덕산면	빈도	2	4	7	2	15
	거주지 중 %	13.3%	26.7%	46.7%	13.3%	100.0%
	전체 중 %	0.4%	0.9%	1.6%	0.4%	3.4%
봉산면	빈도	1	17	13	1	32
	거주지 중 %	3.1%	53.1%	40.6%	3.1%	100.0%
	전체 중 %	0.2%	3.8%	2.9%	0.2%	7.2%
고덕면	빈도	0	3	7	4	14
	거주지 중 %	0.0%	21.4%	50.0%	28.6%	100.0%
	전체 중 %	0.0%	0.7%	1.6%	0.9%	3.1%
신암면	빈도	4	12	8	1	25
	거주지 중 %	16.0%	48.0%	32.0%	4.0%	100.0%
	전체 중 %	0.9%	2.7%	1.8%	0.2%	5.6%
오가면	빈도	0	8	6	1	15
	거주지 중 %	0.0%	53.3%	40.0%	6.7%	100.0%
	전체 중 %	0.0%	1.8%	1.3%	0.2%	3.4%
전체	빈도	44	219	149	35	447
	거주지 중 %	9.8%	49.0%	33.3%	7.8%	100.0%
	전체 중 %	9.8%	49.0%	33.3%	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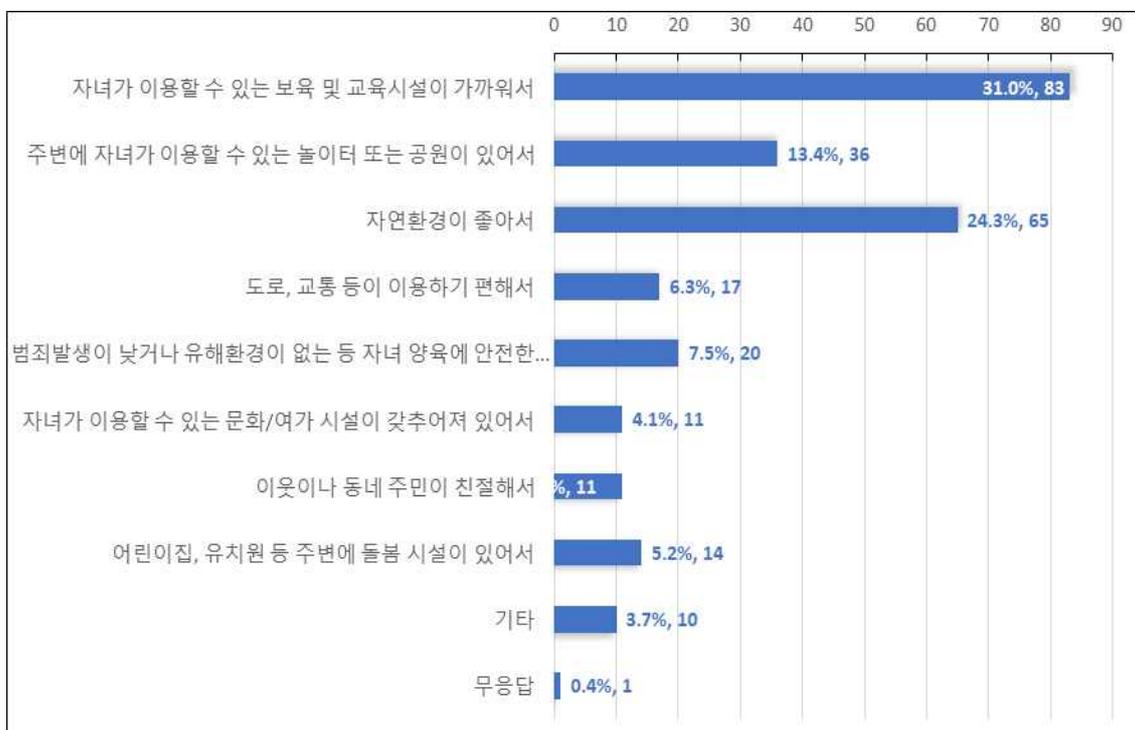
$\chi^2(33)=112.23, p<.001$

6) [5)에서 ①매우 좋은 환경임, ②비교적 좋은 환경임을 선택한 응답자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현재 거주하는 양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1.0%가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반면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와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친절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1%로 가장 낮았음
- 지역별 응답 분포를 비교한 결과 예산읍과 삼교읍, 대술면, 대흥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봉산면과 신암면,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응봉면과 덕산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 두 가지 이유 즉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가장 높았음. 고덕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 두 이유에 덧붙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에 돌봄 시설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높았음. 반면에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또는 공원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았음. 신양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편해서’와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친절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아 다른 거주지역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음

<표 37 > 현재 거주지의 양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	%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83	31.0%
주변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또는 공원이 있어서	36	13.4%
자연환경이 좋아서	65	24.3%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편해서	17	6.3%
범죄발생이 낮거나 유해환경이 없는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한 곳이어서	20	7.5%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11	4.1%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친절해서	11	4.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에 돌봄 시설이 있어서	14	5.2%
기타	10	3.7%
무응답	1	0.4%



<그림 14 > 현재 거주지의 양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38 > 거주지별 현재 거주지가 양육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분포

거주지	빈도 (%)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교육시설 이 가까움	주변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도로, 교통이 이용 편해서	범죄발생 낮거나 유해환경 없는 등 자녀 양육 안전한곳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친절	어린이 집, 유치원 등 주변에 돌봄 시설	기타	전체
예산읍	빈도	32	9	25	7	9	5	2	3	0	92
	거주지 중 %	34.8%	9.8%	27.2%	7.6%	9.8%	5.4%	2.2%	3.3%	0.0%	100.0%
	전체 중 %	12.2%	3.4%	9.5%	2.7%	3.4%	1.9%	0.8%	1.1%	0.0%	35.1%
삼교읍	빈도	30	8	6	5	6	4	3	6	2	70
	거주지 중 %	42.9%	11.4%	8.6%	7.1%	8.6%	5.7%	4.3%	8.6%	2.9%	100.0%
	전체 중 %	11.5%	3.1%	2.3%	1.9%	2.3%	1.5%	1.1%	2.3%	0.8%	26.7%
대솔면	빈도	1	0	0	0	0	0	0	1	0	2
	거주지 중 %	50.0%	0.0%	0.0%	0.0%	0.0%	0.0%	0.0%	50.0%	0.0%	100.0%
	전체 중 %	0.4%	0.0%	0.0%	0.0%	0.0%	0.0%	0.0%	0.4%	0.0%	0.8%
신양면	빈도	1	0	1	2	0	1	2	0	0	7
	거주지 중 %	14.3%	0.0%	14.3%	28.6%	0.0%	14.3%	28.6%	0.0%	0.0%	100.0%
	전체 중 %	0.4%	0.0%	0.4%	0.8%	0.0%	0.4%	0.8%	0.0%	0.0%	2.7%
광시면	빈도	2	5	4	2	3	0	2	0	5	23
	거주지 중 %	8.7%	21.7%	17.4%	8.7%	13.0%	0.0%	8.7%	0.0%	21.7%	100.0%
	전체 중 %	0.8%	1.9%	1.5%	0.8%	1.1%	0.0%	0.8%	0.0%	1.9%	8.8%
대흥면	빈도	2	0	1	0	0	1	0	0	1	5
	거주지 중 %	40.0%	0.0%	20.0%	0.0%	0.0%	20.0%	0.0%	0.0%	20.0%	100.0%
	전체 중 %	0.8%	0.0%	0.4%	0.0%	0.0%	0.4%	0.0%	0.0%	0.4%	1.9%
응봉면	빈도	3	2	3	1	0	0	0	2	1	12
	거주지 중 %	25.0%	16.7%	25.0%	8.3%	0.0%	0.0%	0.0%	16.7%	8.3%	100.0%
	전체 중 %	1.1%	0.8%	1.1%	0.4%	0.0%	0.0%	0.0%	0.8%	0.4%	4.6%
덕산면	빈도	2	1	2	0	0	0	1	0	0	6
	거주지 중 %	33.3%	16.7%	33.3%	0.0%	0.0%	0.0%	16.7%	0.0%	0.0%	100.0%
	전체 중 %	0.8%	0.4%	0.8%	0.0%	0.0%	0.0%	0.4%	0.0%	0.0%	2.3%
봉산면	빈도	0	6	9	0	2	0	0	0	1	18
	거주지 중 %	0.0%	33.3%	50.0%	0.0%	11.1%	0.0%	0.0%	0.0%	5.6%	100.0%
	전체 중 %	0.0%	2.3%	3.4%	0.0%	0.8%	0.0%	0.0%	0.0%	0.4%	6.9%
고덕면	빈도	1	0	1	0	0	0	0	1	0	3
	거주지 중 %	33.3%	0.0%	33.3%	0.0%	0.0%	0.0%	0.0%	33.3%	0.0%	100.0%
	전체 중 %	0.4%	0.0%	0.4%	0.0%	0.0%	0.0%	0.0%	0.4%	0.0%	1.1%
신암면	빈도	4	5	6	0	0	0	0	1	0	16
	거주지 중 %	25.0%	31.3%	37.5%	0.0%	0.0%	0.0%	0.0%	6.3%	0.0%	100.0%
	전체 중 %	1.5%	1.9%	2.3%	0.0%	0.0%	0.0%	0.0%	0.4%	0.0%	6.1%
오가면	빈도	2	0	5	0	0	0	1	0	0	8
	거주지 중 %	25.0%	0.0%	62.5%	0.0%	0.0%	0.0%	12.5%	0.0%	0.0%	100.0%
	전체 중 %	0.8%	0.0%	1.9%	0.0%	0.0%	0.0%	0.4%	0.0%	0.0%	3.1%
전체	빈도	80	36	63	17	20	11	11	14	10	262
	거주지 중 %	30.5%	13.7%	24.0%	6.5%	7.6%	4.2%	4.2%	5.3%	3.8%	100.0%
	전체 중 %	30.5%	13.7%	24.0%	6.5%	7.6%	4.2%	4.2%	5.3%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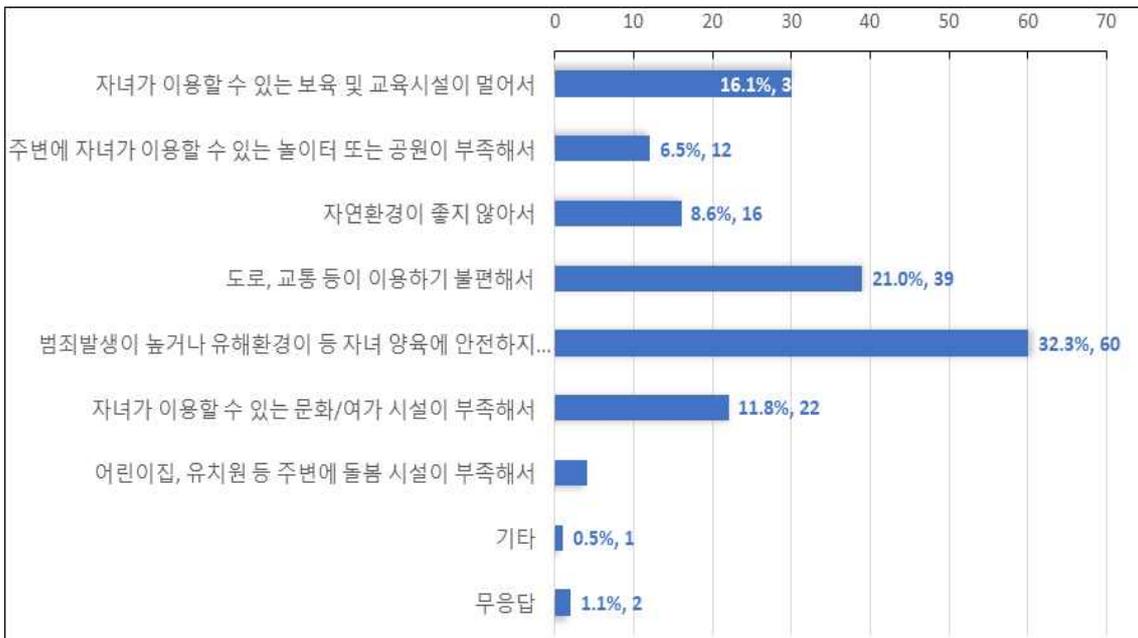
$\chi^2(88)=141.08, p<.001$

7) [5)에서 ③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과 ④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을 선택한 응답자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3%(60명)가 ‘범죄발생이 높거나 유해환경이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불편해서’가 21.0%(39명)으로 그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거주지별로 현 거주지가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교읍과 광시면 및 고덕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떨어져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흥면과 덕산면 및 오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예산읍과 신양면, 응봉면, 봉산면, 신암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발생이 높거나 유해환경이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마지막으로 대술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거주지 별로 응답에 차이를 보였음

<표 39 > 현재 거주지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현재 거주 지역이 자녀 양육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빈도	%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멀어서	30	16.1%
주변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또는 공원이 부족해서	12	6.5%
자연환경이 좋지 않아서	16	8.6%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39	21.0%
범죄발생이 높거나 유해환경이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하지 않아서	60	32.3%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22	11.8%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에 돌봄 시설이 부족해서	4	2.2%
기타	1	0.5%
무응답	2	1.1%



<그림 15 > 현 거주지가 자녀 양육 환경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40 > 거주지별 현재 거주지가 양육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분포

거주지	빈도 (%)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교육시설이 떨어져서	주변에 자녀가 이용 놀이터가 부족해서	자연환경이 좋지 않아서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범죄 발생 높거나 유해환경 자녀 양육에 안전하지 않아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등 유치원 주변에 놀람 시설이 부족해서	기타	전체
예 산 읍	빈도	4	1	4	8	25	4	1	0	47
	거주지 중 %	8.5%	2.1%	8.5%	17.0%	53.2%	8.5%	2.1%	0.0%	100.0%
	전체 중 %	2.2%	0.5%	2.2%	4.4%	13.7%	2.2%	0.5%	0.0%	25.8%
삼 교 읍	빈도	10	5	1	6	1	9	2	1	35
	거주지 중 %	28.6%	14.3%	2.9%	17.1%	2.9%	25.7%	5.7%	2.9%	100.0%
	전체 중 %	5.5%	2.7%	0.5%	3.3%	0.5%	4.9%	1.1%	0.5%	19.2%
대 술 면	빈도	1	0	1	0	0	2	0	0	4
	거주지 중 %	25.0%	0.0%	25.0%	0.0%	0.0%	50.0%	0.0%	0.0%	100.0%
	전체 중 %	0.5%	0.0%	0.5%	0.0%	0.0%	1.1%	0.0%	0.0%	2.2%
신 양 면	빈도	0	0	0	0	3	0	0	0	3
	거주지 중 %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전체 중 %	0.0%	0.0%	0.0%	0.0%	1.6%	0.0%	0.0%	0.0%	1.6%
광 시 면	빈도	5	2	0	3	0	3	1	0	14
	거주지 중 %	35.7%	14.3%	0.0%	21.4%	0.0%	21.4%	7.1%	0.0%	100.0%
	전체 중 %	2.7%	1.1%	0.0%	1.6%	0.0%	1.6%	0.5%	0.0%	7.7%
대 흥 면	빈도	0	0	0	2	1	0	0	0	3
	거주지 중 %	0.0%	0.0%	0.0%	66.7%	33.3%	0.0%	0.0%	0.0%	100.0%
	전체 중 %	0.0%	0.0%	0.0%	1.1%	0.5%	0.0%	0.0%	0.0%	1.6%
응 봉 면	빈도	0	2	8	4	12	0	0	0	26
	거주지 중 %	0.0%	7.7%	30.8%	15.4%	46.2%	0.0%	0.0%	0.0%	100.0%
	전체 중 %	0.0%	1.1%	4.4%	2.2%	6.6%	0.0%	0.0%	0.0%	14.3%
덕 산 면	빈도	1	1	0	5	1	1	0	0	9
	거주지 중 %	11.1%	11.1%	0.0%	55.6%	11.1%	11.1%	0.0%	0.0%	100.0%
	전체 중 %	0.5%	0.5%	0.0%	2.7%	0.5%	0.5%	0.0%	0.0%	4.9%
봉 산 면	빈도	0	0	1	3	10	0	0	0	14
	거주지 중 %	0.0%	0.0%	7.1%	21.4%	71.4%	0.0%	0.0%	0.0%	100.0%
	전체 중 %	0.0%	0.0%	0.5%	1.6%	5.5%	0.0%	0.0%	0.0%	7.7%
고 덕 면	빈도	7	0	0	1	1	2	0	0	11
	거주지 중 %	63.6%	0.0%	0.0%	9.1%	9.1%	18.2%	0.0%	0.0%	100.0%
	전체 중 %	3.8%	0.0%	0.0%	0.5%	0.5%	1.1%	0.0%	0.0%	6.0%
신 암 면	빈도	0	1	0	2	6	0	0	0	9
	거주지 중 %	0.0%	11.1%	0.0%	22.2%	66.7%	0.0%	0.0%	0.0%	100.0%
	전체 중 %	0.0%	0.5%	0.0%	1.1%	3.3%	0.0%	0.0%	0.0%	4.9%
오 가 면	빈도	1	0	1	5	0	0	0	0	7
	거주지 중 %	14.3%	0.0%	14.3%	71.4%	0.0%	0.0%	0.0%	0.0%	100.0%
	전체 중 %	0.5%	0.0%	0.5%	2.7%	0.0%	0.0%	0.0%	0.0%	3.8%
전 체	빈도	29	12	16	39	60	21	4	1	182
	거주지 중 %	15.9%	6.6%	8.8%	21.4%	33.0%	11.5%	2.2%	0.5%	100.0%
	전체 중 %	15.9%	6.6%	8.8%	21.4%	33.0%	11.5%	2.2%	0.5%	100.0%

$\chi^2(88)=141.08, p<.001$

6.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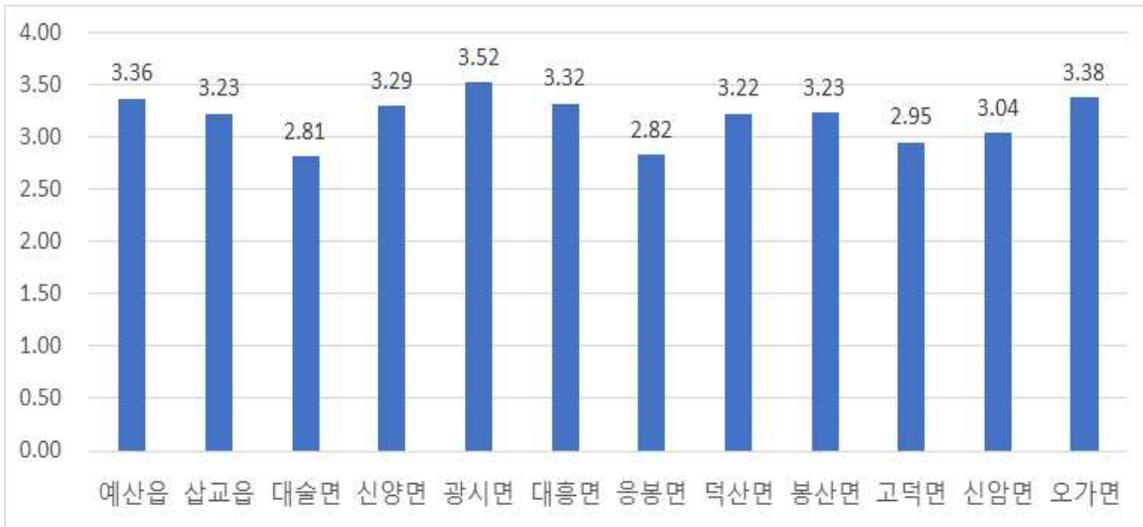
가. 예산군 자녀 양육과 관련 주제

1) 저출생 및 육아친화와 관련된 주제

-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저출생의 심각성’과 ‘거주지가 20~30대 젊은 세대 정주환경의 적절성’, ‘예산군의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정도’, ‘거주지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정도’, ‘결혼에 대한 의견’, ‘출산에 대한 의견’, ‘거주지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규모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163명(32.1%)로 가장 높았음
- ‘예산군의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35.6%(181명)와 23.0%(117명)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저출생 및 육아친화 환경 9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의 평균이 3.52점으로 가장 높아 저출생 및 지역의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42 >거주지 별 저출생 및 육아친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36	0.65
삽교읍	121	3.23	0.56
대술면	6	2.81	0.57
신양면	11	3.29	0.47
광시면	33	3.52	0.39
대흥면	8	3.32	0.56
응봉면	38	2.82	0.72
덕산면	15	3.22	0.50
봉산면	32	3.23	0.47
고덕면	16	2.95	0.53
신암면	27	3.04	0.37
오가면	37	3.38	0.95
전체	484	3.24	0.63



<그림 16>.거주지별 저출생 및 양육친화에 대한 평균 비교

<표 41 > 저출생 및 육아친화에 관한 의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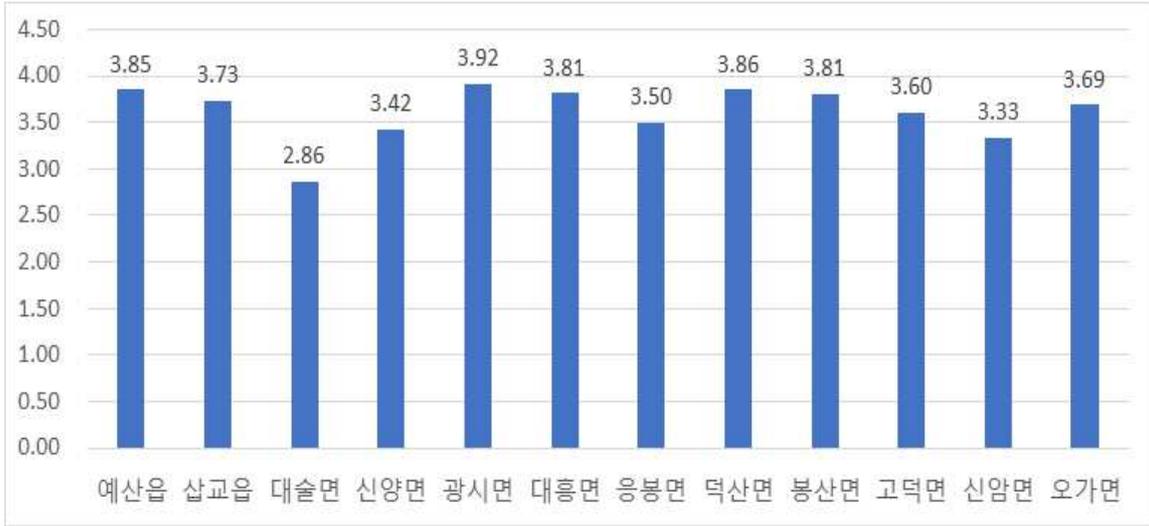
구분	저출생 및 육아친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2	69	148	129	97	3
		12.2%	13.6%	29.1%	25.4%	19.1%	0.6%
문항2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읍/면)의 인구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8	163	135	96	34	2
		15.4%	32.1%	26.6%	18.9%	6.7%	0.4%
문항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20~30대 젊은 세대가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5	119	198	116	27	3
		8.9%	23.4%	39.0%	22.8%	5.3%	0.6%
문항4	귀하께서는 예산군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8	89	224	131	32	4
		5.5%	17.5%	44.1%	25.8%	6.3%	0.8%
문항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이 '저출생'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81	196	164	50	2
		3.0%	15.9%	38.6%	32.3%	9.8%	0.4%
문항6	귀하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58	175	162	90	4
		3.7%	11.4%	34.4%	31.9%	17.7%	0.8%
문항7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79	206	146	53	4
		3.9%	15.6%	40.6%	28.7%	10.4%	0.8%
문항8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이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61	198	151	81	3
		2.8%	12.0%	39.0%	29.7%	15.9%	0.6%
문항9	귀하는 예산군이 육아친화 환경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32	166	181	117	3
		1.8%	6.3%	32.7%	35.6%	23.0%	0.6%

2) 자녀를 기르기에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자녀를 기르는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과 가치 및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분위기’와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각 영역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현재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양성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23명(43.9%)으로 나타났다
-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도시를 위한 철학, 가치, 태도의 전체 6개 문항에 대한 지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3.92점으로 가장 높아, 관련 분야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 거주지 별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85	0.65
삼교읍	121	3.73	0.72
대술면	6	2.86	0.96
신양면	11	3.42	0.76
광시면	33	3.92	0.65
대흥면	8	3.81	0.41
응봉면	38	3.50	0.95
덕산면	15	3.86	0.72
봉산면	32	3.81	0.66
고덕면	16	3.60	0.49
신암면	27	3.33	0.53
오가면	37	3.69	0.98
전체	484	3.72	0.74



<그림 17> 거주지별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비교

<표 43 > 자녀를 양육하는데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 분포

	철학, 가치, 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9	22	143	198	133	3
		1.8%	4.3%	28.1%	39.0%	26.2%	0.6%
문항2	자녀의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한다.	7	26	113	204	156	2
		1.4%	5.1%	22.2%	40.2%	30.7%	0.4%
문항3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10	18	125	197	155	3
		2.0%	3.5%	24.6%	38.8%	30.5%	0.6%
문항4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22	28	146	181	128	3
		4.3%	5.5%	28.7%	35.6%	25.2%	0.6%
문항5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양성평등하게 조성되어 있다.(예시: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21	42	153	172	118	2
		4.1%	8.3%	30.1%	33.9%	23.2%	0.4%
문항6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양성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예시: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20	60	223	142	61	2
		3.9%	11.8%	43.9%	28.0%	12.0%	0.4%

3)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관련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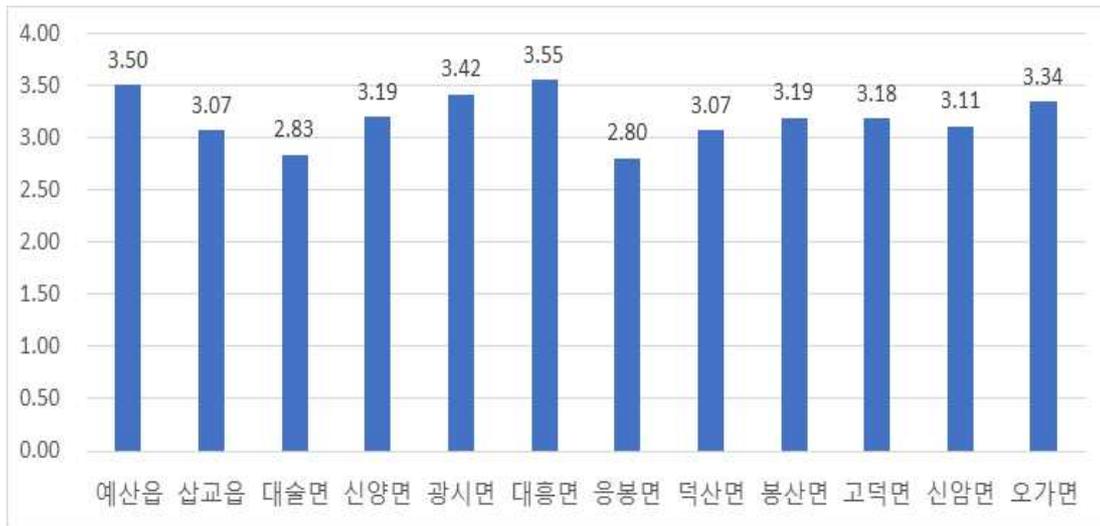
- 보육 및 교육기관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아이 배정 수 적절성’, ‘보육(교육)기관의 급식수준’, ‘보육(교육)기관의 보육 제공시간의 적절성’, ‘보육(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투명성’, ‘보육(교육)기관의 야외 놀이 공간 확보 정도’, ‘보육(교육)기관 등하교길 안전성’, ‘보육(교육)기관의 생활 안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다’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이 ‘어느 정도 그렇다’로 나타났음
- 보육 및 교육기관 인프라에 대한 거주지별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흥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3.55로 가장 높아 보육 및 교육기관 인프라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숫자가 적절하다.	15	87	208	157	29	12
		3.0%	17.1%	40.9%	30.9%	5.7%	2.4%
문항2	보육(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11	73	209	174	28	13
		2.2%	14.4%	41.1%	34.3%	5.5%	2.6%
문항3	보육(교육)기관의 보육(교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하다.	12	77	217	146	41	15
		2.4%	15.2%	42.7%	28.7%	8.1%	3.0%
문항4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12	85	227	132	39	13
		2.4%	16.7%	44.7%	26.0%	7.7%	2.6%
문항5	보육(교육)기관의 야외/놀이공간이 충분하다.	16	71	235	139	34	13
		3.1%	14.0%	46.3%	27.4%	6.7%	2.6%
문항6	보육(교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다.	10	59	215	166	44	14
		2.0%	11.6%	42.3%	32.7%	8.7%	2.8%
문항7	보육(혹은 교육) 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15	81	237	135	26	14
		3.0%	15.9%	46.7%	26.6%	5.1%	2.8%

<표 46> 거주지 별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50	0.67
삽교읍	121	3.07	0.61
대술면	6	2.83	0.84
신양면	11	3.19	0.52
광시면	33	3.42	0.57
대흥면	8	3.55	0.39
응봉면	38	2.80	0.81
덕산면	15	3.07	0.59
봉산면	32	3.19	0.56
고덕면	16	3.18	0.60
신암면	27	3.11	0.64
오가면	37	3.34	0.95
전체	484	3.24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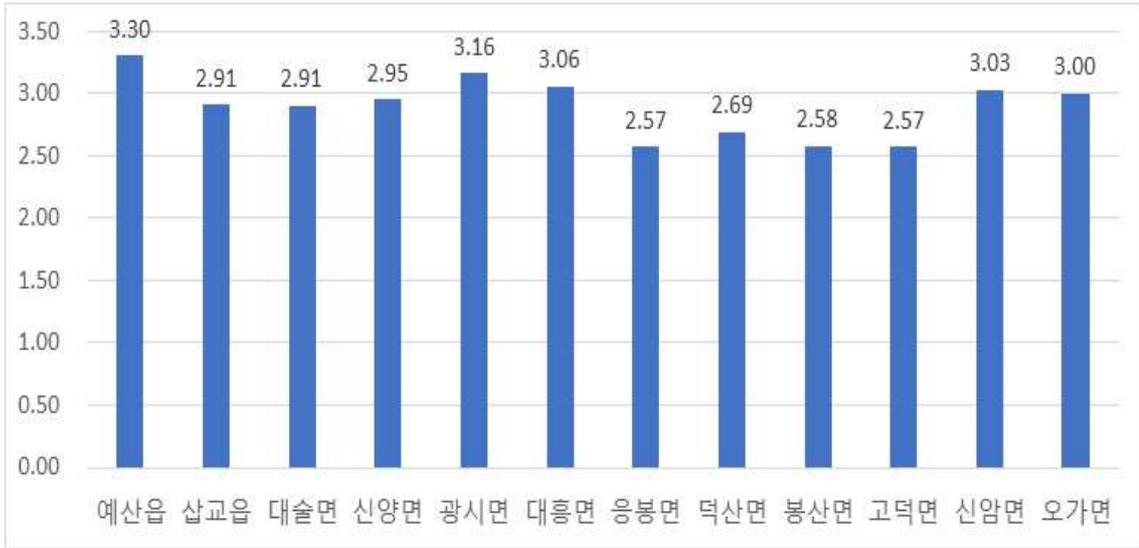
<그림 18 > 거주지 별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에 대한 평균 비교

4)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관련된 주제

-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편리성’과 ‘공원/녹지 공간의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체험활동 시설 확보 정도’, ‘놀이터 이용 편리성’, ‘도서관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다음 순으로 나타나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체육시설 이용 편리성’과 ‘쇼핑센터 및 시장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 편리성’, ‘병원 의료인 수 적절성’, ‘병원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다음 순으로 나타나 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별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3.30으로 가장 높았음

<표 48 >거주지 별 육아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30	0.85
삽교읍	121	2.91	0.62
대술면	6	2.91	0.64
신양면	11	2.95	0.62
광시면	33	3.16	0.78
대흥면	8	3.06	0.72
응봉면	38	2.57	0.85
덕산면	15	2.69	0.80
봉산면	32	2.58	0.50
고덕면	16	2.57	0.60
신암면	27	3.03	0.87
오가면	37	3.00	1.06
전체	484	2.99	0.81



<그림 19> 거주지 별 육아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균 비교

<표 47 >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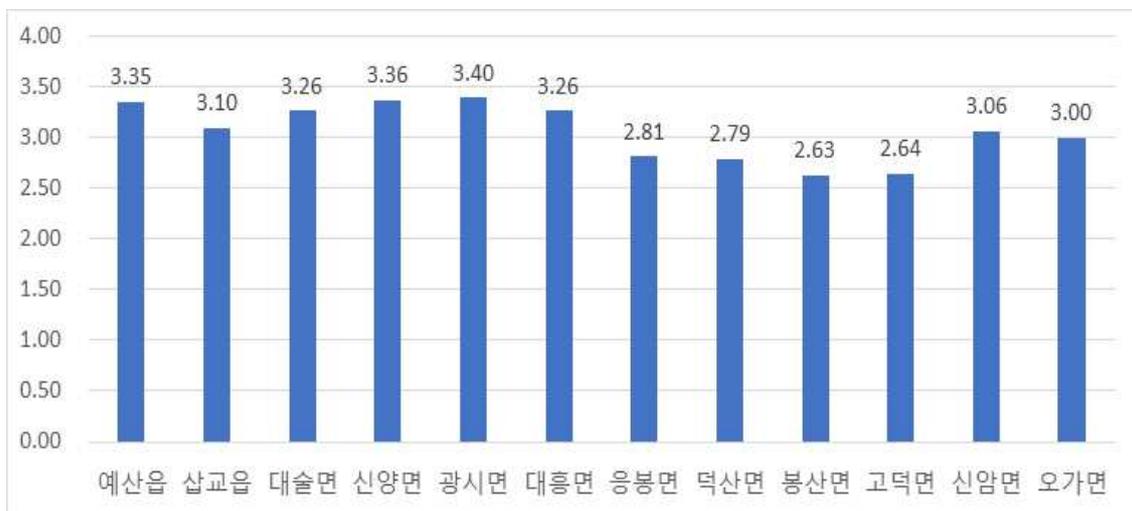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21	104	198	148	28	9
		4.1%	20.5%	39.0%	29.1%	5.5%	1.8%
문항2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예시: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20	96	179	165	39	9
		3.9%	18.9%	35.2%	32.5%	7.7%	1.8%
문항3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21	103	204	134	37	9
		4.1%	20.3%	40.2%	26.4%	7.3%	1.8%
문항4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하다.	15	81	200	153	48	11
		3.0%	15.9%	39.4%	30.1%	9.4%	2.2%
문항5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23	88	187	137	60	13
		4.5%	17.3%	36.8%	27.0%	11.8%	2.6%
문항6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32	107	199	119	41	10
		6.3%	21.1%	39.2%	23.4%	8.1%	2.0%
문항7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50	126	193	90	39	10
		9.8%	24.8%	38.0%	17.7%	7.7%	2.0%
문항8	쇼핑센터, 시장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43	140	193	83	38	11
		8.5%	27.6%	38.0%	16.3%	7.5%	2.2%
문항9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77	132	164	95	29	11
		15.2%	26.0%	32.3%	18.7%	5.7%	2.2%
문항10	소아과, 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102	129	153	78	37	9
		20.1%	25.4%	30.1%	15.4%	7.3%	1.8%
문항11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하다(교통, 보행도로 상태 등).	58	142	196	82	21	9
		11.4%	28.0%	38.6%	16.1%	4.1%	1.8%

5)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주제

- 물리적 환경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유모차(휠체어)이동 편리성’과 ‘자전거 이동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통학로/보행로의 안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운전자의 우호성’, ‘놀이터, 공원의 안전성’, ‘야간 안전성’, ‘경찰의 순찰 정도’, ‘유해시설 부재’, ‘환경의 쾌적함 정도’, ‘육아 관련 소통의 장 조성 정도’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 물리적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전체 평균을 거주지 별로 비교한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0> 거주지 별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35	0.75
삽교읍	121	3.10	0.52
대술면	6	3.26	0.60
신양면	11	3.36	0.60
광시면	33	3.40	0.66
대흥면	8	3.26	0.57
응봉면	38	2.81	0.65
덕산면	15	2.79	0.66
봉산면	32	2.63	0.53
고덕면	16	2.64	0.60
신암면	27	3.06	0.65
오가면	37	3.00	0.98
전체	484	3.11	0.71



<그림 20 > 거주지 별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균 비교

<표 49 > 물리적 환경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물리적 환경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35	123	190	125	27	8
		6.9%	24.2%	37.4%	24.6%	5.3%	1.6%
문항2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다.	49	109	185	114	45	6
		9.6%	21.5%	36.4%	22.4%	8.9%	1.2%
문항3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3	129	201	93	43	9
		6.5%	25.4%	39.6%	18.3%	8.5%	1.8%
문항4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하다.	16	71	228	142	44	7
		3.1%	14.0%	44.9%	28.0%	8.7%	1.4%
문항5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15	84	217	146	38	8
		3.0%	16.5%	42.7%	28.7%	7.5%	1.6%
문항6	놀이터, 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하다.	30	91	202	134	44	7
		5.9%	17.9%	39.8%	26.4%	8.7%	1.4%
문항7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하다.	21	96	235	113	37	6
		4.1%	18.9%	46.3%	22.2%	7.3%	1.2%
문항8	경찰 등 방범 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29	98	217	109	48	7
		5.7%	19.3%	42.7%	21.5%	9.4%	1.4%
문항9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15	69	204	153	61	6
		3.0%	13.6%	40.2%	30.1%	12.0%	1.2%
문항10	환경(공기질, 수질 등)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21	88	211	140	42	6
		4.1%	17.3%	41.5%	27.6%	8.3%	1.2%
문항11	육아하는 가정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공간, 소통의 장이 있다.	39	98	243	98	22	8
		7.7%	19.3%	47.8%	19.3%	4.3%	1.6%

6) 인적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

-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존재 정도’, ‘육아 지원 공동체 활동 정도’, ‘온라인 소통방 정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아이와 함께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정도’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러나 ‘아이와 함께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정도’외에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다음 순으로 높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거주지별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음

<표 51>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3	126	204	99	20	6
		10.4%	24.8%	40.2%	19.5%	3.9%	1.2%
문항2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59	120	189	100	33	7
		11.6%	23.6%	37.2%	19.7%	6.5%	1.4%
문항3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61	118	200	96	27	6
		12.0%	23.2%	39.4%	18.9%	5.3%	1.2%
문항4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55	127	196	82	42	6
		10.8%	25.0%	38.6%	16.1%	8.3%	1.2%
문항5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20	80	223	138	40	7
		3.9%	15.7%	43.9%	27.2%	7.9%	1.4%

<표 52 > 거주지 별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22	0.83
삽교읍	121	2.92	0.61
대술면	6	2.87	0.85
신양면	11	2.60	0.70
광시면	33	2.91	0.98
대흥면	8	3.03	0.79
응봉면	38	2.68	0.92
덕산면	15	2.52	0.82
봉산면	32	2.27	0.73
고덕면	16	2.50	0.60
신암면	27	2.87	0.93
오가면	37	2.84	1.10
전체	484	2.90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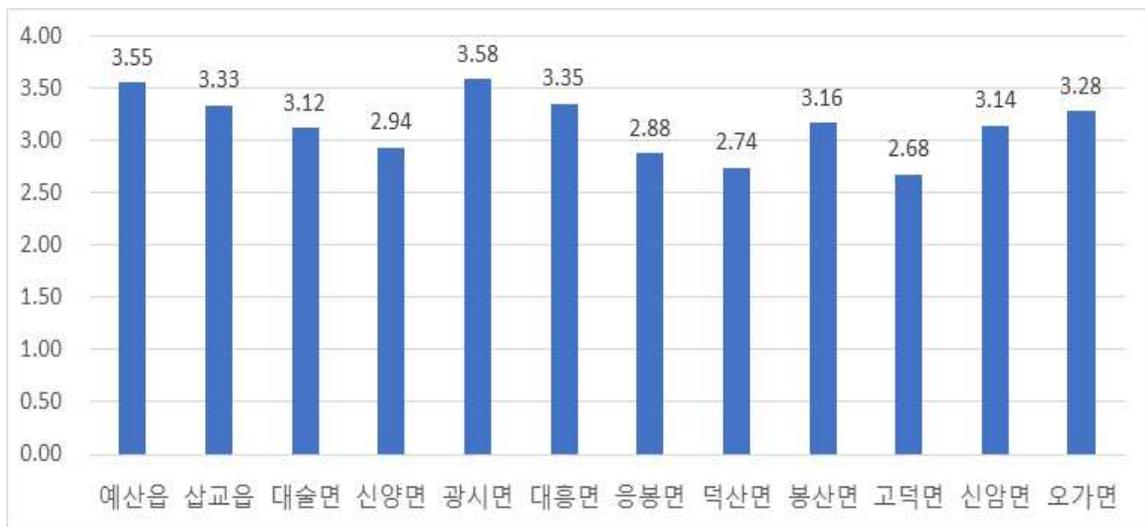
<그림 21 > 거주지 별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평균 비교

7) 공원/녹지 공간 관련된 주제

-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0개 문항 전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이다’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에 높은 순으로 응답하여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거주지별 공원/녹지에 인프라 만족에 대한 전체 평균 비교 결과 광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3.58로 가장 높아 만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54> 거주지 별 공원/녹지공간 인프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55	0.72
삽교읍	121	3.33	0.65
대술면	6	3.12	0.99
신양면	11	2.94	0.71
광시면	33	3.58	0.64
대흥면	8	3.35	0.56
응봉면	38	2.88	0.94
덕산면	15	2.74	0.72
봉산면	32	3.16	0.65
고덕면	16	2.68	0.64
신암면	27	3.14	0.93
오가면	37	3.28	1.04
전체	484	3.30	0.79



<그림 22 > 거주지 별 공원/녹지공간 인프라에 대한 평균비교

< 표 53 >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공원/녹지 공간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공원/녹지 공간 이용비가 저렴하거나 무료이다	19	43	200	183	59	4
		3.7%	8.5%	39.4%	36.0%	11.6%	0.8%
문항2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이 있다	18	57	191	174	64	4
		3.5%	11.2%	37.6%	34.3%	12.6%	0.8%
문항3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22	60	194	161	64	7
		4.3%	11.8%	38.2%	31.7%	12.6%	1.4%
문항4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17	60	200	165	61	5
		3.3%	11.8%	39.4%	32.5%	12.0%	1.0%
문항5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27	82	177	160	57	5
		5.3%	16.1%	34.8%	31.5%	11.2%	1.0%
문항6	내가 사는 마을에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원/녹지 공간이 있다	33	89	198	134	48	6
		6.5%	17.5%	39.0%	26.4%	9.4%	1.2%
문항7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19	79	214	150	42	4
		3.7%	15.6%	42.1%	29.5%	8.3%	0.8%
문항8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14	61	211	167	49	6
		2.8%	12.0%	41.5%	32.9%	9.6%	1.2%
문항9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17	69	204	155	56	7
		3.3%	13.6%	40.2%	30.5%	11.0%	1.4%
문항10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	18	85	225	133	41	6
		3.5%	16.7%	44.3%	26.2%	8.1%	1.2%

8) 여가/문화 서비스 관련된 주제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이용료에 대한 만족’과 ‘여가/문화 공간 확보 정도’, ‘이용 안전성 및 편리성’,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면적 확보 정도’,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확보’, ‘체험 활동 공간 확보’ 및 ‘아이 및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 태도’ 모두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아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확보’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나, 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별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3.41로 가장 높아 다른 거주지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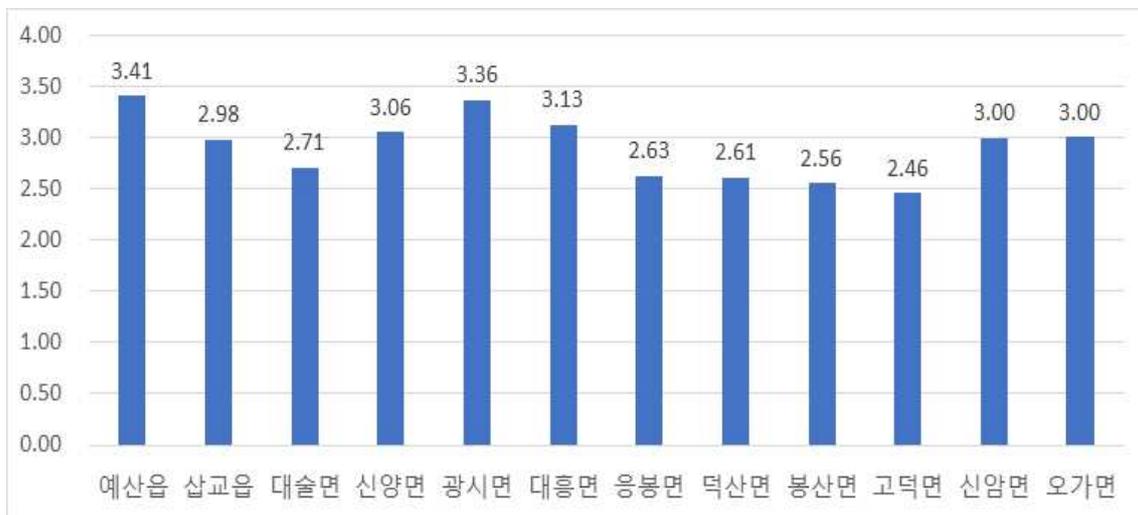
<표 55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여가/문화 공간 이용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37	99	188	135	45	4
		7.3%	19.5%	37.0%	26.6%	8.9%	0.8%
문항2	내가 사는 집에 멀리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35	100	210	122	37	4
		6.9%	19.7%	41.3%	24.0%	7.3%	0.8%
문항3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32	107	189	135	40	5
		6.3%	21.1%	37.2%	26.6%	7.9%	1.0%
문항4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30	101	195	140	38	4
		5.9%	19.9%	38.4%	27.6%	7.5%	0.8%
문항5	여가/문화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53	103	185	121	40	6
		10.4%	20.3%	36.4%	23.8%	7.9%	1.2%
문항6	내가 사는 마을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61	127	167	110	39	4
		12.0	25.0	32.9	21.7	7.7%	0.8%

		%	%	%	%		
문항7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37	105	205	106	50	5
		7.3%	20.7%	40.4%	20.9%	9.8%	1.0%
문항8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21	95	233	124	30	5
		4.1%	18.7%	45.9%	24.4%	5.9%	1.0%

<표 56 >거주지 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41	0.80
삽교읍	121	2.98	0.68
대술면	6	2.71	0.98
신양면	11	3.06	0.88
광시면	33	3.36	0.80
대흥면	8	3.13	0.57
응봉면	38	2.63	0.74
덕산면	15	2.61	0.61
봉산면	32	2.56	0.67
고덕면	16	2.46	0.51
신암면	27	3.00	0.91
오가면	37	3.00	1.21
전체	484	3.05	0.84



<그림 23 > 거주지 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균 비교

9) 교통/보행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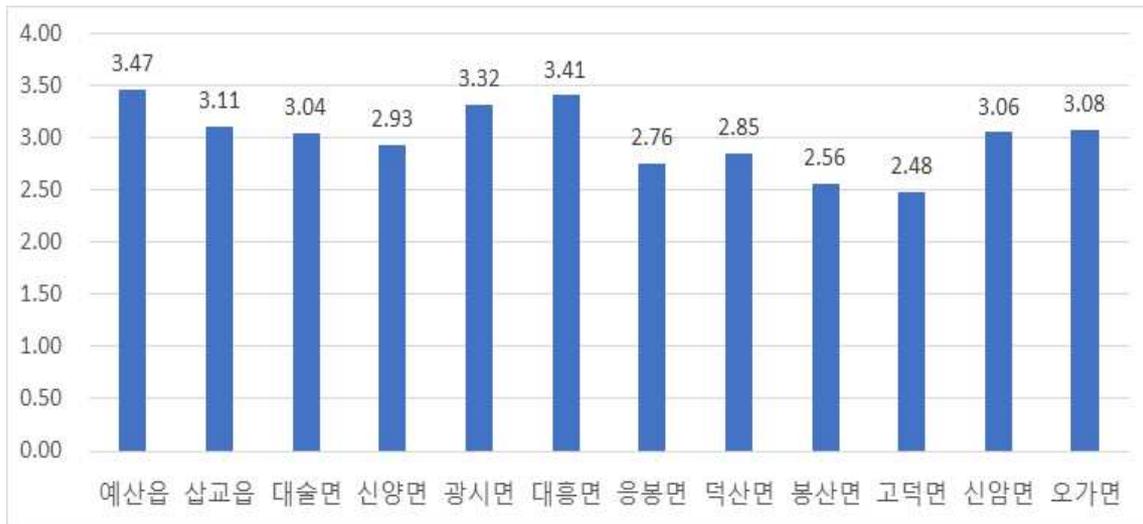
- 교통/보행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확보 정도’,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 및 편리성’, ‘유모차(휠체어) 이동 편리성’, ‘운전자들의 우호적인 태도’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아 교통/보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됨
- 거주지별 교통/보행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읍 평균이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7 > 교통/보행 네트워크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교통/보행 네트워크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8	97	194	149	35	5
		5.5%	19.1%	38.2%	29.3%	6.9%	1.0%
문항2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29	117	191	119	47	5
		5.7%	23.0%	37.6%	23.4%	9.3%	1.0%
문항3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17	86	232	140	28	5
		3.3%	16.9%	45.7%	27.6%	5.5%	1.0%
문항4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5	89	218	148	33	5
		3.0%	17.5%	42.9%	29.1%	6.5%	1.0%

<표 58> 교통/보행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47	0.72
삽교읍	121	3.11	0.70
대술면	6	3.04	0.56
신양면	11	2.93	0.46
광시면	33	3.32	0.76
대흥면	8	3.41	0.40
응봉면	38	2.76	0.74
덕산면	15	2.85	0.60
봉산면	32	2.56	0.47
고덕면	16	2.48	0.60
신암면	27	3.06	0.67
오가면	37	3.08	1.04
전체	484	3.13	0.77



<그림 24 > 교통/보행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평균 비교

10)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관련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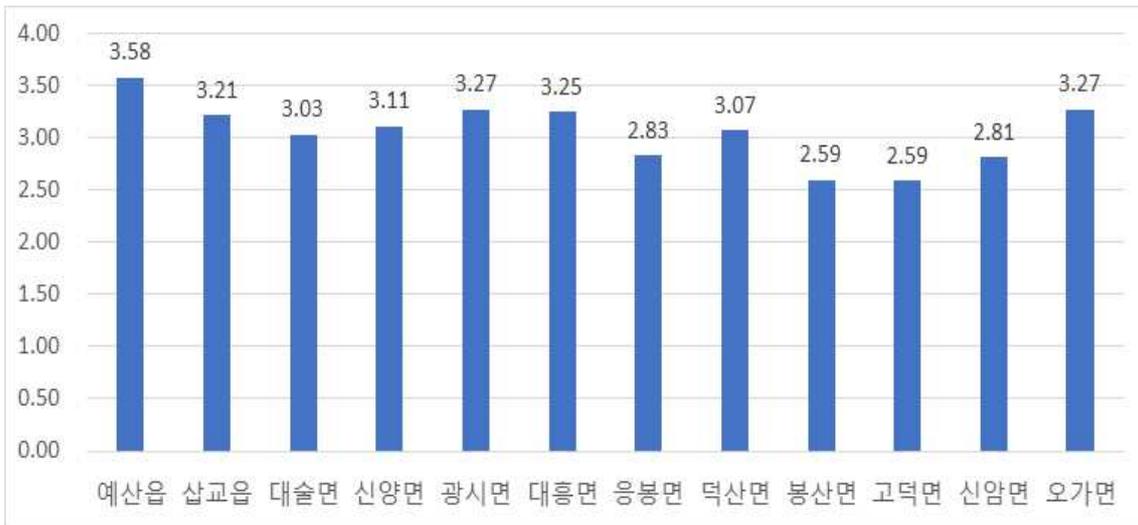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확보’와 ‘경찰서 확보’, ‘경찰 순찰 정도’, ‘CCTV 확보’ 및 ‘야간 안전성’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그렇다’가 그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안/안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치안/안전 서비스에 대한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율이 3.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9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방서가 있다	17	83	196	155	53	4
		3.3%	16.3%	38.6%	30.5%	10.4%	0.8%
문항2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19	84	224	133	44	4
		3.7%	16.5%	44.1%	26.2%	8.7%	0.8%
문항3	경찰 등 방법 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25	82	219	138	40	4
		4.9%	16.1%	43.1%	27.2%	7.9%	0.8%
문항4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21	91	198	144	50	4
		4.1%	17.9%	39.0%	28.3%	9.8%	0.8%
문항5	마을 길은 밤에 안전하다	14	65	259	128	37	5
		2.8%	12.8%	51.0%	25.2%	7.3%	1.0%

<표 60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58	0.73
삽교읍	121	3.21	0.61
대술면	6	3.03	1.08
신양면	11	3.11	0.84
광시면	33	3.27	0.78
대흥면	8	3.25	0.71
응봉면	38	2.83	0.74
덕산면	15	3.07	0.64
봉산면	32	2.59	0.49
고덕면	16	2.59	0.68
신암면	27	2.81	0.74
오가면	37	3.27	0.99
전체	484	3.20	0.78



<그림 25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균 비교

11) 행정 서비스 인프라

- 행정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 존재’와 ‘예산 확보 정도’, ‘행정 서비스 제공 인력의 우호적인 태도’, ‘충분한 정보 제공’, ‘정보 접근 용이성’, ‘의견 개선 창구 확보 정도’ 모두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의견 개선 창구 확보 정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가 보통이다 다음으로 높아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의견 개선 창구 확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가 24.2%(123명), ‘전혀 그렇지 않다’에도 20.7%(105명)이 응답하여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의견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행정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예산음이 3.3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 행정 서비스에 관한 의견 분포

	행정 서비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21	72	248	125	33	9
		4.1%	14.2%	48.8%	24.6%	6.5%	1.8%
문항2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16	59	223	159	42	9
		3.1%	11.6%	43.9%	31.3%	8.3%	1.8%
문항3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8	59	223	163	36	9
		3.5%	11.6%	43.9%	32.1%	7.1%	1.8%
문항4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21	64	241	140	34	8
		4.1%	12.6%	47.4%	27.6%	6.7%	1.6%
문항5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19	74	240	122	45	8
		3.7%	14.6%	47.2%	24.0%	8.9%	1.6%

문항6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105	123	176	80	16	8
		20.7%	24.2%	34.6%	15.7%	3.1%	1.6%

<표 62>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3.38	0.70
삽교읍	121	3.11	0.59
대술면	6	2.56	1.10
신양면	11	2.91	0.82
광시면	33	3.26	0.77
대흥면	8	3.10	0.67
응봉면	38	2.71	0.77
덕산면	15	3.02	0.71
봉산면	32	2.77	0.60
고덕면	16	2.74	0.65
신암면	27	2.95	0.84
오가면	37	3.13	0.90
전체	484	3.11	0.74



<그림 26>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균 비교

12)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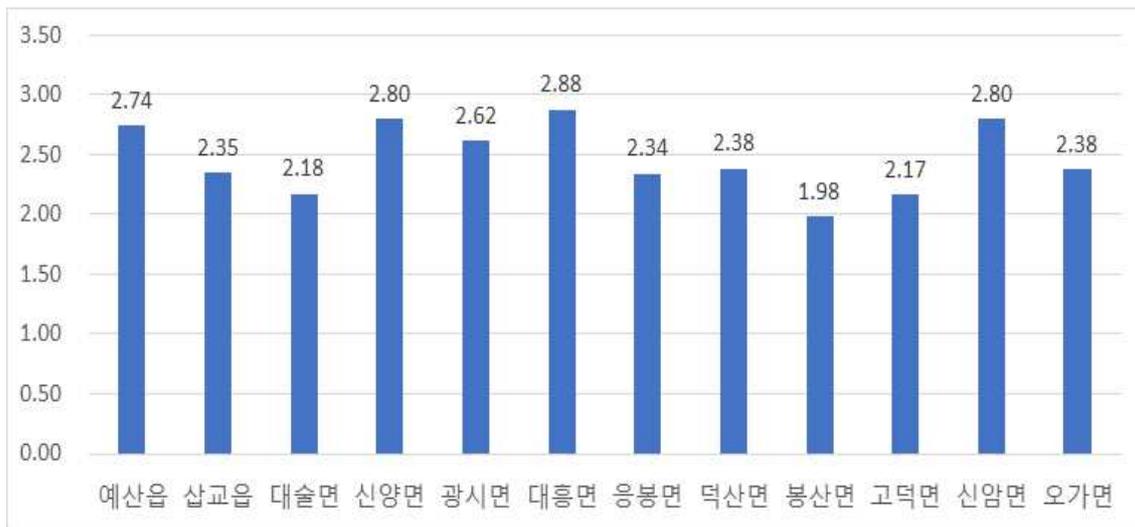
-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유아(아동) 치료를 위한 응급실 확보 정도’, ‘병의원 이동 경로의 안전성 및 편리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 ‘병원 내 편리한 공간 확보 정도’ 모두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응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바로 그 다음 순으로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아동 병원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들이 31.3%(159명),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들이 30.3%(154명)으로 높게 나타나 아동 전문 병원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흥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3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의견 분포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문항1	내가 사는 마을(지역)에 아동 병원이 있다	159	154	129	48	10	8
		31.3%	30.3%	25.4%	9.4%	2.0%	1.6%
문항2	내가 사는 마을(지역)에 유아, 아동 치료 가능한 응급실이 있다	119	139	154	74	14	8
		23.4%	27.4%	30.3%	14.6%	2.8%	1.6%
문항3	내가 사는 집에서 병의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86	136	188	66	26	6
		16.9%	26.8%	37.0%	13.0%	5.1%	1.2%
문항4	내 아이가 진료받는 병의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97	118	202	62	21	8
		19.1%	23.2%	39.8%	12.2%	4.1%	1.6%
문항5	내 아이가 진료받는 병의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39	58	72	26	6	307
		7.7%	11.4%	14.2%	5.1%	1.2%	60.4%

<표 64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거주지	N	M	SD
예산읍	140	2.74	0.84
삽교읍	121	2.35	0.85
대술면	6	2.18	0.78
신양면	11	2.80	1.15
광시면	33	2.62	1.05
대흥면	8	2.88	1.04
응봉면	38	2.34	1.01
덕산면	15	2.38	0.70
봉산면	32	1.98	0.70
고덕면	16	2.17	0.72
신암면	27	2.80	0.91
오가면	37	2.38	1.26
전체	484	2.49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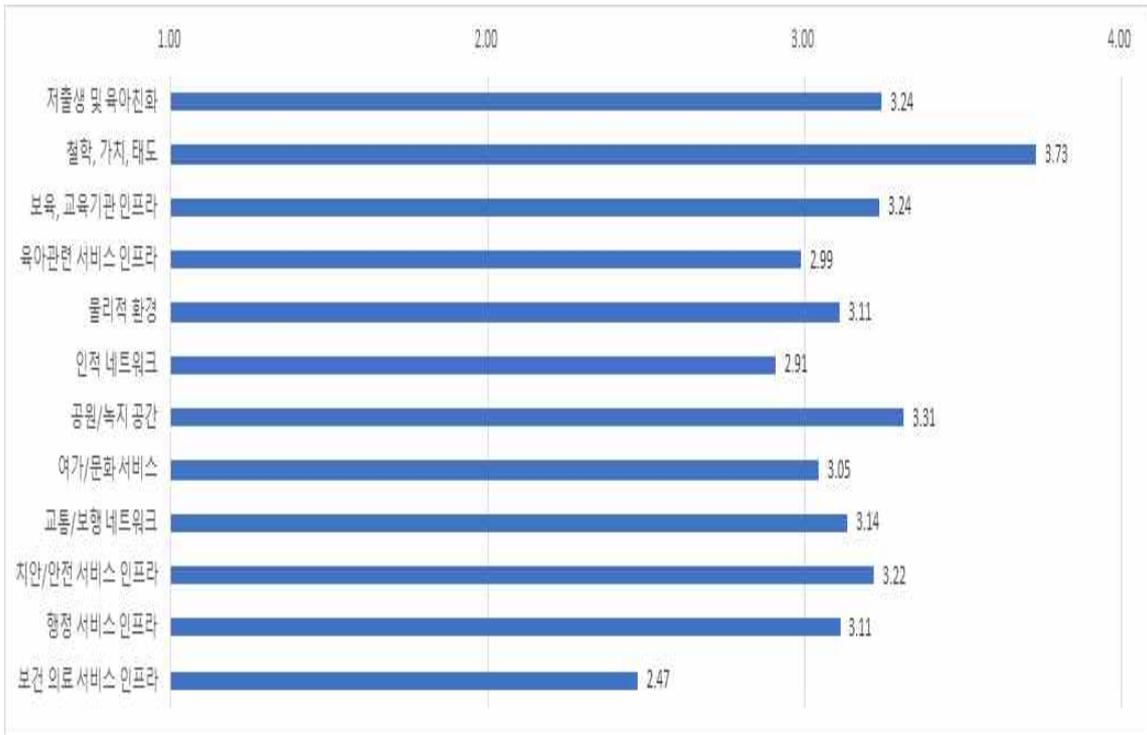
<그림 27>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균 비교

13) 양육 관련 12개 영역 의견 전체에 대한 비교

- 양육관련 전체 12개 영역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 아이를 기르는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학, 가치, 태도에 대한 인식이 3.7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2.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5> 양육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평균 비교

양육관련 사항	N	평균	표준편차
저출생 및 육아친화	506	3.24	0.64
철학, 가치, 태도	506	3.73	0.76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496	3.24	0.71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499	2.99	0.82
물리적 환경	502	3.11	0.71
인적 네트워크	502	2.91	0.85
공원/녹지 공간	504	3.31	0.79
여가/문화 서비스	504	3.05	0.85
교통/보행 네트워크	503	3.14	0.78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504	3.22	0.79
행정 서비스 인프라	501	3.11	0.75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502	2.47	0.94



<그림 28 > 양육관련 의견의 평균 분포

□ 거주지별로 비교해 보면

- 예산읍은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여가/문화 서비스’, ‘교통/보행 네트워크’, ‘치안/안전 서비스’, ‘행정 서비스’ 6개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광시면은 ‘저출산 및 육아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아이를 기르기에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철학, 가치, 태도의 중요성’, ‘물리적 환경’, ‘공원/녹지 공간’의 4개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대흥면은 ‘보육(교육)기관 인프라’ 와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2개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표 66 > 거주지별 양육관련 의견 평균 분포

거주지	N	저출생 및 육아친화		철학, 가치, 태도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예산읍	140	3.36	0.65	3.85	0.65	3.50	0.67	3.30	0.85	3.35	0.75	3.22	0.83
삼교읍	121	3.23	0.56	3.73	0.72	3.07	0.61	2.91	0.62	3.10	0.52	2.92	0.61
대술면	6	2.81	0.57	2.86	0.96	2.83	0.84	2.91	0.64	3.26	0.60	2.87	0.85
신양면	11	3.29	0.47	3.42	0.76	3.19	0.52	2.95	0.62	3.36	0.60	2.60	0.70
광시면	33	3.52	0.39	3.92	0.65	3.42	0.57	3.16	0.78	3.40	0.66	2.91	0.98
대흥면	8	3.32	0.56	3.81	0.41	3.55	0.39	3.06	0.72	3.26	0.57	3.03	0.79
응봉면	38	2.82	0.72	3.50	0.95	2.80	0.81	2.57	0.85	2.81	0.65	2.68	0.92
덕산면	15	3.22	0.50	3.86	0.72	3.07	0.59	2.69	0.80	2.79	0.66	2.52	0.82
봉산면	32	3.23	0.47	3.81	0.66	3.19	0.56	2.58	0.50	2.63	0.53	2.27	0.73
고덕면	16	2.95	0.53	3.60	0.49	3.18	0.60	2.57	0.60	2.64	0.60	2.50	0.60
신암면	27	3.04	0.37	3.33	0.53	3.11	0.64	3.03	0.87	3.06	0.65	2.87	0.93
오가면	37	3.38	0.95	3.69	0.98	3.34	0.95	3.00	1.06	3.00	0.98	2.84	1.10
거주지	N	공원/녹지 공간		여가/문화 서비스		교통/보행 네트워크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예산읍	140	3.55	0.72	3.41	0.80	3.47	0.72	3.58	0.73	3.38	0.70	2.74	0.84
삼교읍	121	3.33	0.65	2.98	0.68	3.11	0.70	3.21	0.61	3.11	0.59	2.35	0.85
대술면	6	3.12	0.99	2.71	0.98	3.04	0.56	3.03	1.08	2.56	1.10	2.18	0.78
신양면	11	2.94	0.71	3.06	0.88	2.93	0.46	3.11	0.84	2.91	0.82	2.80	1.15
광시면	33	3.58	0.64	3.36	0.80	3.32	0.76	3.27	0.78	3.26	0.77	2.62	1.05
대흥면	8	3.35	0.56	3.13	0.57	3.41	0.40	3.25	0.71	3.10	0.67	2.88	1.04
응봉면	38	2.88	0.94	2.63	0.74	2.76	0.74	2.83	0.74	2.71	0.77	2.34	1.01
덕산면	15	2.74	0.72	2.61	0.61	2.85	0.60	3.07	0.64	3.02	0.71	2.38	0.70
봉산면	32	3.16	0.65	2.56	0.67	2.56	0.47	2.59	0.49	2.77	0.60	1.98	0.70
고덕면	16	2.68	0.64	2.46	0.51	2.48	0.60	2.59	0.68	2.74	0.65	2.17	0.72
신암면	27	3.14	0.93	3.00	0.91	3.06	0.67	2.81	0.74	2.95	0.84	2.80	0.91
오가면	37	3.28	1.04	3.00	1.21	3.08	1.04	3.27	0.99	3.13	0.90	2.38	1.26
전체	484	3.30	0.79	3.05	0.84	3.13	0.77	3.20	0.78	3.11	0.74	2.49	0.93

<표 67 > 거주지별 12개 양육 관련 영역에 대한 만족도 비교 표

12개 양육 관련 영역	예산읍	삼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양면	오가면
저출생 및 육아친화			▽		▲							
철학, 가치, 태도			▽		▲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	▽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						▽			▽		
물리적 환경					▲				▽			
인적 네트워크	▲								▽			
공원/녹지 공간					▲				▽			
여가/문화 서비스	▲									▽		
교통/보행 네트워크	▲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								▽	▽		
행정 서비스 인프라	▲		▽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			▽			

▲ :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 ▽: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

7. FGI 결과 및 해석

가.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지 FGI

1) FGI 목적

-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읍,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예산군민 육아친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을 통하여 양적조사(How much)에 앞서 육아친화 전반에 대하여(What, Why, How)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조사의 목적은 예산군 육아친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육아친화 관련 전반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개선방안의 수립과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육아친화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군의 육아친화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육아친화 개선 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FGI 특성

□ 표적집단의 특성

<표 68> FGI표적집단의 특성

구 분	내 용	비 고
참가 대상	예산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는 군면 대상	별첨: 참가 신청서
집단의 성격	동질적 집단	읍면 균등 배정
장소	예산군청 회의실	녹화시설
소요시간	1-2시간	
기록	전문가 기록	녹음기, 사진 등
관찰	면접 전문가	관찰 및 참가자 대화 중개

□ 표적집단의 역할별 특성

<표 69 > FGI표적집단의 역할별 특성

구 분	내 용	비 고
참가자	자발적 의견 제시	
진행자 (Operator)	의견 주재, 라포형성, 자유로운 참여 유도	자유토론
모집(Recruiter)	예산군청 담당 직원의 협조	읍,면 동수 배정원칙 및 자발적 참여 유도
전문모니터	면접 내용 녹음 및 녹화	녹음기, VTR, 사진 등 기록

3) FGI 질문지 구성

<표 70 > FGI 질문지 구성

과정	핵심 주제	주요질문	부가질문	인터뷰 결과
도입단계 (Warm-up stage)	자기 소개	1.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1. 본인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연령, 성별 등 소개해 주세요.	박○옥/64세 여/광시면/21년거주/2명 이○정/42세 여/신암면/15년거주/1명 김○선/44세 여/대술면/ 8년거주/3명 주○숙/44세 여/응봉면/15년거주/3명 곽○연/44세 여/예산읍/17년거주/3명 김○지/42세 여/오가면/ 7년거주/3명 양○석/56세 남/오가면/20년거주/3명 이○연/41세 여/봉사면/ 2년거주/2명 이○미/40세 여/삼교읍/ 7년거주/2명 장○희/60세 여/응봉면/20년거주/3명
소개 단계 (Bridge stage)	예산군 육아정책인식 정도	1. 예산군의 육아정책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1. 예산군의 육아정책, 환경, 시설, 이용편리성,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1. 예산군의 육아정책, 환경, 시설, 이용편리성,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부인과 및 소아과 부족으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가 미흡. - 보육시설은 일부 있지만, 방학 중 돌봄 공백 및 돌봄 시간 제약이 심각. - 육아 관련 지원금은 확대되었으나, 정책 활용률이 낮고 체감도가 낮음. - 교통 및 시설 접근성이 부족하여 읍내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 ■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있는 복합시설 확대 및 차량지원.
	3. 육아 철학, 가 치 태도 에 대한 의견?	1. 자녀를 기 르는 가족 에 대한 기 대나 환영 정도 2. 양 성 평 등 육아문화?	<p>1.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기대나 환영 정도</p> <p>■ 주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늘어나며 이들에 대한 포용 정책 강화 필요. -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자녀를 둔 가족의 정착 유도. <p>■ 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p>2. 양성평등 육아문화?</p> <p>■ 주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아버지의 육아 참여 부족으로 인해 양성평등 육아문화가 부족. -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인식 개선 필요. <p>■ 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육아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1. 보육기관의 만족도 2. 보육시설이 충분한가 (야외/놀이) 3. 보육환경의 안정성은?	<p>1. 보육기관의 만족도 및 시설이 충분성 (야외/놀이)</p> <p>■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은 존재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이 낮음. - 놀이시설 및 야외 활동 공간 부족. <p>■ 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 면 단위 2지역에 소규모 놀이 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 겨울철 빙상장,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 계절별 놀이시설 조성. <p>2. 보육환경의 안정성은?</p>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공백, 시설 운영 시간 부족 등 안정성 저하 요인 존재. <p>■ 정책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및 재량휴일 동안 돌봄 서비스 운영 확대. - 등학원 어린이 안전 강화(교통안전, 시설 내 CCTV 설치 확대).
	4. 육아관	1. 육아지원기	1.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편리성

	<p>런 지원 기관의 인프라</p>	<p>관(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이용 편리성은? 2. 자녀들의 문화공간(도서관, 체육시설, 놀이터 및 의료기관 등)은?</p>	<p>■ 현황: -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접근성 부족. - 읍내 중심으로만 편중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전무함.</p> <p>■ 정책 방향: - 면 단위 육아지원센터 확충 및 모바일 예약 서비스 도입. - 읍내와 외곽 지역 간 교통망 연계를 통해 접근성 강화. -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 강화.</p> <p>2.. 자녀 문화공간(도서관, 체육시설, 놀이터 및 의료기관)</p> <p>■ 문제점: - 농촌 지역 문화공간 부족, 읍내 시설 집중. - 의료시설 부족으로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차량 지원 없음.</p> <p>■ 정책 방향: - 어린이 체육시설, 소규모 도서관, 문화 놀이 공간 확대. -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 아동 전문 의료기관 확충. -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 커뮤니티센터 시설 활용 및 수익성 운영 허용.</p>
	<p>5. 치안관련 인프라</p>	<p>1. 유모차 등 이용 편리성은? 2. 교통 안전 시설은? 3. 방법, 경찰, CCTV 등 안정성은?</p>	<p>1유모차 등 이용 편리성 및 교통안전 시설</p> <p>■ 문제점: - 유모차 이동에 불편한 인프라. - 자전거 전용도로 및 킥보드 관련 안전 대책 부족.</p> <p>■ 정책 방향: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유모차 전용길 설치. - 킥보드 사용 규제 및 안전 대책 강화</p>
	<p>6. 보건관련 인프라</p>	<p>1. 아동 전문 병, 의원은? 2. 아동 관련 진료서비스는?</p>	<p>1. 아동 전문 병원 및 진료 서비스</p> <p>■ 현황: - 아동 전문 병원 및 의원 부족. - 보건소 의사 배치가 제한적(주 3회 운영 등).</p> <p>■ 정책 방향: - 읍내 중심의 아동 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 내 순회 진료 시스템 도입.</p>

<p>종결 단계 (Ending stage)</p>	<p>기타 사항</p>	<p>1. 육아친화 관련 건의사항은?</p>	<p>1. 육아친화 관련 건의, 개성, 발전 방안은?</p>	<p>1. 육아친화 관련 건의 및 발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교 장점을 살려 교육 품질 강화. - 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조성으로 젊은 층 유입. - 24시간 어린이집보다는 부모와 아이 간 시간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추가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 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 지역 내 유아 교육 및 돌봄 지원 포털 구축. - 농촌형 육아정책 모델 개발(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활용).
---------------------------------	--------------	--------------------------	-----------------------------------	---

VI.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 모델 및 제언

1. 정책 모델 및 제언

가.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의 방향

□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 즉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한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적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육아권과 아동권의 존중

- 무엇보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서는 육아의 주체인 부모의 육아권과 성장하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동체 철학과 가치의 공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양육하는 가정이 생활공간 안에서 육아로 인한 차별이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육아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 또한 부모가 양육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덜고,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이 주거단지에 구현될 필요가 있다.

2) 수요자 참여 확대

- 주거 단지는 삶의 기반이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거주하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은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정도가 거주민, 수요자의 시각에서 진단되고 그 개선점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주거단지 조성 또는 개선 준비 과정에 수요자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거단지 내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육아친화 체크리스트를 통한 진단 설문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3)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강화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함께양육하는 이웃이 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 시 긴급 지원도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거단지 내에서 육아 관련 네트워크의 구성을 지원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4) 주거단지 특성 반영

- 주거단지에서 육아친화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인구구성, 조성 시점 등 주거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은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특성으로 자녀들의 연령별 요구가 담겨야 하며,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조성 단지와 기존 주거단지에도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 모형

- 본 연구는 육아친화 명품도시의 조성은 대상 주거단지의 선정,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적 요소 진단, 진단을 통한 개선점 도출, 육아친화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도출한 개선방안의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 가능하다. 기존 주거단지의 경우는 이미 형성된 인프라와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지는 반면, 신규단지의 경우는 주택 공급 계획 단계부터 육아친화 특화 단지로 공급을 기획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주거단지와 신규 조성 단지에 따라 그 접근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기존 단지)과 주택 공급 주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신규 단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다.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성 증진 방안 모색

- 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견된 부족 부분을 확인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철학과 가치의 공유 방안, 물리적 환경의 조성 및 개선방안,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방안,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도 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2. 육아친화 명품도시 모델 제시

모델 1. 예산군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1. 프로그램- 육아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양육지원, 돌봄, 상담 등 코디네이터 등
2. 상담- 육아관련 상담, 다문화 자녀 상담, 육아교육 상담 등
3. 자녀양육 지원-보육 등

1)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 육아 자원 수집 및 관리: 우리 마을의 생생한 인적·물적 자원 및 어린이집 정보 제공,
- 육아상담 및 육아 고민해결.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 및 애로 사항 상담.
- 출산·전입 가정에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동의를 받아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시기별 필요한 정보 제공, 가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 가정의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
- 부모 자조모임 지원: 관심사가 비슷한 부모들끼리 구성된 ‘부모 자조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제 역할.
- 특성화사업 운영: 영유아 양육부모의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성화 사업운영

2) 주요 내용

- 지역 내 다양한 육아와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을 서로 잘 연계하고 관리하여 모든 양육자에게 ONE-STOP 육아정보를 제공.
- 지역내에서 영유아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도서관, 부모교육프로그램, 영유아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양육자들에게 1:1 맞춤형 정보를 제공.
- 자원관리(각종 육아자원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 등), 상담(전화상담, 현장상담, 온라인상담 - 육아카페, SNS) 등 일반가정, 출산전입가정, 취약가정에게 정보제공, 부모자조모임 결성 및 지원, 보육반상회 운영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형성, 육아정책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각종 홍보.

모델 2. 예산군 육아지원 상담 센터(영유아보육지원센터 연계)

- 4. 프로그램- 육아 강좌, 음식강좌, 그림책 강좌, 구급법 강좌, 육아교류 동아리 운영, 육아모임 교류 등
- 5. 상담- 육아관련 상담, 다문화 자녀 상담, 육아교육 상담 등
- 6. 자녀양육 지원-보육 등

□ 정의: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이다(영유아보육법 제7조).

1) 설립목적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장난감 및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2)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 예산군공동육아나눔터 현황
- 개소일 : 2024. 10. 18.
- 장 소 : 예산군가족센터 내(예산읍 산성길 10, 1층)
- 면 적 : 75m²
- 예 산 : 29,122천원
- 내 용 : 돌봄공동체, 돌봄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3) 역할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 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

4) 주요 내용

- 건강한 영유아-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감 및 도서 제공, 놀이 체험실,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 등
- 신뢰받는 상담센터-전문성 강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원활한 운영 지원 등
- 행복한 가정-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양육지원, 육아나눔터 제공, 영유아 부모 간 소통 증진 등
- 함께하는 지역사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포괄적 육자 전문 지원, 육아 지원 전달체계 마련, 지역사회 요구 반영 및 정책 강화

모델 3. 예산군 육아마을 돌봄공동체 확대

1. 프로그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배움터, 마을의 주민으로 성장 등
2.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마을의 자원 활용, 학교와 네트워크 형성 등
3. 문화활동- 다양한 문화 활동 공유 등

1) 정의

- 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사각 시간을 해소하여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새로운 돌봄 문화를 조성함, 이를 통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음.

2) 설립목적

- 기관 보육·교육 위주의 육아지원정책 하에서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다른 보육·교육 이념을 추구하거나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보육 수요를 지닌 부모들에 주목하여 이들 육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데 있음.

3) 사업내용

- 마을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함.

* 유휴공간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돌봄사업은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4)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 현황

시설현황

- 개 소 일 : 2020. 1. 13.
- 시 설 명 :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 위 치 : 예산읍 임성로 28
- 면 적 : 200m²
- 운영법인 : 은혜도서관(관장 성연수) ※ 민간 위탁
- 종사자수 : 총 3명
 - 센터장 1, 돌봄교사 시간제 2
- 이용정원 : 20명

5) 기대효과

-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예산군! 많은 주민공동체가 참여해서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하며 이웃이 서로 소통하면서 약해져가는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모델 4. 예산군 육아친화마을(Childrearing-friendly Village)(가칭)

1. 지원- 육아가구 지원하는 가치 공유,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환경 등
2. 프로그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3. 인프라 구축-보건, 의료, 문화, 교육, 돌봄, 교통, 보행, 녹지, 공원, 여가 등

1) 정의

- 생활환경 안에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여 육아환경이 마을단위에서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로 다른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육아)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

2) 목적

- 육아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형성.

-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 마련.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조성

3) 주요내용

- ‘육아 코디네이터’가 거주하는 동네/마을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서로 요구가 맞는 부모들을 연결해 주며, 육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함
- ‘예산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공간재생 시 지역의 육아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기능적 복합 공간 마련 및 육아친화 네트워크 지원을 제안.
- 도시재생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중 도시 성격의 지역은 기존 인프라의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특징.
- 도시재생지역에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 돌봄 인프라 등 직접 자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공급률을 높이되, 간접 자원에 대해서는 신규 인프라를 공급하기 보다는 기존인프라의 배치 조정이나 시설 개선, 대안적 시설접근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

4) 조례 제정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이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육아친화마을조성 개념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특징을 반영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육

아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

-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처럼 법률적 근거 없이도 그리고 인증 이후 재정적 지원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조례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모델 5. 예산형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1.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등
2. 프로그램: 아동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 및 문화활동, 각종 서비스 등
3. 내용: 정기돌봄, 일시돌봄, 등·학교 지원, 각종 서비스 등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2019.4.16.시행),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학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지

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목적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다함께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 저출산,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3) 필요성

- 맞벌이 가정의 증가 : 2024년 기준, 맞벌이 가정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죠. 다함께 돌봄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기존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센터를 운영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더욱 촘촘한 돌봄망 형성

4) 예산군 운영 현황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 개 소 일 : 2020. 1. 13.
- 시 설 명 :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 위 치 : 예산읍 임성로 28
- 면 적 : 200m²
- 운영법인 : 은혜도서관(관장 성연수) ※ 민간 위탁
- 종사자수 : 총 3명
 - 센터장 1, 돌봄교사 시간제 2
- 이용정원 : 20명

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 개 소 일 : 2024. 4. 25.(목)
- 시 설 명 :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 위 치 : 삼교읍 목리 889번지(삼교읍 내포출장소 2층)
- 면 적 : 470m²
- 운영법인 : 하늘꿈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태규) ※ 민간 위탁
- 종사자수 : 총 6명
 - 1호점 : 센터장 1, 돌봄교사 종일제 1, 시간제 1
 - 2호점 : 센터장 1, 돌봄교사 종일제 1, 시간제 1
- 이용정원 : 70명 (1호점 35명, 2호점 35명)

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 개 소 일 : 2024. 6. 11.(화)
- 위 치 :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11. 이지 3차 311동 1층
- 면 적 : 212.89m²
- 운영법인 : 우리의 꿈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문수)
- 종사자수 : 총 3명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종일제 2명)
- 이용정원 : 50명

5) 내용

- 정기 돌봄 : 방과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센터에서 숙제 지도, 놀이 활동, 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일시 돌봄 :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
-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 지역 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동의 특기와 적성 개발을 지원합니다. 예체능, 과학, 독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
- 등·하원 지원 : 필요한 경우 안전한 등·하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섬세한 배려
- 돌봄 정보 제공 : 지역 내 돌봄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최적의 돌봄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모델 6. 신혼 및 육아 공무원 지원

1. 프로그램- 임신기 공무원 주 1회 재택 근무, 1일 2시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 마련,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 양육 등 5일 범위 특별 휴가 또는 자율 휴가, 출퇴근제 실시, 복지포인트 등
2. 지원- 자녀 출산, 둘째 이상, 임신부(축하 선물), 장기적 가사도우미 등
3. 문화활동- 다양한 문화 활동 공유 등

1) 목적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

- 저연차 공무원과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 필요

2) 내용

- 우선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
-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 취지
-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
-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 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
-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
-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

3) 예산군 주 4일 출근제 자율 시행 추진 현황

- 일과 가정양립,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
주4일 출근제 자율시행 추진계획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힘센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MOU 체결(2024.5.14.)
- 충청남도 운영지원과-18089(2024.6.7.)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계획 알림”

(2) 기본 방침

-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이 주4일 출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 근무기강의 확립
 - 주4일 출근으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유연근무(주4일 출근제)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3) 추진개요

- 대 상 : 만2세 이하(35개월까지)의 자녀를 양육중인 직원
- 유 형 : 주4일 사무실 근무, 1일 재택근무
 - 자녀돌봄을 위해 필요시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재택근무 실시
- 신 청 : 최소 1일 이상, 1주일 단위로 신청
- 수당체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재택근무일은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 (정액분은 지급가능)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
-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 재택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재택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재택근무일수, 근무경력 등 감안하여 결정
 -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택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 관리
 -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 관리
 - ※ 가급적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

(4) 행정사항

- 주4일 출근제 유연근무 희망자 수요조사(~6.14.)
- 주4일 출근제 자율시행 추진계획 시달 및 시행(7.1.~)
-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유연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 ※ 복무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총무과와 협의하여 해당공무원

의 재택·유연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및 행정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철저히 준수

4) 기대효과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5) 강진군 사례

강진군은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한 아이당 월 60만 원씩 최대 50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육아수당을 비롯해 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 및 육아 단계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을 지원하며,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출산용품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출산 가정에는 △7세까지 육아수당 월 6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산후조리비 154만 원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는 가정이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키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델 7.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예산군 주 4일 출근제 자율 시행과 연계)

1.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커뮤니티 시설, 육아교육 특화 시설 등

1) 목적

-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함.
-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실제 도움.
-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거 품질도 보장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에서 출산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지원을 통해 생애 주기 전반의 주거 안전성을 높여야 함.

2) 내용

-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공급

3) 충남 꿈비채 예산주교 행복주택 추진 현황

■ 공고개요

공 고 명	충남 꿈비채 예산주교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선착순 모집
공 고 번 호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2023-36
공 고 일	2023.4.14.(금)

■ 접수방법

접 수 기 간	000 ~ 모집완료 시
접 수 방 법	현장접수(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별도공지함) ※ 선착순모집으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당일 계약체결 후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 실시함
접 수 장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충청남도개발공사 건물)

■ 공급정보

소 재 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13	총 세 대 수	87
전 용 면 적 (m ²)	44.77m ²	금회모집세대 수	30
난 방 방 식	개별난방	입주 예정일	2023년 7월 예정

■ 공급대상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공급유형 (블럭명)	공급대상	전용면적(m ²)	공급호수	해당동	최 대 거주기간(년)
계			30		
44A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4.7738	10	102동	6~10
44A-1		44.7738	5		
44B		44.7738	15		

4) 기대효과

- 신혼희망타운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됨.
- 신혼희망타운은 '저렴한 주거비용(분양가, 임대료)', '신축 아파트의 쾌적함', '교통 등 이동이 편리한 입지' 등

모델 8.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힘센충남 365×24) 어린이집 운영 예정과 연계)

1. 24시간제 어린이집 특별 지정-평일 오후 6시-자정,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기 까지 운영

1) 목적

- “아이가 없으면 교육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출장이나 야근, 입원 등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 생길 수 있는 보육 공백에 부모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평일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용
- 이용 대상은 6개월부터 5세 이하 긴급 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로 이용료는 없음.

2) 힘센충남 365×24) 어린이집 운영 예정

(1) 24시간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

- 24시간 보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
 - (365×24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184백만원
 - 2025.1. ~ 2026.12.(2년),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 설치·운영
 - 0~5세 영유아 평일 야간(18시~익일 9시), 주말·휴일(9시~18시) 운영
 - (365×24 아동돌봄센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24. 9월 개소 예정)
 - 2025. 10. ~ 계속, 24시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평일(7시~9시, 19시~22시), 주말·휴일(9시~18시) 운영 * 돌봄 수요 발생 시 22시 이후도 운영

(2)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 보육·돌봄 체계 구축

○ 공공보육(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개소, 110백만원)

- (~'25. 6월)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리모델링 추진

- (~'25. 9월) (가칭)대광로제비앙 어린이집 개원(정원 37명 예정)

○ 초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1개소, 105백만원)

- (~'25. 6월)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리모델링 추진

- (~'25. 9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대광로제비앙APT 내) 개소(정원 20명 예정)

3) 달성군 사례

대구 달성군이 지역 최초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간다. 달성군은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2곳과 함께 365일 24시간제 보육 사업 운영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24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 다양한 근로 형태나 긴급한 사유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이다. 이용 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세~만 5세 영유아이며 이용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이 원칙이다. 보육 장소는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현풍)와 해피아이어린이집(다사), 꿈터어린이집(화원)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의 시간당 자부담 1000원, 야간(오후6시~다음날 오전 9시) 및 주말에는 시간당 자부담 4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24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급·간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현재 제공기관으로 전화 예약 후 예약 시간에 방문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달성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넷 예약 시스템 구축 작업도 완료로 앞두고 있다. "보육시설 자체의 증가보다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보육의 과제에 대해 달성군이 빠르게 맞춰가는 새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 9. 산업체 근무 육아 지원 정책

1. 임신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예산 지원,
2.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예산 지원 등

1) 목적

- 임신·육아기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
- 일·가정 양립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2) 주요 내용

-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금리 우대, 정부의 물품 구매 시 가점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 유연근무나 육아 지원 제도 활용이 우수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
- 선정 기업에 대해선 각종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서울시 사례

서울시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위라벨'(일·생활 균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65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는 특히 '육아지원·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문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청년이 선호하고 육아 친화적인 기업에는 시가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내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위라벨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경영 역량, 일자리 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 기업에는 ▲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4천500만원)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6명·최장 23개월) ▲ 위라벨 교육·컨설팅 ▲ 재직청년 직장적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근무환경 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강검진비 등의 목적으로 써도 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을 통해선 양육자의 업무공백 부담을 해소하고 구직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 청년(18~34세)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번아웃)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입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 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에 나선다.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자기 계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며 “중소기업 내 육아친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델 10. 스마트시티(Smart city) 리빙랩(Living lab) 육아 지원 정책

1.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데이터 수집이 삶의 질은 물론 도시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시 지역
2. 지자체가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이 있음
3.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르는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 합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1) 목적

-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대로 출발한 스마트시티는 도시 집중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명 도입과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향
-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모색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 인구에 집중되고 있는 아동과 청장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
- 스마트시티의 추진 방향이 인간 중심의 기술구현이 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ICT, IoT 및 기타 스마트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운영 영역에는 교통, 에너지 및 인프라가 포함.
- 도시가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시스템과 구조를 업데이트함에 따라 도시는 더욱 스마트해 짐.

3) 추진방향

- 모빌리티-공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공유 모빌리티) 카셰어링, 카헤일링, 스마트 주차장 등(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 모바일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등
- 헬스케어-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데이터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City as an Extended Hospital), 스마트 응급호출, 드론 활용 응급키트 발송, 긴급호송 교통 최적화, 응급차 내 원격지도, AI 스마트 문진,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개인 건강정보 축적, 병원 간편예약 서비스 등
- 교육-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창업과 취업 을 위한 생애교육을 제공 (City as an Extended School), 창의적인 학교설계, 3D 프린터, 로봇 팔 등 메이킹 공간 마련, 국제 표준 수준의 교육 체제 도입, 에듀테크 활용,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평가시스템,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 등
- 에너지/환경-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 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도시” 조성, CEMS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시미관을 고려한 Solar Energy City 조성, 연료전지 시범사업, Mobility 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음식쓰레기 자원화 등
- 거버넌스-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인센티브로 시민참여 촉진 시민소통채널, 리빙랩 플랫폼, 사회공헌 플랫폼 운영,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M-Voting, 디지털 트윈 도입

- 문화/쇼핑-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제공 관객 맞춤 기획 및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품추천 서비스, 지역 화폐 결제시스템, 쇼핑도우미, 자율주행 쇼핑카트, 무인배송 시스템, 스마트 물품보관 서비스 등
- 일자리-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 지속가능성을 확보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구축, 창업지원 지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업·융합 촉진, 스타트업 지원, 해외교차실증, 도시 해외수출 등

3. 기존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23. 5월 개정)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안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가칭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조례 제정

가. 기본조례 마련

1) 가칭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저출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만 투입할 것도 아니며, 육아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연결하여 국가 전체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도 뒤따라야 한다. 가칭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까닭이다.

조례 제정과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어떤 법제 구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

- 예산군에서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 조례의 근거

-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 조례의 법적 근거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장 제1절

- 저출산 대책 중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

나)육아친화마을 조례의 구성 요소

- 여성친화도시 또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참고하면,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 조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담아야 한다.
 - (1) 조례의 명칭: 조례의 명칭에는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가칭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로 이름 붙일 수 있다.
 - (2)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위원회: 거버넌스기구로서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3) 전담공무원 또는 전담부서 문제: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는 전담공무원과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육아친화 명품도시 전담공무원과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상 여의치 않다면,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정담당관을 두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조정담당관의 행정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한다.
 - (4) 육아친화예산: 육아친화 명품도시 예산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 (9) 육아친화 명품도시 기본계획: 실태조사, 영향평가, 예산제도, 참여 제도,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후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3) 가칭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예시)

「○○○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 등 육아를 하는 사람이 아동을 키우기 행복하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친화 명품도시”란 온 마을(도시)이 영유아를 기르는데 필요한 철학, 공간,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2. “영유아”란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다만, 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6세 이상의 아동까지 영유아의 범위를 확장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3. “육아”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육아친화 명품도시의 이념)
① 육아친화 명품도시는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을 환대하고 마을의 인적 협조 관계를 증진하며 공원녹지·여가문화·보건의료·교통보행·치안안전·행정서비스 등 마을의 기반시설 전체를 육아친화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육아친화 명품도시는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모든 영유아와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인적 관계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등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적 협조관계 구축, 물리적 환경 조성,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 등에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단체장은 육아친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과 보호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육아친화마을 추진위원회
제6조(육아친화마을 조성 위원회 설치)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 육아친

화마을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육아친화마을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육아친화마을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육아친화마을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친화마을과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체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및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육아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단체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업무 소관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육아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 ① 회의는 분기당 1회의 정기회의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단체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육아친화마을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육아친화마을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13조(계획수립 등)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아친화마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그리고 추진체계
 2.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주요 정책과제와 사업별 추진계획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
 3. 육아친화마을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마을간 및 지역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내용

제14조(계획의 실시 등)

- ① 육아친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육아친화마을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육아친화마을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는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육아친화마을 주무부서 또는 담당자는 육아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 등)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육아친화마을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시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 평가를 받는다.

제16조(육아영향평가 실시)

- ① 단체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육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육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육아 관련 사업으로서 단체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단체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육아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 ② 육아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육아친화예산)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단체장은 육아친화예산이 여성친화예산 및 아동친화예산과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육아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단체장은 육아친화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지표(이하 “육아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9조(육아친화마을정책 기획조정회의)

- ①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획과 전 행정부서의 협력과 정책조정을 위하여 육아친화마을정책 기획조정회의(이 조에서 “기획조정회의”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 단체장은 기획조정회의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부단체장과 전 행정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조정회의는 육아친화마을 추진위원회와 연 2회 이상 연석회의를 한다.

④ 육아친화마을 담당부서장이 기획조정회의의 간사가 된다.

제20조(추진실적의 평가) 단체장은 매년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단체장은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23), 예산군.
- 강은진 외(2020). 육아친화환경 스마트시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강은진 외(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Ⅱ), 육아정책연구소.
- 강하라(2022).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시범사례 적용 및 발전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국환경과학회지, 23(7), 1339-1347.
- 권미경 외(202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 외(2021).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Ⅲ), 육아정책연구소.
- 김도희(2017).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가족친화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울산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2), 91-130.
- 김숙하(2014). 아동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경(2013). 친환경 실외 놀이터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2), 120-130.
- 김자경(2014). 국내 상상 어린이 공원의 친환경성 평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4), 169-180.
- 김혜경(2017). 지역사회 육아 친화 환경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탐색,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박경옥(2017).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친육아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1), 95-107.
- 노원구와 강남구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6), pp.

33-40.

- 박금식·박지영(2018).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소현(2006). 가족친화마을환경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소현(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전자(1997). 주거단지 계획의 원리 및 방법론. 세진사.
- 박현선(2020). 놀이친화적 환경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놀이공간 조성과 지역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9(2), 175-201.
- 변기동·하미경(2015).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환경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어린이 안전을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33, 25-36.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서울특별시. 양동양(1993). 도시·주거단지계획. 기문당.
- 선보영(2004). 한국과 일본의 가족친화적 기업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81-198.
- 유니세프(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윤용한·주창훈·박현·김정호(2014). 가로변 완충녹지의 조성유형에 따른 음이온 농도 비교 분석. 한
- 이미화(2019).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 이운진(2015).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 이현정·정대현(2017). 숲교육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51-70.

- 정소이·조승연·박준영·조상희(2016).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정소이·최은희·박서경(2018).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지원. 2018-164.
- 정혜은(2022). 인천시 육아친화 환경 조성 방안, 인천연구원.
- 제5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22), 예산군.
- 제60회 예산군 통계연보(2023), 예산군.
- 조해송(2020). 자녀 출생과 육아친화환경 간의 관련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최두호(2007). 주거단지 계획 이론의 변천과 계획요소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병숙·박정아(2017). 도시지역 자연발생 노인커뮤니티(NORCs) 가능지역의 주거환경특성-서울
- 최수경·석주영·박인전(2013).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최아수(2019). 아동친화도시의 종합 평가지표 수립과 공간 분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김현경 (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 최진호(2018).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아동친화환경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화·박금식·손주영(201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8_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2018),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운영방안 제안. LH.
-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assve, A., Iacovou, M. & Mencarini, 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5, 21-50.
- Barkley, David L., Mark S. Henry & Shuming Bao. (1998). The role of local school quality in rural employment and population growth. *Review of Regional Studies*, 28(1), 81-102.
- Bayoh, Isaac, Elena G. Irwin & Timothy Haab. (2006). Determinant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How important are local public goods in attracting homeowners to central city location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6(1), 97-120.
- Bell, J. F., Wilson, J. S., & Liu, G. C. (2008). Neighborhood greenness and 2-year changes in body mass index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5(6), 547-553.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 Bernard, A., Bell, M. & Charles Edwards, E. (2014). Life course transitions and the age profile of internal 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0(2), 213-239.
- Breo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oll, P., Witten, K., & Kearns, R. (2011). Housing intensification in Auckland, New Zealand: Implications for children and families. *Housing Studies*, 26(03), 353-367.
- Chen, K., Deng, J., Liang, G., Fang, D., & Zhu, H. (2016). Effects of landscape tree species and their arrangement on PM 2.5 sedimentation-A case study of Beijing, China. *Nature Environment and Pollution Technology*.
- DeWall, C. N., Visser, P. S. & Levitan, L. C. (2006). Openness to attitude change as a function of temporal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8), 1010-1023.
- Dong, N., Chen, J., & Zhang, S. (2017). Safety research of children's

- recreational space in Shanghai urban parks. *Procedia engineering*, 198, 612–621.
- Dzierżanowski, K., & Gawroński, S. W. (2011). Use of trees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n air. *Challenges of Modern Technology*, 2, 199.
- Freisthler, B., Thomas, C. A., Curry, S. R., & Wolf, J. P. (2016). An alternative 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 exploratory study of how activity spaces and perception of neighborhood social processes relate to maladaptive parenting. *Child & youth care forum*, 45(2), 259–277.
- Gleeson, B., & Sipe, N. (2006). *Creating child friendly cities*. London: Routledg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2018). *Australian: Apartment Design Guid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 Green, A. (2017).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internal migration. In T. Champion, T. Cooke & I. Shuttleworth (Eds.), *Internal Migration in the Developed World: Are We Becoming Less Mobile?*. *International Population Studies*, 31–55.
- Han, M. & Stone, S. (2007). Access to psycho-social services among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시범사례 적용 및 발전방안 296.
- Johnson, S. A., Snow, S., Lawrence, M. A., & Rainham, D. G. (2019). Quasi-randomized trial of contact with nature and effects on attention in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10, 2652.
- Marré, A. W. & Rupasingha, A. (2020). School quality and rural in migration: Can better rural schools attract new residen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60(1), 156–173.
- Mendez, I. (2008). *Intergenerational time transfers and internal migration: Accounting for low spatial mobility in southern Europe*. University of Murcia and CEMFI.
- Morris, E. W. & Winter, M. (1975).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79–88.

- Niedomysl, T. (2008). Residential preferences for interregional migration in Sweden: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geographical determinan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5), 1109–1131.
- Percy, S. L. & Hawkins, B. W. (1992). Further tests of individual-level propositions from the Tiebout model. *The Journal of Politics*, 54(4), 1149–1157.
- Percy, S. L., Hawkins, B. W. & Maier, P. E. (1995). Revisiting Tiebout: moving rationales and interjurisdictional relocation.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25(4), 1–17.
- Punpuing, S. (1993). Correlates of commuting patterns: A case-study of Bangkok, Thailand. *Urban Studies*, 30(3), 527–545.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Tillmann, S., Tobin, D., Avison, W., & Gilliland, J. (2018). Mental health benefits of interactions with nature in children and teenagers: A systematic review.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2(10), 958–966

<부록>

1.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예산군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에 대한 예산군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려고 작성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는 향후 예산군의 육아친화 명품도시 만들기의 소중한 기초자료와 조성방안에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가급적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00.

연구자: 안권순(한서대학교)

이메일: aksum@hanmail.net

핸드폰: 010-6382-9434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반드시 답해 주세요).

1. 다음은 기초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SQ2. 귀하의 나이를 만 나이로 입력해 주세요.

연령: 만 _____ 세

SQ3.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없음 ② 1자녀 ③ 2자녀 ④ 3자녀 ⑤ 4자녀 이상

SQ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예산읍() ② 삽교읍() ③ 대술면() ④ 신양면() ⑤ 광시면()
⑥ 대흥면() ⑦ 응봉면() ⑧ 덕산면() ⑨ 봉산면() ⑩ 고덕면()
⑪ 신암면() ⑫ 오가면()

SQ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1년~20년() ④ 21년 이상()

■ 다음은 양육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영유아기(만5세이하, 미취학)에 해당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Q1.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곳(사람)은 어디입니까?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④ 가정 양육 ⑤ 조부모님() ⑥ 친인척() ⑦ 기타()

Q2. 현재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곳(사람)은 어디입니까?

- ① 조부모님() ② 친인척() ③ 개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④ 기관 돌봄 서비스 종사자(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⑤ 사설학원(미술, 태권도, 피아노 등)() ⑥ 기타()

Q3. 현재 영유아기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자녀 양육을 분담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음()
② 주변에 이영 가능한 양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없음()
③ 이용 가능한 돌봄 지원(돌보미, 보육서비스 등)이 없음()
④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의 어려움이 있음()
⑤ 양육으로 인해 개인 성취(일, 경력 등)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⑥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
⑦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양육(자녀와의 관계 등)이 어렵게 느껴짐()
⑧ 기타()

Q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가까워서()
② 자녀의 조부모님 댁과 가까워서()
③ 조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줄 지인 또는 친인척이 가까이 있어서()
④ 자연환경이 좋아서()
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있어서()
⑥ 편의시설(쇼핑몰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⑦ 도서관 등 문화/여가 시설이 있어서()
⑧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어서()
⑨ 기타()

Q5. 귀하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환경임() ② 비교적 좋은 환경임()	☞ Q5-1로
③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임() ④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	☞ Q5-2로

Q5-1.(Q5에서 ①매우 좋은 환경임, ②비교적 좋은 환경임을 선택한 응답자만)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 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 ② 주변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또는 공원이 있어서()
- ③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④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편해서()
- ⑤ 범죄발생이 낮거나 유해환경이 없는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한 곳이어서()
- ⑥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 ⑦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친절해서()
- ⑧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에 돌봄 시설이 있어서()
- ⑨ 기타()

Q5-2.(Q5에서 ③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과 ④매우 좋지 않은 환경임을 선택한 응답자만)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 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이 멀어서()
- ② 주변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또는 공원이 부족해서()
- ③ 자연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④ 도로, 교통 등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 ⑤ 범죄발생이 높거나 유해환경이 등 자녀 양육에 안전하지 않아서()
- ⑥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 ⑦ 이웃이나 동네 주민이 불친절해서()
- ⑧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에 돌봄 시설이 부족해서()
- ⑨ 기타()

■ 지금부터 저출생 및 육아친화와 관련된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읍/면)의 인구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20~30대 젊은 세대가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예산군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이 '저출생'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이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예산군이 육아친화 환경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아이 기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각 내용이 아이 기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답해주세요.

철학, 가치, 태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양성평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게 구성되어 있다.(예시: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6.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양성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예시: 남성양육 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①	②	③	④	⑤

보육, 교육기관 인프라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숫자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보육(교육)기관의 급식수준이 만족스럽 다.	①	②	③	④	⑤
3. 보육(교육)기관의 보육(교육) 제공 시 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보육(혹은 교육) 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보육(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 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보육(교육)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보육(혹은 교육) 기관은 아이들이 생활 하기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육아관련 서비스 인프라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 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하 다.	①	②	③	④	⑤
2.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 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 다. (예시: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 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3.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쇼핑센터, 시장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소아과, 이비인후과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하다(교통, 보행도로 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물리적 환경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놀이터, 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찰 등 방범 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①	②	③	④	⑤
9.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환경(공기질, 수질 등)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하는 가정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공간, 소통의 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인적 네트워크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마을/동네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동네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동네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공원/녹지 공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공원/녹지 공간 이용비가 저렴하거나 무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①	②	③	④	⑤
5.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사는 마을에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원/녹지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9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①	②	③	④	⑤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다					
여가/문화 서비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여가/문화 공간 이용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①	②	③	④	⑤
5 여가/문화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사는 마을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교통/보행 네트워크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2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방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찰 등 방법 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①	②	③	④	⑤

4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을 길은 밤에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행정 서비스 인프라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내가 사는 마을(지역)에 아동 병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사는 마을(지역)에 유아, 아동 치료 가능한 응급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사는 집에서 병의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아이가 진료받는 병의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아이가 진료받는 병의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FGI 결과

예산군 육아친화 정책방향 FGI 내용 정리

1. 육아정책의 현황과 개선점

가. MC 질문 : 예산군의 육아정책, 시설, 환경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나. 주요 답변

- 젊은 층 부족: 예산군은 젊은 세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내포 지역과 비교해 젊은 층이 적고,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Speaker 4, 5)
- 육아정책 개선 필요: 참여자들은 출산 장려 정책이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제공되는 지원금이 증가했지만, 육아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Speaker 1)

다. 정책 방향:

- 젊은 층 유입:
 - ① 정주 여건 개선(산업단지 근처 주거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②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 육아정책 개선:
 - ① 셋째 이상 출산 장려금 추가 지원 및 사용처 확대(교육, 돌봄 등 실질적 혜택).
 - ② 육아 및 교육 지원 연계 플랫폼 구축(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2. 저출산 문제와 해결 방안

가. MC 질문 : 예산군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나. 주요 답변

- 경력 단절 문제 해결 :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나 정시 퇴근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현장 근무 환경에서 유연한 근무 조건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Speaker 4)
- 경제적 안정 :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안정 부족입니다. 안정적인 취업과 거주 환경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peaker 1, 2)

다. 정책 방향:

- 경력 단절 문제 해결:
 - ① 유연근무제 확대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② 육아와 병행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 경제적 안정 지원:
 - 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세금 감면 및 경제적 혜택 확대.
 - ② 지역 기업과 연계한 육아지원 기업 인증제 도입.
- 출산 가치관 개선:
 - ① 청년층 대상 결혼·출산 홍보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보육시설과 환경

가. MC 질문 : 보육시설과 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나. 주요 답변

- 돌봄 공백 문제 : 방학 중이나 재량휴일 등 예상치 못한 공백 기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직장맘들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Speaker 3)
- 소규모 학교 유지 : 소규모 학교(소학교)의 장점은 개인화된 교육과 선생님과의 친밀감으로, 대규모 학교에서 누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학교 폐교 정책 대신 장점을 부각하여 도시 아이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Speaker

3)

- 의료시설 부족 :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주요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응급상황 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Speaker 3)

다. 정책 방향:

- 돌봄 공백 해소:
 - ① 방학 중 돌봄 서비스와 탄력적 운영 시간 도입.
 - ② 유아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돌봄 확대.
- 소규모 학교 유지 및 활용:
 - ①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대안적 교육 모델 개발(1:1 멘토링).
 - ② 도시 지역과 연계해 전학생 유입을 유도(농촌 유학 프로그램).
- 의료시설 확충:
 - ① 산부인과 및 소아과 신설 및 지역 순회 진료 체계 구축.
 - ②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 의료지원 강화.
 - ③ 읍내 중심의 아동 의료서비스 확대.(지역 내 순회 진료 시스템 도입.)
 - ④ 읍 면 단위 도서관 또는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활용한 공공 산후조리 및 육아 등 친화적 복합 육아 공간 마련.

4. 놀이 및 문화시설

가. MC 질문 : 자녀를 위한 문화공간 및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주요 답변

- 겨울철 놀이시설 : 겨울철 야외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 서산과 아산처럼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거나, 눈썰매장 등 계절에 맞는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Speaker 5)
- 복합시설 필요 : 지역 내 어린이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가족 단위의 문화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공공 산후조리원, 다목적 놀이

시설 등이 구축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Speaker 8)

다. 정책 방향:

- 계절별 놀이시설 조성:
 - ① 겨울철 빙상장, 여름철 물놀이장 등 계절 놀이가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 ② 기존 놀이공간 개선 및 지역 중심에 분산 배치.
- 복합시설 신설:
 - ① 공공 산후조리 및 육아 등 친화적 복합 육아 공간 마련.
 - ② 가족 중심 문화 활동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 및 체육시설 구축.
 - ③ 문화시설 참여율 향상을 위한 차량 지원 확대

5. 교통 및 접근성

가. MC 질문 :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나. 주요 답변

- 자전거 도로 및 교통시설 :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킥보드 등 교통 수단이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Speaker 7)
- 교통 약자 지원 : 농촌 지역 아이들이 문화시설, 학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나 지역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Speaker 6)

다. 정책 방향:

- 자전거 및 유모차 이용 환경 개선:
 - ① 자전거 및 유모차 전용도로 확충.
 - ② 농촌 지역 주요 도로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교통 약자 지원:
 - ① 지역 주민 셔틀버스 서비스 제공(학원, 문화시설 연계).
 - ② 이동 약자를 위한 전용 교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6.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가. MC 질문 : 맞벌이 가정을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주요 답변

- 긍정적 의견 :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Speaker 4)
- 부정적 의견 :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부모의 편리성만을 강조하고, 아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Speaker 5)

다. 정책 방향:

- 맞벌이 가정 지원:
 - ① 탄력 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 확대
 - ② 24시간 어린이집 시범 운영 및 실질 수요 조사.
 - ③ 주말 및 공휴일 한정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 중심 환경 조성:
 - ① 부모와 아이 간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조기 퇴근제, 유연근무제).
 - ② 공공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의 협력 확대.

7. 지역경제와 인구유입

가. MC 질문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요?

나. 주요 답변

- 산업단지 연계 주거시설 : 산업단지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peaker 2)
- 결혼 장려 : 지역 행사나 축제를 활용해 미혼 남녀를 연결하는 이벤트

를 진행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Speaker 7)

- 일자리 창출 : 귀농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필수적입니다.

(Speaker 2)

다. 정책 방향:

- 산업단지 연계 주거단지:
 - ① 산업단지 근처 주택 건설로 정주 인구 유입 유도.
 - ② 산업체 근로자 대상 육아 지원금 추가 지급.
- 결혼 장려:
 - ① 지역 축제와 결합한 맞선 이벤트, 커플 프로그램 운영.
 - ② 신혼부부 대상 주거, 출산, 육아 혜택 패키지 제공.
- 귀농 및 일자리 창출:
 - ①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 마련.
 - ② 농업과 연계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8. 정책 제안

가. MC 질문 : 육아정책 개선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주요 답변

- 탄력 근무제 확대 : 맞벌이 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조기 퇴근제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peaker 4)

- 교육 지원 : 학원과 학교 사이의 교통편을 지원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Speaker 8)

- 소규모 지역 도서관 활용 : 면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육아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Speaker 3)

다. 정책 방향:

- 탄력 근무제 확대:

- ①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체에서 조기 퇴근제 도입.
- ② 시간제 근로 및 재택근무 활성화.
- 교육 지원:
 - ① 학원 및 학교 간 교통편 연계를 위한 지역 셔틀버스 운영.
 - ② 소규모 지역 도서관을 활용한 방과 후 교육 지원.
- 육아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 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부모 모임 공간 및 지원 강화.
 - ② 부모 간 육아 정보 교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제공.
 - ③ 커뮤니티센터 시설 활용 및 수익성 운영 허용.

결론

이번 인터뷰를 통해 예산군 육아정책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육아와 경제 활동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 지역 내 돌봄 및 교육 환경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군의 육아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 종합 정책 방향

-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청년층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 특성을 살린 보육, 교육, 돌봄 정책의 혁신적 적용.
-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젊은 층 중심의 포괄적 정책 운영.